

2011년 제21권 제4호 · 겨울

# 새국어생활

국립국어원 2011-02-04  
정간위 심의필 95-13-4-21

새국어생활 Saegugeosaenghwal

제21권 제4호(2011. 겨울) Vol. 183

인쇄일 · 발행일 2011년 12월 30일

펴낸이 권재일

편집위원 박진호 · 시정곤 · 여규병 · 유현경 · 이해영 · 정희원

기획·편집 위 진

펴낸 곳 국립국어원([www.korean.go.kr](http://www.korean.go.kr))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방화3동 827번지)  
157-857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154, Geumnanghwa-ro, Gangseo-gu, Seoul, Korea

전화 (02) 2669-9775

전송 (02) 2669-9777

찍은 곳 (주)계문사

전화 (02) 725-5216

전송 (02) 738-9571

ISSN 1225-7168

## 차 례

### 특집 1 • 언어 현실과 표준어 정책 • 5

현대 사회에서 표준어의 개념과 기능 .....	최경봉	5
표준어 교육의 실태와 방향 .....	이관규	21
외국의 표준어 정책 .....	한재영	37
표준어 규범 영향 평가의 결과 .....	장소원	59
표준어 정책의 새로운 방향 - 복수 표준어 발표의 경과와 의의 - .....	최혜원	77

### 특집 2 • 복수 표준어 확대에 대한 각계의 의견 • 95

우리말과 표준어 사이 .....	김태희	95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	변정수	99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표기와 용례가 '표준'이 되기를 .....	강혜란	103
대중이 사용하는 말은 살아 움직이는 도구 .....	이효연	107
시험에서는 자장면을 쓰고 나와서 점심시간에 짜장면을 외치는 학생들, 이제 고민하지 마! .....	안용순	111
방언과 복수 표준어 .....	한성우	115
어문 규정 폐지를 통한 어문 규범의 현실화 정책을 펼 때 .....	신지영	121

### 이곳 이 사람 자장면~짜장면, 만날~맨날: 복수 표준어를 확대한 사정

- 남기심 전 국어심의회 위원장을 찾아서 - .....	차익종	127
그분을 그리며 외솔 최현배 선생의 '말씀들' .....	김석득	139
풍경 속 우리말 '탐정'과 '탐정 소설 취미'의 탄생 .....	김지영	149
우리 시의 향기 한없이 여린 사랑 .....	유준	159
국어 산책 내 인생의 국어 - 그 쓰라림과 달콤함 - .....	임재춘	167
세계의 언어 정책 슬로베니아의 언어 정책 .....	이용	173
출장 보고 프랑스의 언어 정책 기관 .....	정희원 · 위진	185



---

# 현대 사회에서 표준어의 개념과 기능

최경봉 · 원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이 글은 표준어의 개념과 기능을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sup>1)</sup> 그러나 단순히 표준어의 개념을 규정하고 그 기능에 대해 원론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표준어 개념과 표준어 의식의 특성을 표준어 정책의 역사와 관련지어 조명해 보고, 이를 근거로 표준어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 1. 표준어의 형성과 표준어 의식

조선의 언어는 상술한 것처럼 어음·어법의 각 방면으로 표준이 없고 통일이 없으므로 하여, 동일한 사람으로도 조석이 상이하고 동일한 사실로도 경향이 불일할 뿐 아니라, 또는 어의의 미상한 바가 있어도 이를 질정할 만한 준거가 없기 때문에, 의사와 감정은 원만히 소통되고 충분히 이해될 길이 바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문화의 향상과 보급은 막대한 손실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급일 세계적으로 낙오된 조선 민족의 갱생활 첩로는 문화의 향상과 보급을 급무로

---

1) 이 글은 새로운 문제의식 하에서 쓰인 것이지만,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관계로 논의 내용 중 일부가 최경봉(2006)과 겹친다. 글의 성격상 겹치는 부분을 특별히 표시하지 않고 기술했음을 밝힌다.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요, 문화를 축성하는 방편으로는 문화의 기초가 되는 언어의 정리와 통일을 급속히 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조선어사전편찬회 취지서(1929)

조선의 문화가 향상되지 못한 것이 조선어의 표준을 마련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되었다는 생각은 조선어 사전을 만들기로 결의한 사람들의 절박감을 잘 보여 준다. 당시 사람들은 절박감으로 우리말의 표준을 제시하고자 했고, 이는 우리말 사전을 완성하는 힘이 되었다. 사전이 완성된 후에야 한국어 화자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한국어의 근간(根幹)을 확인하고 이를 의식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어의 근간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할 당시, 사전 편찬자들은 우리말의 표준을 이렇게 제시했다.

大體로 現在 中流 社會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

-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

그런데 조선 초부터 시작된 서울 중심의 문화 활동 경향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위의 원칙이 현대 한국어를 새롭게 규정했다고 하기는 어렵다. 보급과 확산의 문제와 별도로, 수세기에 걸쳐 서울말이 지배 언어로 자리를 잡았음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말의 표준'을 시급히 정해야 한다는 절박감은 최소한 '서울말을 표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어떤 지역어를 표준으로 할 것이냐'를 결정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언어의 정리와 통일을 급속히 꾀하'는 일의 어려움은 '대체로'와 '중류 사회'라는 기준이 지닌 모호함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체로 쓰는 서울말'과 '중류 사회에서 쓰는 서울말'은 그 대상이 분명할 것 같지만, 당시 상황을 보면 이를 규정하는 것은 막연한 일일 수 밖에 없었다. 언어의 사용례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았던 1930년

대에 ‘대체로’의 범위는 어떻게 정할 것인가? 중류 계층이 분명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중류 사회의 말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이처럼 표준의 기준과 실체가 연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체로 쓰이는 말’과 ‘중류 사회의 말’이라는 기준은 ‘규칙에 맞는 표현’ 혹은 ‘바른 본’이 대신하게 되었다. 언어의 표준화 사업이 “바람직한 말을 찾아 중류 계층에게 걸맞은 말을 건설한다.”는 목표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두루 쓰이는 조선말 가운데에 그 바른 본”(김두봉 《조선말본》, 1916)이나 “가장 흔히 쓰이고 소리 좋은 말”(주시경 《말모이》, 1914)에서 그러한 조짐을 감지할 수 있고, “학리에 맞고 규모가 있는 말로 표준을 삼는다.”는 표준어 사정 원칙에서 당시 언어 표준화 사업의 기본 원칙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1930년대 서울말에서 일반적으로 진행된 움라우트 현상을 인정하지 않은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표준화를 주도했던 이들은 일반화되었던 ‘곰팡이, 지팡이, 애끼다’를 인정하지 않고, ‘곰팡이, 지팡이, 아끼다’를 표준 어휘로 인정하였다. 원형을 파악하는 문제를 중시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또한 같은 의미였지만 형태만 달랐던 ‘가르치다(敎 指)’와 ‘가리키다(敎 指)’를 ‘가르치다(敎)’와 ‘가리키다(指)’라는 별개의 단어로 구분한 것이나, 일반적으로 ‘다르다(異)’와 혼용되었던 ‘틀리다(誤 異)’의 의미를 굳이 ‘틀리다(誤)’로 제한한 것에서도 ‘바른 본’을 중시하는 표준어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당시의 현실적 조건상 ‘대체로 쓰는 서울말’과 ‘중류 사회에서 쓰는 서울말’이라는 규정은 표준어의 실질적 기준이 되지 못했다. 그렇다면 현재의 표준어 규정은 어떠한가?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표준어 규정(1988)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체로’가 ‘두루 쓰는’으로 ‘중류 사회’가 ‘교양 있는’으로 대체되었지만 ‘표준’의 막연함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다. 규정상으로는 ‘공통어로서의 표준어’를 제시하고자 했으면서도 공통어의 실체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이는 표준어 규정과 별도로 ‘바른 본’을 제시하는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는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표준어 정책에서 핵심적인 일은 개별 어휘소를 대상으로 표준어 사정을 하고 이 결과를 국가가 고시한 어문 규범에 의해 어휘 목록의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발맞춰 국어사전에서는 도그마가 된 어휘 목록을 기준으로 ‘맞는 어휘로서의 표준어’와 ‘잘못된 어휘로서의 비표준어’를 구분해 제시하며 국가가 고시한 어휘의 사용을 유도한다. 그러나 문제는 국가가 나서서 고시한 어휘가 한국어의 극히 일부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1936년 당시 표준어 사정안을 대중에게 공포하면서 우리말 어휘를 써야 할 어휘와 쓰지 말아야 할 어휘로 나눈 것은 언어를 기획할 수 있다는 근대적 인식의 극단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표준어 규정집에 제시된 6,000여 개의 표준어는 우리말의 사용 지침이 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당시 규범집에 제시된 어형을 기준으로 규범의 원칙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표준어를 파악하는 것은 원칙과 원리의 문제가 되었다. 그런데 그러한 경향은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다.

김선철(2008: 75)에서는 “공적으로는 지금까지 국가가 고시한 어문 규범에 언급된 3,500여 개의 단어들만 표준어가 되며, 이것만을 표준 발음법에 맞게 사용하는 사람을 표준어 사용자라고 해야 한다. 당연히 이런 조건 하에서는 우리나라에 표준어 사용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국가 규범으로서의 표준어 개념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그의 문제의식은 “인위적인 어휘 목록 개념의 표준어가 설사 국어학적 의미가 있을지라도 공통 방언의 성격을 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 정책면에서 의의를 찾기 어렵다(김선철, 2008: 76).”에서 분명해진다.

이런 점에서 표준어 개념을 어휘의 규범이 아닌 공통어의 개념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설득력을 얻는다. 국가가 모든 어휘의 형태를 결정하여 공통어를 제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설계한 표준어가 실제 언어생활에서 제 역할을 하기도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재는 언어의 사용례가 충분히 축적되어 ‘두루 쓰는 말’의 의미가 이전보다 분명해졌다.

그런데 공통어로서의 표준어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표준어 정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두 가지일 것이다. 첫째는 ‘공통어’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서울말이 공통어라고 한다면, 서울말의 실제에 대한 논의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특히 지역 공간과 지역 언어가 분명하게 연결되던 시대와 달리 현대는 지역 공간과 지역 언어의 연결 고리가 분명하지 않은 시대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통어가 생성되고 활용되는 공간적 범위를 서울로 한정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따를 수 있다.

둘째는 언어 정책의 방향과 관련한 문제이다. 공통어로서의 표준어를 확립하는 표준어 정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언어 정책은 공통어의 변화 추이를 조사하고 기술하는 데 있을 것인데, 이러한 기술주의적 정책을 바람직한 언어 정책으로 볼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 제기에 어떻게 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 2. 공통어로서의 표준어, 그 개념과 범위 그리고 구현의 문제

이 장에서는 공통어로서의 표준어 개념을 짚어 보면서, 현재 상황에 걸맞은 표준어 개념을 정립하는 문제를 거론할 것이다. 또한 공통어로

서의 표준어를 제시하는 가장 유력한 매체로서 국어사전의 기능과 기술 방향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 2.1. 공통어의 개념과 범위

표준어를 제정했을 때부터 ‘표준어’는 ‘공통어’와 같은 말이었다. 이는 표준어와 공통어가 공히 서울 방언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표준어 정책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표준어는 다양한 지역 방언을 수용하거나 이를 가공하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되기도 했다. 표준어를 어느 특정 지역 방언이 아니고 이상적인 공통어로 보고자 했던 것이다. 이는 표준어와 방언의 대립 구도 혹은 서울 방언과 기타 지역 방언의 대립 구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흐름은 표준어를 이상적인 공통어로 개념화함으로써, ‘공통어로서의 표준어’의 개념을 모호하게 만든 측면이 있다. 그러나 서울 방언과 지역 방언이 융합한 표준어를 만들고자 했어도 이는 부분적인 측면에서의 융합일 수밖에 없었고, 음운, 형태, 통사의 체계상 표준어는 서울말이었다. 따라서 ‘공통어로서의 표준어’의 실재를 서울말의 사용 및 변화 양상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음은 자명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의 언어 상황이 표준어 제정 당시와 달라졌고 이에 따라 서울말의 위상도 변화했다는 사실이다. 가장 큰 변화는 표준어 정책이 지속되면서 서울말이 지역 방언의 틀을 벗어난 것이다. 교육, 행정, 문화의 중앙 집중 그리고 미디어와 통신 매체의 발달로 문화적 결속력이 커지면서 서울말의 전국어화는 더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방언의 소멸을 우려하지만 실질적으로 방언의 소멸을 지연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점에서, 표준어와 방언의 대립 구도도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공통어를 서울말이라고 특별하게 한정하는 것은 언어 정책상 거의 의미가 없다. 서울말 화자를 서울 지역 거주민으로 한정할 수 없는 것처럼, 공통어의 사용 현황을 조사하는 것을 서울 지역으로 한정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서울과 지역 간의 실시간 교류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언어생활 비중이 늘어나면서 언어의 지역적 경계가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서울말이 전국적으로 사용되면서 공통어의 변화를 이끄는 요인이 전국적 범위에서 발생한다.’는 말로 정리할 수 있다. 즉 공통어의 생성과 활용이 전국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이는 방언의 생성과 활용이 지역적으로 고립화되는 것과 대조되는 현상이다.

공통어를 서울말로 한정하는 것의 언어 정책상 의미가 갈수록 하락하는 것은 한국의 정치 상황과도 관련되는 문제이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한국 내에서 공통어의 변화를 불러올 만큼 지역적 세력권이 재편될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남북통일에서 비롯되는 국가 영역의 변동을 기점으로 공통어가 새롭게 정립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통일의 방식에 따라 공통어의 정립 방식도 달라지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공통어의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공통어의 범위를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sup>2)</sup>

특정 지역에서 생성되고 활용되는 방언이 공통어의 역할을 하는 시대에서 전국을 기반으로 한 공통어가 전국을 기반으로 생성되고 활용되는 시대로 변화하면서, 근대적 표준어 개념으로 현재의 공통어를 설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통일의 시대에 공통어의 정립 문제는 새로운 계획이 필요한 일일 수 있다.

그렇다면 공통어를 제시하고 활용하는 일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

---

2) 남북통일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공통어의 형성을 자연적인 흐름에 맡길 수만은 없을 것이다. 《겨레말큰사전》 편찬과 같은 작업의 결과는 공통어의 형성이 민족 화합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인위적 토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는가? 공통어의 전모를 보여 주고, 공통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매체는 국어사전이다. 앞서 표준어 규정을 만들고 이를 통해 사전 편찬의 기틀을 마련했던 선각자들 역시 공통어로서의 표준어를 제시하는 방안은 사전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다.

## 2.2. 공통어의 구현을 위한 국어사전의 체제와 기능 문제

‘공통어로서의 표준어’를 보여 주는 국어사전이라면 공통어로 규정한 언어의 면모를 최대한 정밀하게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즉 다양한 어휘를 최대한 수록하여 현대 한국어의 전모를 보이고 그 사용역(使用域)과 용법을 정밀하게 기술하여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통어로서의 표준어를 보여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이더라도 그것이 규범 사전을 지향한다면 기술 체제는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국어사전은 규범적으로 바른 언어형을 특별히 제시하여 언어 사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기술 체제를 갖추게 될 것이다.

표제어의 수록과 그것의 뜻풀이에 한정해 보면<sup>3)</sup>, 현재 국어사전의 편찬 방식은 공통어로서의 표준어를 수록하고 이것의 사용역과 용법을 보여 주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규범적인 어휘와 비규범적인 어휘를 구분하여 보여 주는 등 규범 사전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이는 현재의 어문 규범을 직접적으로 소개해야 하는 것 또한 사전의 의무라고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근래 편찬되는 국어사전은 현대 한국어의 전모를 보여주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

3) 본 논의에서는 표준 발음 및 문법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소통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다면 가장 핵심적인 것은 어휘일 것이기 때문에 우선 이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했음을 밝힌다.

검은띠, 호빵, 덩동댕, 맨얼굴, 시끌버끌하다, 신통찮다, 아싸, 어물  
 쨍대다, 얼어죽다, 얼음땡, 여리여리하다, 오물조물, 왜냐면, 용케, 울  
 그락불그락, 짜맞추다, 빈집털이, 신김치, 손글씨, 아름다움, 주눅들다,  
 기러기아빠, 덮어쓰기, 얼짱, 속쓰림, 새터, 가시오가피, 서리태, 뽕세  
 다, 알짬없다, 뺑뺑다, 뽕사리, 통굽, 콩쥐, 팔쥐, 뽕야, 속닥하다, 손뽕,  
 애엄마, 안마, 탕자탕자, 털복숭이, 패대기, 간판굽, 군필자, 금고털이,  
 놀토

- 《고려대 한국어사전》(2009)에 수록된 신어 일부

이처럼 국어사전에서의 신어 수록 양상은 공통어에 대한 인식 양상  
 을 잘 보여준다. 국어사전 편찬자는 새롭게 쓰이는 어휘형을 관찰하고  
 이것을 사전에 등재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그 판단은  
 일반적인 쓰임을 보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객관적 평정(評定) 작  
 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때 평정 작업에서 중요한 기준은 해당 어휘가 어느 지역에서 쓰이  
 는 말이나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쓰이느냐이다. 즉 평정 작업은 전국적  
 단위로 이루어지며 산출된 모든 언어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어휘  
 가 서울말에 속하는지 아니면 지역 방언에 속하는지를 판별하고, 지역  
 방언이라면 서울말에 없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인지 아닌지를 판별  
 해야 했던 조선어 학회 사전 편찬자들에 비한다면 오늘날 사전 편찬자  
 의 어휘 선정 기준은 비교적 간단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규범적 어휘와 비규범적 어휘를 구분하여 보여 주는 것은 현재 표준  
 어 규정에서 표준어와 비표준어로 갈랐던 특정한 형태에 한정될 뿐이  
 다. 그러니 성문화된 규범이 사라지거나 복수 표준어가 확대된다면 사  
 전은 자체의 편찬 기준으로 어휘 평정 작업을 진행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공통어를 보여 주게 될 것이다. 편찬 중인 사전이 참조해야 할  
 규범은 이전에 출간한 사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전이 편찬되는 순간  
 사전은 그것 자체로 하나의 규범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공통어로서의 표준어가 확립되었을 때, 별도의 표준어 규정은 의미가 없는 것인가?

### 3. 규정(規定)으로서의 표준어, 그 한계와 가능성

이 장에서는 표준어 규정의 존재 의의를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는 현재 표준어 규정이 존속되는 것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복수 표준어의 확대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는 표준어 규정이 필요한 것이라면 최대한 복수 표준어를 지향하지는 것이다. 둘째는 공통어로서의 표준어가 확립된 상태에서도 표준어 규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는 공적 영역에서의 언어 통제는 언어의 다양성 보장이라는 형식적 평등보다 발전한 개념일 수 있다는 관점에 따른 것이다.

#### 3.1. 표준어 규정의 존속과 복수 표준어의 확대

규범은 보수적이고 현실 언어는 역동적이기 때문에, 현실 언어와 규범의 괴리 문제는 언어가 사용되고 규범이 존재하는 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현재의 표준어 정책을 유지하는 한 이러한 괴리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지만, 현재의 정책 안에서 현실 언어와 규범의 괴리를 최소화하고 언어 사용의 통일성을 도모하는 시도는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2011년 8월 31일은 표준어 정책사에서 의미 있는 날이었다. 국립국어원에서 국민 실생활에 많이 사용되지만 표준어 대접을 받지 못한 39개의 단어들을 표준어의 반열에 올려놓았기 때문이다.

‘간지럽히다, 맨날, 허접쓰레기’ 등은 자주 쓰이는 말이면서도, ‘간질이다, 만날, 허섭쓰레기’ 등과 같은 표준어와 의미가 같다는 이유로 잘 못된 말로 취급되었다. ‘나래, 눈꼬리, 두루뭉실하다, -길래’ 등은 ‘날개,

논조리, 두루뭉술하다, -기에’ 등과 어감과 쓰임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비표준어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 누구나 먹는 ‘짜장면’은 생소한 ‘자장면’에 표준어 자리를 양보해야만 했었다. 단일한 표준어에 대한 집착이 규범과 실제의 괴리를 키웠던 것이다.

8월 31일의 조치는 규범과 실제의 괴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은 복수 표준어를 인정하는 현행 규범에서 찾을 수밖에 없음을 웅변하고 있다. 현행 규범에서 부분적으로 복수 표준어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단일 표준어를 원칙으로 하는 데에서 오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언어 실태를 고려할 때 복수 표준어라는 예외적 조항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언어 실태 조사의 결과를 규범에 반영하는 일은 표준어를 바꾸는 방향이 아니라 현실과 기존 원칙을 동시에 인정하여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한 예로 《큰사전》에 표준어로 등록되었던 ‘미숫가루’와 ‘상치’는 현재 규범에 비취볼 때 ‘미숫가루’와 ‘상추’로 바뀌 써야 하지만, 아직까지도 과거 규범의 잔상이 남아 ‘미숫가루’와 ‘상치’ 쪽으로 기울어지는 사람이 많다. 그렇다면 대등한 사용을 보이는 어휘 중 어느 하나를 표준어로 삼아 오류 표현을 양산하는 것보다는 둘을 모두 표준어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그동안 표준어 정책이 인위적인 오류 표현을 양산하였다면, 복수 표준어의 확대는 혼란보다는 안정적 글쓰기를 돕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복수 표준어를 확대하려는 입장에서 볼 때, 39개의 단어가 얻은 표준어의 지위를 다음과 같은 단어가 얻지 못할 이유를 찾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결판지다, 꺼림칙하다, 어줍잖다, 으시대다’가 비표준어이고 그에 대응되는 ‘거방지다, 꺼림칙하다, 어줍잖다, 으시대다’가 표준어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언어 현실을 반영해 복수 표준어를 확대하는 것은 남북 언어의 통일 문제와 연관시켜 볼 때도 필요한 일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8월 31일 새롭게

표준어의 지위를 얻은 말들 중 상당수가,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단어들이 이미 북한의 문화어로 쓰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통일 지향적인 어문 정책을 위해서라도 남한의 언어 실태와 남북한 언어 규범의 차이를 분석하면서 복수 표준어를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복수 표준어의 확대는 결국 표준어에 대한 인식과 그것의 규정 방식을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복수 표준어가 많아진다면 표준어 사정 원칙과 관련한 조항이 거의 무의미하게 될 것이고, 표준어를 규정하는 역할은 결국 사전이 담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언어 현실의 변화를 사전이 수용하고, 사전의 기술 내용은 언어 현실을 통일하는 규범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곧 공통어로서의 표준어를 구축하는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 3.2. 언어의 공공성 확보와 표준어 규정의 위상 문제

앞 절에서는 단일 표준어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언어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복수 표준어 정책이 궁극적으로는 공통어로서의 표준어를 구축하는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런데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언어의 다양화뿐만 아니라 언어를 간단히 하는 것도 언어 발전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이다. 특히 공적인 언어의 경우 간단하고 명확할수록 좋을 것이다.

공적 언어의 간명화 문제를 국가 공동체의 원활하고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사용할 어휘를 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공적 영역의 공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언어 통제의 방법론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의 표준어 규정은 언어 통제가 필요한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구분하지 않아 표준어 규정이 전체 언어의 통제로 확대될 여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언어의 간명화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현재 ‘미추다’와 ‘맞추다’를 ‘맞추다’로 통합시켜 표준어로 삼은 것은 간명화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이때 ‘미추다’와 ‘맞추다’를 구분한 것이 의미의 정교화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의 통합은 언어 사용자의 수월성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윗도리’와 ‘웃어른’으로 구분하여 쓰는 ‘윗-’과 ‘웃-’도 하나로 통합하여 쓸 수 있을 것이다. ‘대장장이’나 ‘개구쟁이’에서 ‘-장이’와 ‘-쟁이’도 마찬가지다. ‘세 마리, 석 돈, 서 말’ 등으로 구분해 온 수의 표현이 복잡하면서도 현실적인 의미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에서 ‘세’로 통합하는 것 또한 간명화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인위적 규범이라 할지라도 현실 언어를 바탕으로 만들어져야 하고, 현실 언어와 공존할 때 간명화한 규범의 실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언어의 간명화와 언어의 다양화라는 서로 다른 가치는 어떻게 조화할 수 있는 것인가? 언어 정책이 고민해야 할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일 것이다. 현재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는 간명화한 형태와 현재의 표준어를 복수 표준어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복수 표준어 중에서 간명화된 언어형은 교육, 행정, 법률 분야 등 공적 영역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간명화는 새로운 언어 형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용 어휘 목록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단일 표준어 원칙은 표준어의 경직화를 초래하였지만, 단일 표준어 원칙의 중요한 정신은 하나의 의미에 하나의 표준어를 대응시켜 의사소통을 편리하게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단일 표준어 원칙의 적용 영역을 제한한다면 언어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교육, 행정, 법률 영역에서 특정 전문어를 제외하고 언어의 사용 범위를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행정과 법률 영역의 문서가 간단해지고 더불어 국민의 문식력(文識力)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표준어 정책의 기본 정신은 다른 언어권의 정책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20여 개국에서 서로 다른 규범을 가진 상태에서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스페인어의 교육 문제는 시사적이다. 스페인어권 화자와 의사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스페인어 교육을 위해서는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언어 형식을 가르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 여러 변이형 중 구조적으로 간결한 것을 가르치거나 여러 규범 중에서는 문화적으로 발전된 곳의 스페인어를 택하는 방법을 취한다. 그러나 스페인어권 국가들을 선도하는 중심 국가가 없는 한 이러한 교육 방식은 구조적으로 간결한 변이형을 중심으로 한 스페인어 규범을 만드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언어의 예는 아니지만, 문자를 간명화한 예들은 간단하고 명확한 기호의 장점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중국 정부는 간체자를 통용시키면서 한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일본은 1981년 일상 사회생활에 사용하는 한자의 기준으로 1,945자의 상용한자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소리와 뜻이 유사한 한자의 통합을 통해 추려낸 상용한자가 국한혼용(國漢混用)의 현실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문자의 간명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언어 및 문자의 습득을 간편하게 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실 언어를 바탕으로 간명화를 진행한다면, 표준어는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공격 의사소통을 쉽고 편안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처럼 표준어의 간명화는 언중들이 쉽게 말하고 쉽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표준어 정책의 지향을 잘 보여 준다. 특히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언어의 소통 문제가 복지的重要组成部分이 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에도 공적 영역에서 표준어의 간명화 작업은 필요한 일일 것이다.<sup>4)</sup>

---

4) 이주 여성 중 한국어 수준이 높은 사람들조차도 공공 기관에서의 의사소통이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의 의사소통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불편은 대개 제출 서류와 학교 알림장 등에서 사용되는 표현이 정제되지 않은 데에서 비롯된다.

#### 4. 결론을 대신하여

공통어의 기반이 확고해지고 복수 표준어가 확대되는 현실을 볼 때, 표준어 정책은 결국 '공통어로서의 표준어'를 지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어사전은 언어 사용의 안내서로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언중들의 언어 사용을 이끄는 언어 정책은 빛을 잃게 될 것이고, 언중들의 언어 사용을 기록하고 그 변화 추이를 추적하는 기술주의적 정책이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언어 정책에서 언어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정책의 한 축이 되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오늘날 표준어 정책의 요체는 언어의 다양성 확보와 언어의 공공성 확보라는 두 가지 면을 조화하는 데 있을 것이다. 표준어 규정을 통한 언어의 간명화 문제를 특별히 거론한 이유는 이를 환기하기 위해서이다.

## 참고 문헌

- 김민수(1973), 《국어 정책론》, 고려대학교 출판부.
- 김선철(2008), 표준어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위하여, 《한국어의 규범성과 다양성 - 표준어 넘어서기 -》, 태학사.
- 이상규, 조태린 외(2008), 《한국어의 규범성과 다양성 - 표준어 넘어서기 -》, 태학사.
- 조태린(2004), 계급 언어, 지역 언어로서의 표준어, 《당대비평》 26.
- 최경봉(2006), 표준어 정책과 교육의 현재적 의미, 《한국어학》 31.

---

## 표준어 교육의 실태와 방향

이관규 ·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

### 1. 표준어 교육의 맛보기

#### <장면 1>

- ① 환자: 아이고, 이사 선생님, 멍치가 우리해서 왔어예.  
의사: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 ② 환자: 의사 선생님, \_\_\_\_\_ 왔어요.  
의사: 아, 멍치가 아파서 오셨군요.

#### <장면 2>

- 만수: 영철아, 겁나게 오래간만이다. 서울에서 언제 왔나?  
영철: ① 만수구나. 지금 막 도착했어. 오랜만에 고향 말을 들으니  
참 좋다.  
② 만수구나. 지금 막 도착했어야. 아따, 오랜만에 고향 말  
을 들으니 징하게 좋다야.

- 교육과학기술부(2010: 83~84)

위는 초등학교 4학년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장면 1>의 ①에서 환자가 방언으로 말을 하니까 의사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 <장면 1>의 ②에서는 밑줄을 치고 그 안에 적절한 표준어를 넣어 보라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의사소통을 위해서 표준어가 필요하

다는 점을 가르치고 있는 셈이다. <장면 2>는 오랜만에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고향에 온 영철이와 고향에서 생활하고 있는 친구 만수가 나누는 대화이다. 만수의 고향 말에 대하여 영철이가 표준어로 말할 때와 방언으로 말할 때 느낌의 차이가 어땠을까 알아보면서 방언의 가치를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로 제시되고 있다.

우리는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언어로 표현한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입을 통해서 나오는 언어는 생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반대로 누군가가 표현한 말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해 준다. 이를 통해서 볼 때 모든 언어는 표준어든 방언이든 그 나름대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는 표준어와 방언을 함께 다루고 있다. 표준어와 방언의 가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표준어 교육이라는 말은 낫설지 않지만 방언 교육이라 하면 약간 낯선 감이 없지 않다. 교육의 중심을 표준어 쪽에 두고 있다는 말이다.

이 글에서도 각급 학교에서의 표준어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실태를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 먼저 교사와 학생들이 표준어 및 그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피고, 이어서 교육 과정과 교과서를 통해서 표준어 교육의 실태를 점검해 보고, 나아가 앞으로의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한다.

## 2. 표준어 교육의 인식

표준어 교육의 실태를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교육 과정이나 교과서의 실태를 확인해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교사의 인식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이다. 여기서는 먼저 설문 조사를 통해서 학생과 교사들이 지니고 있는 표준어와 표준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양상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들을 설문해 보았다. 설문 대상으로 한 각급 학교별 학생 숫자와 교사 숫자는 (1)과 같다. 설문 대상으로 삼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각각 두 군데씩이다. 초등학생은 5학년,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모두 2학년 학생들이었으며, 교사들의 담당 학년과 과목은 특별히 제한하지 않았다.<sup>1)</sup>

### (1) 각급 학교별 설문 대상 숫자

	학생 수	교사 수
초등학교	101	32
중학교	117	31
고등학교	106	30
합계	324	93

## 2.1. 표준어의 필요성 인식

표준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교육의 주체인 교사와 학생들의 인식 양상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 (2) 학생의 표준어 필요성에 대한 인식

	① 아주 불필요하다		② 불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다		⑤ 아주 필요하다		합계	
	숫자	%	숫자	%	숫자	%	숫자	%	숫자	%	숫자	%
초등학교	1	1.0	6	5.9	39	38.6	29	28.7	26	25.8	101	100
중학교	1	0.9	4	3.4	26	22.2	60	51.3	26	22.2	117	100
고등학교	0	0.0	3	2.8	13	12.3	66	62.3	24	22.6	106	100
합계	2	0.6	13	4.0	78	24.1	155	47.8	76	23.5	324	100

1) 초등학생을 5학년생으로 정한 것은 4학년 때 이들이 표준어와 방언에 대하여 학습을 했기 때문이다. 한편 설문 조사는 서울석촌초등학교, 서울당현초등학교, 상봉중학교, 서울사대부속중학교, 오산고등학교, 경화여자고등학교의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먼저 교육의 대상인 학생들의 인식 양상을 보도록 하자. 표준어의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하다, 아주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하는 학생들은 71.3%(각각 47.8%, 23.5%)를 차지하고 있어서, 국어 생활에서 표준어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생들의 표준어 필요성 인식 정도가 매우 높으며(84.9%), 중학생(73.5%)과 초등학생(54.5%)의 인식 정도가 순서대로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생의 표준어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은 후술하겠지만((10) 참조) 초등학교에서 방언 교육을 매우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 (3) 교사의 표준어 필요성에 대한 인식

	① 아주 불필요하다		② 불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다		⑤ 아주 필요하다		합계	
	숫자	%	숫자	%	숫자	%	숫자	%	숫자	%	숫자	%
초등학교	4	12.5	1	3.1	2	6.3	17	53.1	8	25.0	32	100
중학교	1	3.2	1	3.2	0	0.0	17	54.9	12	38.7	31	100
고등학교	0	0.0	4	13.3	5	16.7	11	36.7	10	33.3	30	100
<b>합계</b>	<b>5</b>	<b>5.4</b>	<b>6</b>	<b>6.4</b>	<b>7</b>	<b>7.5</b>	<b>45</b>	<b>48.4</b>	<b>30</b>	<b>32.3</b>	<b>93</b>	<b>100</b>

다음으로 교사들의 표준어에 대한 인식 양상을 알아보자. 교사들이 느끼는 표준어 필요성 인식 정도는 학생들보다 높아서 80.7%나 되고 있다(필요하다: 48.4%, 아주 필요하다: 32.3%). 학생들의 인식과는 차이가 있는데, 중학교 교사 93.6%, 초등학교 교사 78.1%, 고등학교 교사 70.0% 순서로 표준어 필요성 인식 정도를 보여 주고 있다. 학생들은 고등학생들이 표준어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았지만 교사들은 중학교 교사들이 월등하게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 교사들의 표준어 인식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서 주목된다.

## 2.2. 표준어 교육의 필요성 인식

이번에는 표준어 교육에 대해서 학생과 교사가 갖고 있는 인식 양상을 알아보도록 하자.

### (4) 학생의 표준어 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① 아주 불필요하다		② 불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다		⑤ 아주 필요하다		합계	
	숫자	%	숫자	%	숫자	%	숫자	%	숫자	%	숫자	%
초등학교	2	2.0	20	19.8	43	42.6	26	25.7	10	9.9	101	100
중학교	0	0.0	17	14.5	32	27.4	55	47.0	13	11.1	117	100
고등학교	1	0.9	17	16.1	23	21.7	55	51.9	10	9.4	106	100
<b>합계</b>	<b>3</b>	<b>0.9</b>	<b>54</b>	<b>16.7</b>	<b>98</b>	<b>30.2</b>	<b>136</b>	<b>42.0</b>	<b>33</b>	<b>10.2</b>	<b>324</b>	<b>100</b>

먼저 학생들이 느끼는 표준어 교육에 대한 인식 양상을 알아보도록 하자. 학생들은 초·중·고 모두 함께 볼 때, 52.2%가 표준어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는 앞서 (2)에서 본, 표준어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71.3%와는 많은 차이가 나는 수치이다. 표준어가 필요하다고는 느끼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표준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말이다.

학교 급별로 볼 때는 비록 그 수치는 현격히 떨어지지만, 표준어 필요성과 표준어 교육 필요성의 인식 정도에서 전체적인 경향성이 일치하고 있다. 즉 고학년일수록 표준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더 느끼고 있다. 고등학생이 61.3%, 중학생이 58.1%로 상대적으로 높고, 초등학생은 35.6%로 매우 낮은 인식 정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뒤의 (10)에서 보겠지만 초등학교에서 방언 교육에 대해 강조하는 것과 상통한다고 이해된다.

### (5) 교사의 표준어 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① 아주 불필요하다		② 불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다		⑤ 아주 필요하다		합계	
	숫자	%	숫자	%	숫자	%	숫자	%	숫자	%	숫자	%
초등학교	2	6.2	2	6.2	3	9.4	18	56.3	7	21.9	32	100
중학교	1	3.2	0	0.0	2	6.5	16	51.6	12	38.7	31	100
고등학교	0	0.0	6	20.0	5	16.7	13	43.3	6	20.0	30	100
<b>합계</b>	<b>3</b>	<b>3.2</b>	<b>8</b>	<b>8.6</b>	<b>10</b>	<b>10.8</b>	<b>47</b>	<b>50.5</b>	<b>25</b>	<b>26.9</b>	<b>93</b>	<b>100</b>

교사의 표준어 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학생들과 차이가 많이 난다. 표준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7.4%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서, 학생들의 52.2%와는 매우 큰 차이를 보여 준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들은 각각 78.2%, 90.3%, 63.3%가 표준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을 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표준어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과 비슷한 경향성을 보인다. 우리는 이미 (3)에서 초·중학교 교사들이 각각 78.1%, 93.6% 표준어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았다. 이에 비해 고등학교 교사들은 표준어 필요성도 그렇고 표준어 교육 필요성에 대해서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교사가 판단하기에 고등학생들에게는 어느 정도 표준어가 인지된 상태이고, 특히 고등학교는 상급 학교 진학 등을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 3. 표준어 교육의 실태

### 3.1. 교육 과정에서의 표준어 관련 내용

이제 학교에서 실행되고 있는 표준어 교육의 실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

자. 초·중·고등학교에서의 표준어 교육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자료는 국어과 교육 과정이다. 교육 과정에 따라 교과서가 제작되고 교과서에서 제시된 대로 실제 현장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먼저 교육 과정을 살펴보고 이의 구현체인 교과서 내용을 보도록 한다.<sup>2)</sup>

## (6) 제7차 국어과 교육 과정(1997)에서의 표준어 관련 내용

- ㄱ.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에서 표준어를 사용하여 말한다. [초-5학년-말하기-(5)]  
표준어와 방언의 개념을 안다. [초-5학년-국어 지식-(4)]  
공식적인 상황에서 표준어를 사용한다. [초-5학년-국어 지식-(5)]  
상황에 따라 방언과 표준어를 구별해서 사용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초-5학년-국어 지식-(6)]
- ㄴ. 국어 규범 지식 [고-국어 생활-(2)-(가)-①]  
국어 규범 사용 [고-국어 생활-(2)-(가)-②]
- ㄷ. 표준어와 비표준어를 구별하여 말한다. [고-화법-②-(㉔)]
- ㄹ. 표준어와 방언에 대하여 이해하고, 이를 상황에 따라 바르게 사용한다.  
[고-문법-(3)-(가)-②]

(6)에서 보듯이 제7차 교육 과정 시기에는, 초등학교에서는 표준어가 주로 ‘국어 지식’(문법) 영역에서 다루어졌으며, 공식적인 상황에서 표준어 말하기 교육이 5학년에서 이루어졌다. 중학교 때는 특별한 표준어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다. 시행 마지막 시기인 2011년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국어 생활’이라는 과목에서 전체 국어 규범이라는 차원에서 표준어가 다루어지고 있으며, 역시 선택 과목인 ‘화법’과 ‘문법’에서 다루

---

2) 2011년 현재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 3학년은 제7차 국어과 교육 과정에 따른 교과서로 교수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초등학교 1~6학년, 중학교 1,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제8차 국어과 교육 과정에 따른 교과서로 교수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9차 교육 과정은 2011년 8월 9일에 발표되었는데, 2013년 3월부터 학교 급별 및 학년별로 교과서가 현장에 순차적으로 보급될 예정이다.

어지고 있다. 특히 방언과 함께 가르쳐지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표준어와 방언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고 있다

(7) 제8차 국어과 교육 과정(2007)에서의 표준어 관련 내용<sup>3)</sup>

- ㄱ. 표준어와 방언의 사용 양상을 이해한다. [초-국어-4학년-문법-(1)]
  - ㄴ. 지역 방언을 듣고 언어의 다양성과 소통의 의미를 이해한다. [중-국어-9학년-듣기-(3)]
  - ㄷ. 상황에 따라 표준어와 비표준어를 구별하여 말한다. [고-화법과 작문 I-(2)-(가)-①㉠]
  - ㄹ. 표준 발음법의 원리와 규정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발음한다. [고-독서와 문법 I-(1)-(가)-①]
- 각 지역 방언의 특징을 탐구하고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발음한다.  
[고-독서와 문법 I-(1)-(가)-②]
- 한글 맞춤법 원리와 표준어 규정을 이해하고, 단어를 올바르게 사용한다.  
[고-독서와 문법 I-(1)-(나)-①]

(7)의 제8차 교육 과정에서도 문법과 화법 차원에서 표준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1년 현재 표준어 교육이 초등학교에서는 4학년 문법 영역을 통하여 시행되고 있고, 고등학교에서는 화법과 문법 차원에서 표준어가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7ㄴ, ㄹ)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표준어 교육이 지역 방언과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7ㄴ)의 것은 중학교 3학년의 ‘듣기’ 영역에서의

---

3) 2007년과 2011년에 나온 국어과 교육 과정은 공식 명칭에 제8차, 제9차라는 말이 들어 있지 않다. 2007년 것은 그냥 ‘국어과 교육 과정’, 2011년 것은 ‘2009 개정 국어과 교육 과정’으로 고시되어서, 교육 과정을 통시적으로 고찰할 때 헷갈리곤 한다. 1997년 것을 제7차 국어과 교육 과정이라 하니, 필자는 2007년 것을 제8차 국어과 교육 과정, 2011년 것을 제9차 국어과 교육 과정이라고 이 글에서 명명하도록 하겠다. 한편 2009년 교육 과정을 말하곤 하는데, 그것은 고등학교 선택 과목(화법과 작문 I·II, 독서와 문법 I·II, 문학 I·II)에 한한 것일 뿐이다.

방언 관련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다루려면 어차피 표준어에 대한 언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제시하였다.

**(8) 제9차 국어과 교육 과정(2011)에서의 표준어 관련 내용**

- ㄱ. 표준어와 방언의 가치를 알고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초-국어-3·4학년군-쓰기-(2)]
- ㄴ. 어문 규범의 기본 원리와 내용을 이해한다. [중-1~3학년군-문법-(3)]
- ㄷ.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내용을 알고 교양 있는 표기 생활에 대해 알아본다. [고-국어 I-문법-(12)]
- ㄹ.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을 이해하고 국어 생활에서 활용하도록 한다. [고-독서와 문법-(9)]

제9차 국어과 교육 과정은 2013년부터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표준어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예상하게 해 준다. (8ㄱ, ㄴ)에서 보듯이 2013년부터는 초등학교 3·4학년에 ‘쓰기’ 영역에서 표준어가 다루어지고, 또한 이전에 나오지 않았던 중학교 과정에서 표준어가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고등학교에서는 다른 어문 규범 내용이 나오지만 표준어에 대해서 특별히 단원을 통해 교수 학습되지 않을 전망이다(8ㄷ, ㄹ).

**(9) 제7차~제9차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의 표준어 관련 내용**

	제7차(1997)	제8차(2007 [2009])	제9차(2011)
초등학교	○ ‘국어’ 5학년 [말하기, 국어 지식] 표준어와 방언	○ ‘국어’ 4학년[문법] 표준어와 방언	○ ‘국어’ 3·4학년군 [쓰기] 표준어와 방언
중학교		○ ‘국어’ 9학년[듣기] 지역 방언	○ ‘국어’ 중1~3학년군 [문법] 어문 규범
고등학교	○ ‘국어 생활’	○ 화법과 작문 I [2009]	○ 국어 I

	제7차(1997)	제8차(2007 [2009])	제9차(2011)
	어문 규범 ○ ‘화법’ 표준어와 비표준어 ○ ‘문법’ 표준어와 방언, 표준 발음	표준어와 비표준어 ○ 독서와 작문 I [2009] 표준 발음법, 지역 방언, 표준어 규정	한글 맞춤법 ○ ‘독서와 문법’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

지금까지 살펴본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의 표준어 관련 내용은 (9)에 서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제7차와 제8차에서는 주로 문법과 화법 영역 차원에서 표준어가 방언과 함께 다루어져 왔으나 제9차에서는 주로 문법에서 다루어지고 쓰기 영역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제7, 8차 때는 중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취급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제9차 때는 중학교에서도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전에는 고등학교에서 표준어가 많이 다루어져 왔으나 제9차 때는 다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와 같은 예상은 교육 과정에 나타난 성취 기준의 내용을 주로 갖고 한 것이며, 실제 교수 학습 현장에서는 교수 학습의 자료로서 표준어와 방언들이 더 많이 다루어질 수도 있다.

### 3.2. 교과서에서의 표준어 관련 내용

이번에는 교육 과정의 구현체인 교과서에 나타난 표준어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표준어를 다룬 교과서로는 초등학교 ‘국어(듣기·말하기·쓰기)’ 4학년 1학기 것을 주목할 수 있다.

#### (10) 초등학교 ‘국어(듣기·말하기·쓰기) 4-1’의 표준어 관련 내용

##### 【5. 알아보고 떠나요】

표준어와 방언에 대하여 알아보시다.

표준어와 방언을 상황에 알맞게 사용하면 좋은 점을 알아보시다.

방언을 조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조사해 봅시다.

조사한 방언을 정리하고 발표 준비를 해 봅시다.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발표하여 봅시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하여 봅시다.

놀이터

제8차 교육 과정의 4학년 문법 영역에 제시된 ‘표준어와 방언’ 내용은 전체 8개 대단원 가운데 1개를 차지하고 있다. 그 분량도 전체 164쪽 가운데 18쪽을 차지하고 있어서 매우 강조되고 있다. 그 순서는 (10)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일단 표준어와 방언이 모두 가치가 있음을 학습하고 상황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다루고 있다. 그런데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표준어보다 방언 쪽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개 항목만 표준어와 방언의 관계를 다루고 대부분은 방언 조사 및 그 결과 발표를 하는 학습 방식으로 교과서가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2), (4)의 설문 결과 중 초등학교 학생들의 응답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즉 초등학교 학생들은 표준어보다는 방언 쪽에 보다 가치를 부여하고 있었는데, 이는 곧 교과서 자체가 방언을 강조하는 교육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11) 중학교의 ‘국어 3-1’, ‘생활 국어 3-1’의 표준어 관련 내용

국어 2. 중심 내용 파악하기 [읽기]

#### (1) 표준어와 방언

생활 국어 2. 바르고 정확하게 쓰기 [쓰기/국어 지식]

[부록] 간추린 표준어(2단원 관련)

중학교에서의 표준어 교육은 교육 과정을 볼 때 공식적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게 옳다. (9)에서 보았듯이 현행 중학교 3학년에서는 교육 과정상 표준어 관련 항목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

인적자원부(2003)에서 펴낸 ‘국어 3-1’ 교과서에 (11)에서와 같이 읽기 자료로서 ‘표준어와 방언’ 항목이 들어가 있다. 본격적인 표준어 교육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나마 표준어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생활 국어 3-1’의 〈부록〉에서는 ‘간추린 표준어’라 하여 맞춤법과 관련한 표준어 규정이 제시되어 있다. 직접적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표준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12) 고등학교 ‘국어 생활’, ‘화법’, ‘문법’의 표준어 관련 내용

- ㄱ. 국어 생활 [김홍규 외(2003)] II. 바른 국어 생활
  - 1. 국어 규범 지식
  - 2. 국어 규범의 사용
- ㄴ. 화법 [김광해 외(2003)] II. 화법의 원리와 태도
  - 3. 화법의 언어적 원리 2) 정확하게 표현하기
    - [부록] 1. 표준 발음법
- ㄷ. 문법 8. 국어의 규범
  - 1. 표준어와 표준 발음

2011년도 현재 고등학교에서 국어과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표준어 교육은 (12)에서 보이듯이 ‘국어 생활’, ‘화법’, ‘문법’ 과목에 분산되어 시행되고 있다. ‘국어 생활’은 2003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사용 되는 검정 교과서이고, ‘화법’도 마찬가지다. ‘문법’은 2002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사용되는 국정 교과서이다. 이 세 가지 과목은 모두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배우지는 않는다. 필수적으로 배우는 ‘국어(상·하)’에는 표준어 관련 내용이 없다. 따라서 고등학교에서 표준어 교육을 모든 학생들이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국어 생활’이나 ‘문법’ 교과서에서는 어문 규범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덩달아 표준어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다. ‘화법’에서는 정확하게 표현하기의 일환으로 표준 발음, 표준어 등을 다루고 있다(12ㄴ).

요컨대 국어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표준어 관련 내용은 교육 과정 상으로는 초등학교에서 강조되고 있으나 실제 교과서 내용으로는 방언 교육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고, 중학교에서는 교육 과정에서는 전혀 없으나 읽기 자료로서 일부 다루어지고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필수 과목인 ‘국어’에 표준어 관련 내용이 없고 ‘국어 생활’, ‘문법’, ‘화법’ 선택 과목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 4. 표준어 교육의 방향

이상으로 표준어 교육에 대해서 학생과 교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표준어 교육은 교육 과정과 교과서에서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표준어 교육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방언 교육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갈피가 잡혀 있지 않다. 또한 표준어 교육이 학교 교육에서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교육 과정과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음을 보았다. 초등학교에서 강조되는 경향이고 고등학교로 오면서 그 중요도가 약화되고 있는 측면이 엿보인다. 이러한 인식과 실태 하에서 표준어 교육은 과연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

기본적으로 표준어는 추상적인 인공어라는 의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최근 현실 언어를 복수 표준어로 인정하는 분위기 속에서 표준어도 당당히 여러 언어 표현들 가운데 하나로서 공식적이며 교양 있고 품위 있는 실재 언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곧 살아 있는 국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역시 살아 있는 표준어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표준어 아닌 소위 방언들과의 관계 정립에 대해서도 분명한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모든 언어는 살아 있다. 공식적인 말하기에서는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이 개별 방언을 사용하는 것보

다 효율성이 높다. 즉 때와 장소에 따라서 표준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개별 방언을 사용할 수도 있다. 시골 고향 친구를 만났을 때는 그 지역 방언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친밀감을 더욱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병원 진료 시에 특정 방언을 모르는 의사에게는 표준어로 말을 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표준어 교육이 주로 지역 방언과의 관련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앞으로는 인터넷 언어나 개인어 등과도 관련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청소년들의 욕설 등 비속어 사용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면서 교양 있고 품위 있는 언어 사용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언어 습관을 질타와 멸시의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해와 협조의 마음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개인은 항상 자신의 언어생활을 되돌아보고 돌봐야 할 것이다.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표현한다면 다른 사람의 처지를 고려하고 또 각각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분위기에 적절한 언어 표현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고 바람직한 언어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모든 언어는 가치가 있다. 언어를 통해서 나의 생각이 전달되고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표준어든 방언이든 집단어든 개인어든 칭찬의 말이든 욕하는 말이든 그 나름대로는 가치가 있다. 중요한 것은 부정적 가치가 아닌 긍정적 가치를 지닌 언어를 우리의 국어 생활 속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표준어 교육은 제도권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바람직한 국어 생활이 바른 표준어 교육에서 시작된다고 하면 지나친 말인가?

## 참고 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03), 《중학교 국어》 3-1, 한국교원대학교·고려대학교 국정  
도서편찬위원회.
- 교육과학기술부(2003), 《중학교 생활 국어》 3-1, 고려대학교·한국교원대학교  
국정도서편찬위원회.
- 교육과학기술부(2009), 《고등학교 선택 과목 교육 과정》.
- 교육과학기술부(2010), 《국어: 듣기·말하기·쓰기》 4-1, 한국교원대학교·서  
울교육대학교 국정도서국어편찬위원회.
- 교육과학기술부(2011), 《국어과 교육 과정》.
- 교육인적자원부(1997), 《국어과 교육 과정》.
- 교육인적자원부(2002), 《고등학교 문법》,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교육인적자원부(2007), 《국어과 교육 과정》.
- 김흥규 외(2003), 《고등학교 국어 생활》, 천재교육.
- 김광해 외(2003), 《고등학교 화법》, 형설출판사.



---

## 외국의 표준어 정책

한재영 · 한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 1. 들어가며

“표준어 규정은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 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내용인바, 이는 표준어의 개념을 정의하는 조항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법적 효과를 갖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의 자유나 권리를 금지·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는 2006년 5월 접수된 ‘표준어 규정 제1장 제1항 등 위헌 확인 헌법 소원 사건’에 대한 2008년 11월 13일의 헌법 재판소 결정 내용의 일부이다.

“표준어 규정은 표준어를 정의하고 있는바, 이러한 표준어 규정은 국가 체제의 유지와 의사소통의 원활을 위하여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 청구인들은 특히 서울에서 사용하는 말을 표준어로 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바, 국가의 공식적인 표준어를 정함에 있어 언어 사용의 인구수가 많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인 수도의 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다른 지역의 언어를 표준어로 하는 것에 비하여 달리 대안을 찾을 수 없는 결정”이라고 한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의견

요지를 수용한 헌법 재판소의 결정으로 표준어에 관한 더 이상의 논의는 불필요한 듯이 보인다.

하지만 우리의 국어 현실은 표준어에 관한 논의의 종결과는 아직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다고 하겠다. 우선 현행 표준어 규정이 표준어가 아닌 표준 어휘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은 표준어 규정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며, 세계화·국제화의 큰 흐름 속에서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국어 사용 환경 변화에 따른 표준어 정책에 대한 검토 수요가 생기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고, 그에 따른 반작용으로 개별 지역 방언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표준어와 표준어 정책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진행 중인 셈이다.

현행 표준어 정책이 1988년 1월 19일 문교부 고시 제88-2호로 고시되어 시행된 지도 어언 20여 년이 흘러 표준어 규정과 언어 현실 사이의 거리가 점차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현행 표준어 정책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게 된 이유가 된다.

여기서는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한 방편으로 일본, 중국, 미국, 프랑스, 스페인, 인도네시아 등 외국에서의 표준어 또는 공용어와 관련한 정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작업은 우리나라의 표준어 정책에 적합한 방안을 찾아 가는 기초적인 작업이라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표준어 정책에 적합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우리보다 먼저 세계화와 국제화를 겪었던 일본, 미국, 프랑스, 스페인 등의 나라와, 다양한 언어 사용 집단의 존재로 표준어 또는 공용어의 필요성을 경험한 중국과 인도네시아와 같은 나라들의 현황을 살피는 작업은 보다 합리적인 판단의 근거를 찾아 가기 위한 기초가 되리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들 국가들은 다문화 사회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로서, 표준어 또는 공용어 문제에 관한 현실적인 문제를 그 나라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극복하고 있는 나라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 관심을 가지기로 한 것이다.

이제 각국의 표준어 정책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를 통하여 우리의 표준어 정책과의 차이에도 관심을 가지기로 한다.

## 2. 각국의 표준어 정책 현황<sup>1)</sup>

### 2.1. 일본

일본의 표준어는 17세기에 정치의 중심지가 교토로부터 에도(江戸, 지금의 도쿄)로 옮겨지면서 언어의 중심지도 점점 교토, 오사카 등 관서 지방으로부터 에도로 바뀌기 시작했는데, 에도 시대 후기에는 에도의 상층 계급이 쓰는 말이 전국 어디서나 통용되는 공통어의 지위를 잡았다고 한다(사나다 2001: 70).

메이지(明治) 시대에 들어서 에도는 도쿄로 이름이 바뀌면서 명실 공히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는데, 근대화와 함께 언어의 통일이라는 문제가 떠올랐다. 언어의 통일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표기법의 통일과 문체의 통일, 그리고 언어적인 지역 차의 극복과 같은 세 가지 측면이 있었다. 특히 문체의 통일에 관해서는 문학자, 학자가 중심이 되어 벌여졌던 소위 ‘언문일치 운동(言文一致運動)’이 큰 역할을 했다. 많은 시행착오 끝에 새로운 구어체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표준어 성립에 큰 몫을 하게 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1900년에 ‘제국교육회’ 안에 결성된 ‘언문일치회’는 언문일치에 관한 청원서를 의회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정부가 1902년에 ‘국어조사위원회’를 만들게 되었으며 국정 교과서에 구어체를 채용하게 하는 데 성공했다.

---

1) 이 글의 주된 내용은 2011년에 국립국어원에 의해 진행된 사업인 ‘표준어 규범 영향 평가’의 결과 보고서의 내용 가운데 일부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1902년에 문부성 안에 국어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는데, 이 위원회가 세운 조사 방침 네 가지 가운데 하나가 ‘방언을 조사하여 표준어를 선정’한다는 것이었다.<sup>2)</sup> 그 후 ‘도쿄어[東京語]가 표준어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국어조사위원회가 1916년에 간행한 《口語法》으로, 예언(例言)에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主トシテ今日東京ニ於テ專ラ教育アル人々ノ間ニ行ハルル口語ヲ標準トシテ案定シ、其ノ他ノ地方ニ於ケル口語ノ法則トイヘドモ廣ク用セラルルモノハ、或程度マデ之を斟酌シタリ。

(주로 오늘날 동경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말해지는 구어를 표준으로 규정하여, 다른 지방에 있어서의 구어의 법칙도 널리 사용되는 것을 어느 정도 감안하였다.)

표준어라는 단어 자체는 1890년에 오카쿠라 유자부로(岡倉由三郎)가 처음으로 사용하였으며, 동경제국대학 교수인 우에다 가즈토시(上田萬年)가 1895년에 잡지 《제국문학》에 ‘표준어에 대하여’라는 논문에서 서양의 표준어 발달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일본어도 표준어가 발달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도쿄어가 표준어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하였다. 다만 그것은 동경 토박이말이 아닌 교육을 받은 동경인이 하는 말이며, 당장 표준어가 될 수 있다기보다는 앞으로 될 자격을 갖고 있으므로 더욱 다듬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표준어의 규정이 완성되었는데, 실제로 그것이 전국으로 보급되는 데는 1904년부터 사용된 최초의 국정 교과서 《심상소학독본(尋常小學讀本)》과 1925년에 시작된 라디오 방송의 영향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이후 1950년대까지 활발했던 표준어와 관련된 논의는 점차 사라지고, 표준어라는 용어 대신 ‘공통어’라는 용어의 사용이 많아지게 된다. 일본

2) 사나다(2001: 89)에 따르면, 이때 ‘표준어’라는 용어가 공문서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라고 한다.

에서의 표준어에 관한 논의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공통어’와의 용어 차이다. 특히 표준어라는 용어 기피 현상은 일부 언어학자 사이에서 현저히 나타나는데, 이 현상은 일본의 국가주의,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표준어의 개념에 대한 반작용으로 해석된다. 또 표준어로 인하여 소외받는 지역 방언을 소중히 해야 한다는 생각과도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표준어’ 대신 ‘공통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한 문헌은 국립국어연구소의 조사 보고서 《언어생활의 실태》(1951)로서 거기서는 ‘전국 공통어’의 약칭으로 ‘공통어’를 썼는데, 점점 이 용어가 표준어 대신 널리 쓰이게 되었다. 그러면서 메이지 시대 이후 1950년대 전반까지 남아 있던, 표준어를 정하려는 노력을 계승하려는 이가 없어지고, 도쿄어를 기반으로 성립되어 있던 언어를 공통어라고 불러 그것을 전국적으로 보급시키면 된다는 생각이 일반화되었다.

일본의 표준어는 언문일치 운동 같은 민간단체 및 개인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국어조사위원회 및 국어심의회가 발족되었으나 표준어를 새로 규정하거나 정의하려는 노력은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던 중 1952년부터 2년간 국어심의회 내에 설치된 표준어부회(標準語部會)가 작성한 《표준어를 위하여》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표준어는 전국에서 통용되는 공통어[東京語]에서 옳지 못한 발음이나 용어, 어법을 제거한 것으로서 어떤 것이 옳은지에 대한 기준은 언어는 사회적 습관이며 역사적 변화를 면하지 못하므로 결국 사회 양식의 최대 다수가 사용하고, 지장 없이 통용되고 있는 것이 옳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어부회의 이 보고서는 외부 발표 없이 실패로 끝이 났다.

국어심의회는 1934년 설립되어 2001년 폐지될 때까지 60여 년에 걸쳐 일본 언어 정책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중에서도 각각 일상생활에서 쓰는 한자를 제한하고, 가나 철자법을 표음식 철자법으로 바꾸도록 한 1946년의 결정은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2002년부터

는 국어심의회의 뒤를 이어 문화청 내에 설치된 ‘문화심의회 국어분과회(文化審議會 國語分科會)’가 국어 정책 결정을 맡고 있다.

## 2.2. 중국

현재 중국의 공용어는 보통화(普通話)<sup>3)</sup>이다. 한어(漢語)는 한족(漢族)의 언어로서 긴 세월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방언으로 나누어졌는데, 방언은 크게 한족의 북방 방언(北方方言), 오방언(吳方言), 상방언(湘方言), 공방언(贛方言), 객가 방언(客家方言), 민방언(閩方言), 오방언(奧方言)과 같이 7대 방언계로 분류할 수 있다. 각 방언의 차이는 국민 통합과 경제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하였고, 이런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언어를 제정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보통화이다. 따라서 방언의 차이를 극복하고 전국적으로 통용이 가능한 보통화의 교육이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서 중요시되는 실정이다.

중국의 표준어 작업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시작되었다. 1954년 12월에 국무원 직속으로 중국문자개혁위원회(中國文字改革委員會)가 설립되어 본격적인 한자 및 중국어 개혁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중국어 개혁 작업은 ‘한자의 간략화(簡化), 보통화의 보급, 한어 병음 방안(漢語拼音方案)의 제정 및 보급’ 등의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중국문자개혁위원회는 30여 년간 이 개혁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1985년 12월 16일에 국가어언문자공작위원회(國家語言文字工作委員會: 약칭 國家語委)로 기구 명칭을 바꾸었다. 국가어언문자공작위원회<sup>4)</sup>는 중

---

3) 1955년 중국과학원(中國科學院)은 현대 중국어 규범 문제를 주제로 한 학술회의에서 한민족(漢民族) 공용어를 보통화라 부르기로 하고 전국적으로 보급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회의 후 여러 분야의 논의를 거쳐 공용어의 3가지 기준 즉 ‘북경어음을 표준음으로 하고, 북방어를 기초 어휘로 하며, 전형적인 현대 백화(白話)로 쓰인 저작의 문법’을 기준으로 하게 되었다.

4) 국가어언문자공작위원회는 1998년에 교육부로 합병되었다.

국의 언어 문자 사업을 주관하는 정부 기관으로서 언어 문자 사업의 방침, 정책 초안 및 언어 문자 사업의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을 물론, 중국어와 소수 민족 언어 문자의 규범 및 기준을 제정·감독하며, 보통화 보급을 지도하는 역할을 하였다. '중화 인민 공화국 통용 언어 문자법'을 제정함으로써 언어 문자의 규범화, 표준화를 도모하고, 여러 민족과 지역의 경제, 문화적 교류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 법령의 내용을 토대로 중국의 언어 사용 현황 및 언어 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들은 국가 통용 언어 문자를 배우고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중국 정부는 국가 통용 언어 문자인 보통화와 규범 한자의 보급 의무를 진다. 단, 각 민족은 자기 고유의 언어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를 가지 되, 언어 문자 사용은 헌법, 민족 자치법에 따른다. 국가 기관, 교육 기관, 출판물, 언론 매체, 서비스업 등은 보통화와 규범 문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국가 통용 언어 문자의 맞춤법이나 발음은 한어 병음(漢語拼音) 방안을 토대로 하고 있다. 특히 1984년에 설립된 언어문자응용연구소는 언어 문자 관련 연구를 진행하며, 언어 문자의 정보화와 현대화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 지방의 언어 문자는 각 지방에 소속된 언어 문자 관련 기관들이 담당한다.

1950년대부터 중국은 대대적인 보통화 보급 방침<sup>5)</sup>을 정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중국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는 법규를 제정하여 보통화 보급에 끊임없이 힘쓰고 있다. 민족 자치 지역에 속해 있는 각 민족의 간부들은 서로의 언어와 문자를 배우되, 보통화와 규범 한자는 반드시 배워야 한다. 아울러 보통화 보급을 위한 평가 등급과 평가 방법도 마련되어 있는데 우선 표준어 평가 기준을 세 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을 갑, 을의 두 등급으로 하여 총 6개 등급으로 세분화하였다.

---

5) 1950년대부터 중국은 '大力提倡, 重點推行, 逐步普及(대대적으로 제창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점차 보급한다)'라는 보통화 보급 방침을 정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교사, 대학 졸업자, 발음 교육에 종사하는 방송, 신문사와 같은 언론 매체 종사자 등은 법령에서 규정하는 수준의 등급을 소지해야 한다.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넓은 지역의 많은 인구를 하나의 국가 사회로 묶어 내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 2.3. 미국

미국은 표준어가 공식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표준 영어의 개념이 암묵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나라이다. 1997년 《Political Handbook of the World》(p. 10)에 따르면 191개 나라 중 공식어가 없는 8개 나라(미국, 영국, 소말리아,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파키스탄, 코스타리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중 하나가 미국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미국 영어는 초기에는 여러 다른 언어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공식어로서의 위치를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민자들의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재는 영어의 공식어로서의 위상을 걱정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따라서 영어를 공식어로 선포하자는 움직임 또한 강해지고 있다. 미국 헌법은 공식어(official language)를 명백하게 적시하지 않지만, 미국 의회에서는 계속 이에 대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발의된 공용어 명시 법안들은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 모두 폐기되었으나 이런 움직임은 약해지지 않고 있으며 주 차원에서는 성공한 경우가 많다. 1812년 루이지애나(Louisiana) 주, 1920년 네브래스카(Nebraska) 주가 영어를 공식어로 지정하는 데 성공했으며, 1990년까지 28개의 공용어 지정 명령이 있었고 이 중 23개가 1980~1990년 사이에 만들어졌다.

미국 영어의 표준화는 정책 결정을 담당하는 공식 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므로, 영어 교육을 담당하는 주체와 기관들-교사, 미디어, 그 외 기관들-이 바로 표준화 담당자의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하겠다. 그 밖에 문법책, 영어 활용서, 사전 등의 권위가 인정된 출처에 의해서도 언어 규

범이 기술되고 있다. 따라서 표준 영어인지 아닌지 알고자 할 때 이런 권위 있는 안내서를 참고한다. 이렇게 권위 있는 문법서, 영어 활용서, 사전 등이 표준 영어의 규범으로 활용되는 미국에서 사전 편찬은 특히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사전 편찬에 있어서는 코퍼스를 기초로 하게 되는데, 코퍼스 장르, 코퍼스에 포함될 구어나 문어의 화자 및 필자의 교육 수준, 방언의 변이 문제 등이 코퍼스 수집 판단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

미국의 교육 과정은 주마다 다르게 설계되며 학교 교육은 이에 의거해 실시된다. 뉴욕과 캘리포니아의 표준 영어 교육 제시 방향을 예로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뉴욕 주 유치원 전 시기부터 12학년까지의 영어 과목에 대한 일반적 언어 학습 표준(Language Standards)에서는 각 학년에 해당되는 쓰기와 말하기 영역의 표준 영어 관례, 언어 지식, 어휘 습득과 활용을 자세히 제시하였다. 또 언어의 발전적 기술이라는 표를 통해 다양한 표준들이 학년별로 어떻게 요구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영어 과목을 위한 일반 핵심 내용 표준에서도 쓰기와 말하기 영역의 표준 영어 관례, 언어 지식, 어휘 습득과 활용이 뉴욕 주와 유사하게 제시되어 있다. 두 주의 영어 교육 과정에서 표준 영어 관례(慣例) 부분은 문법과 활용법, 대문자 사용, 문장 부호 사용과 철자에 걸쳐 표준 영어의 형태를 제시하면서 미국 표준 영어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고, 교사는 교육 과정에 따라 표준 영어를 교육함으로써 외국어, 방언, 사회 방언을 제외시킨다. 즉 교육 과정은 문법책, 영어 활용서, 사전과 함께 표준 영어 규범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 2.4. 프랑스

프랑스의 헌법 제2조에는 “공화국의 언어는 프랑스어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단일 공용어인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있다. 18세기 프랑스의 작가 앙투안 드 리바롤의 ‘프랑스어의 보편성에 대한 연설’에서 유

럽의 다른 국가보다 프랑스어가 우수함을 이야기하였고, 이러한 프랑스어에 대한 프랑스인의 자부심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17세기부터 영어가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각종 분야에 약 200개의 새로운 영어 낱말이 침투하고, 영어 혼용 상태가 되자, 프랑스 정부는 1965년 ‘프랑스어 순화 및 전파 위원회’를 설립하여 영어 추방 운동을 벌이는 등 프랑스어 보호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현재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어 사용을 감독하고, 유럽 연합과 프랑스어권 국제기구(La Francophonie)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서 프랑스어와 언어적 다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 학술원(Académie française)은 프랑스의 언어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기구로서, 프랑스어의 정서법과 표준어 제정 및 검토를 담당하고 있다. 학술원은 사전에 없는 단어라도 엄격한 규칙을 적용시켜 끊임없이 언어 용법을 기록하되, 저속어나 신어, 전문어를 제외한 공식적 프랑스 어휘만을 기술하려고 노력한다. 라디오나 텔레비전 등의 언론 매체를 비롯하여 재화나 용역, 공공 업무 등에서 프랑스어가 의무적으로 사용되며, 프랑스에서 주최하는 모든 행사나 학회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프랑스에는 국정 교과서 없이 교사의 판단에 따라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지만, 교육부가 마련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과서 집필에 대한 지침에 따라 교육이 수행되고 있으므로 프랑스어 교육이 자유롭다고 보기는 어렵다. 프랑스어 교육은 초등학교 때부터 기초를 다지고, 모국어를 완전히 익혀 용법에 맞게 쓸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으며, 프랑스어가 총 수업 시간의 약 34.6%를 차지한다. 학교는 ‘바른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것을 임무로 하며 ‘프랑스어의 수호 역시 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다.<sup>6)</sup>

---

6) 프랑스어를 보호하는 일에 대해 신뢰하는 기관을 묻는 질문에 학교가 59%, 프랑스 국민이 29%, 프랑스 학술원과 미디어가 각각 15%를 차지했다.

프랑스 언어 정책의 법적 규정은 과도한 국가 개입 주의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언어 문제 해결을 용이하게 하는 반면, 언어 사용자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퇴색시켜 수동적 존재로 만들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방언 및 소수 언어에 대한 관련 법규의 부재, 성인 이민자를 언어적으로 통합하는 일은 아직 과제로 남아 있는 셈이다. 프랑스의 언어 관련 법적 규정이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화 및 언어의 다양성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중 언어 주의'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2.5. 스페인

스페인어는 스페인뿐만 아니라 중남미 19개 국가의 공식어이다. 스페인어는 스페인 내에서도 다양한 지역적 방언이 존재하며, 더 나아가 중남미 국가들의 스페인어 역시 각 국가와 지역에 따라 발음과 어휘와 문법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스페인어 표준어를 특정 지역의 것으로 한정할 경우, 그 밖의 지방이나 여타 국가의 스페인어 화자들로부터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 탓인지 현재 스페인어 표준어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그렇다고 스페인어의 지역별, 국가별 다양성을 모두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스페인어의 단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스페인 한림원(Real Academia Española)을 중심으로 스페인어권 21개국의 스페인어 한림원 연합회(Asociación de Academias de la Lengua Española)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이들 한림원에서는 특정 지역의 스페인어를 표준어로 간주하지는 않으며, 스페인어권 전역에서 사용되는 스페인어를 모두 인정해 주고 있는 형편이다. 각국의 한림원에서 보고하는 새로운 어휘를 심사 위원회를 거쳐 사전에 등재시키는 것이 그 한 예가 될 수 있다. 그 결과, 스페인어 사전(Diccionario de la lengua española)은 2001년에 제22

판이 발간된 이후, 현재 제23판이 스페인 한림원 창시 300주년 기념을 위하여 출판을 준비 중에 있다. 또한 스페인 한림원에서는 각국의 한림원 연합회와 긴밀한 협력과 공동 작업을 통하여, 스페인어 문법(Gramática), 철자법(Ortografía)과 같은 간행물도 주기적으로 개정 출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페인어 신규 문법서(Nueva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는 2009년에 발간되었으며, 개정된 스페인어 철자법(Ortografía de la lengua española)도 2010년에 발간되어 전 스페인어권 교육 기관에서 이들을 스페인어 교육의 기본 지침서로 삼고 이를 교육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스페인 왕립 한림원과 스페인어권 각국의 한림원 연합회의 노력과 헌신 덕분에, 스페인어는 그 지역적, 국가별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여러 언어로 분열되지 않고 동일한 문법 체계 하에 언어의 통일성과 단일성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스페인과 스페인 언어권 국가는 스페인 왕립 한림원과 스페인어 한림원 연합회의 규정을 잘 따르고 있으며, 신규 사전, 신규 문법서, 신규 철자법 등과 같이 대중에게 적극 홍보해야 할 어문 관련 업적물이 나올 경우, 인터넷 누리집(<http://www.rae.es>)과 공교육 제도를 통해 적극 홍보하므로 일반인들은 새로운 어문 교육과 관련한 정책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다.

스페인어의 표준과 관련하여 의문이 생길 경우, 스페인 왕립 한림원의 누리집에 직접 접속하여 ‘Consultas lingüísticas’ 파트에서 구체적으로 질문할 수 있다. 또한 누리집 첫 화면에는 스페인어 사전 질문란(Consulte el Diccionario de la lengua española)이 있어 언제든지 궁금한 단어를 적어 넣으면 RAE(Real Academia Española, 스페인 왕립 한림원)의 최신 버전 사전에 의한 정의와 해당 어휘가 나오는 문장 등이 상세히 설명되어 나온다. 이러한 인터넷을 통한 표준 스페인어의 홍보는 스페인뿐만이 아니라 전 스페인어권 국가의 화자들에게 통합되고

단일화된 스페인어의 길로 안내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전체 스페인어권 국가들이 스페인 왕립 한림원을 중심으로 21개국의 스페인어 한림원 연합회가 일치단결하여 누리집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결과이기도 하다.

## 2.6. 인도네시아

네덜란드로부터의 독립 당시 인도네시아어 사용 인구가 자바어 인구에 비해 수적으로 열세하여 자바어를 국어로 추진하자는 운동도 있었지만,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한 언론, 출판, 미디어 활동 및 민족주의 운동을 통해 인도네시아어가 민족 언어로서 지위를 확립, 사용 인구도 점차 늘려갈 수 있었다.<sup>7)</sup> 그리하여 1926년 개최된 청년학회에서 국가 공용어인 ‘믈라유(Melayu)어’를 ‘인도네시아어’로 명명할 것을 발표하였고,<sup>8)</sup> 1928년 10월 27일 개최된 제2차 청년학회에서는 믈라유어가 공식 인도네시아어로 결정되었다. 그 후 1945년 인도네시아어는 인도네시아 공화국 헌법령 제35조에 의거 공식 언어로 확정되었다. 인도네시아어는 공식 언어로서 교육, 국가 차원의 의사소통, 공식 서류 작성 및 인문, 기술, 예술 및 대중 매체에서 활용 수단이 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어가 국가 공식어로 지정된 후에도 지방어의 세력은 쇠약해지지 않았는데, 자바 지방의 경우 학교 수업은 인도네시아어로 이루

---

7)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진 청년의 맹세는 대표적인 예가 된다.

- 우리 인도네시아 청년 남녀는 인도네시아라는 단 하나의 조국을 가짐을 확인한다.
- 우리 인도네시아 청년 남녀는 인도네시아 민족이라는 단 하나의 민족임을 확인한다.
- 우리 인도네시아 청년 남녀는 인도네시아어라는 통일 언어를 사용한다.

8) 네덜란드 식민지 이전 인도네시아어의 근원이 되었던 믈라유어가 이미 전역으로 확산되어 무역 및 상거래에서 사용되었는데, M. Tabrani에 의해 1926년 5월 2일이 ‘인도네시아어의 날’로 제정되었고, 공용어의 명칭으로 ‘믈라유어’가 아닌 ‘인도네시아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 주장되었다.

어지더라도 학생들 간에는 자바어로 이야기 하는 것이 그 예이다. 현재도 공통어 외에 자바어, 순다어, 마두라어, 미낭카바우어 등 수백여 개의 지방어가 병존하여 가정에서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전체의 6분의 1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철자법의 경우 독립 전에는 네덜란드에서 지정한 라틴 문자 철자법이 사용되었으나 1966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교육, 문화부의 기존 철자법에 대한 현대화 노력으로, 1972년 8월 17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도네시아어 철자법이 시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3. 한국의 표준어 정책과의 비교

#### 3.1. 한국과 일본

일본은 표준어 성립 및 언어 정책 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적 유사한 경우에 속한다.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의 중심지인 서울 중류층이 쓰는 말을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일본의 경우, 17세기에 정치의 중심지가 교토에서 에도로 옮겨지면서 언어의 중심지도 관서 지방에서 에도로 바뀌었고, 에도 시대 후기에는 에도의 상류층이 쓰는 말이 전국 통용의 공통어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메이지 시대에는 에도의 명칭이 도쿄로 바뀌고 동시에 도쿄가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가 되면서 도쿄어를 중심으로 언어가 통일되었다. 일본 국어조사위원회가 1916년 간행한 《口語法》 예언(例言)에 의하면 “오늘날 동경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말해지는 구어를 표준어를 규정하여(중략)”라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완성된 표준어 규정이 실제로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데는 1904년 최초의 국정 교과서와 1925년 시작된 라디오 방송의 영향이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일본의 표준어 규정과 보급은 민간이나 각

중 단체 및 개인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많다. 그나마 많았던 표준어에 관한 논의는 1950년대에 들어 표준어를 정하려는 노력을 계승하려는 이가 없어지고, 도쿄어를 기반으로 성립되어 있던 언어를 공통어라고 불러 그것을 전국적으로 보급시키면 된다는 생각이 일반화되었다.

### 3.2. 한국과 중국

대대적인 보통화 보급 방침을 정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 중국은,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 법규를 제정하여 보통화 보급에 끊임없이 힘쓰고 있다. 민족 자치 지역에 속해 있는 각 민족의 간부들의 경우 각 민족의 언어와 문자를 배우되, 보통화와 규범 한자는 반드시 배워야 한다. 아울러 보통화 보급을 위한 평가 등급과 평가 방법을 마련하여 교사라든가 대학 졸업생, 발음 교육에 종사하는 방송이나, 신문사와 같은 언론 매체 종사자 등은 법령에서 규정하는 수준의 등급을 소지해야 한다.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넓은 지역의 많은 인구를 하나의 국가 사회로 묶어 내기 위하여 강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표준어 정책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셈이다. 하지만 각 민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언어적인 결속을 위해서는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 3.3. 한국과 미국

미국의 공용어 논쟁은 미국 역사의 초창기보다 이민이 많아지고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섞여 살게 된 현재의 미국에서 더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 공용어가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공용어 결정에 대한 법안은 끊임없이 발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표준어 논쟁은 표준어와 지역 방언에 대한 논쟁이 그 주를 이루고 있고 어

회적인 측면보다는 발음의 문제가 더 유효적인 논쟁거리로 대두된다면 면에서 볼 때 미국의 표준어 논쟁은 우리의 경우와 유사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보여 준다. 미국의 암묵적 표준어는 미국 북서부 지역의 언어로 간주되지만 어휘 사용에 있어서 상이함이 문제가 되기보다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발음의 문제가 더 두드러지게 제시된다. 어휘 부분은 학자들의 기술에 기반한(description based)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방언 어휘들을 심의를 거쳐 표준어로 유입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가 표준어 규정을 기관이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면 미국은 언중의 동의(consensus)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이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미국도 교육 과정, 권위 있는 문법서, 영어 활용서, 사전 등이 암묵적 규범의 역할을 하면서 영어의 표준(standard)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은 표준어 개념 정의에 대한 논쟁에 있어서 지역 방언보다 사회 방언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즉 인종, 계층에 따라 달리 사용되는 방언을 은연중에 하위 언어로 낙인찍음으로써 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피하는 ‘부정적 방언 정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의 방언 인식은 우리의 상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미국의 표준어 작동 방식을 참조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미국에서의 공용어 논쟁, 방언과 표준 영어에 대한 인식 등은 우리 상황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3.4. 한국과 프랑스

프랑스는 프랑스어를 헌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데 이와 같은 언어 관련 법적 규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것이 과도한 국가 개입 주의를 불러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 개입 주의는 자국어의 보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자국어의 해외 보급 및 파급 효과를 위해서도 요구될 수

있다. 영어의 국내외적 영향력 확대로부터 자국어의 위상을 지켜 넘과 동시에 유럽 연합과 프랑스어권 국제기구를 통해 아직도 남아 있는 프랑스어의 국제적 영향력을 지속하고 확대하기 위한 프랑스의 언어 정책이 헌법을 비롯한 다양한 법으로 뒷받침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하지만 법적 규정의 제정 및 적용을 통한 국가의 개입은 언어 문제의 해결을 국가의 입장에서 편의적으로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언어 사용자인 국민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퇴색시키고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련 법 조항이 없을 경우 해결 방법도 고려해 봐야 할 문제이다. 실제로 프랑스 내에 있는 지역어 또는 소수 언어 활성화 기구 및 단체는 관련 법규가 없어 고충을 겪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프랑스의 언어적 상황은 우리나라가 맞이하는 다문화 사회의 상황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보겠다. 즉 성인 이민자들을 언어적으로 통합하는 일은 프랑스 당국이 직면한 도전 과제이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해외 영토에는 프랑스어 외에도 수많은 토착 소수 언어가 존재한다. 따라서 프랑스의 언어 관련 법적 규정이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프랑스어의 진흥으로만 특성화시키기보다는 문화 및 언어의 다양성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중 언어 주의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프랑스에서의 처리 결과는 계속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 3.5. 한국과 스페인

스페인어 어문 정책은 '다양성 속에서의 단일성 추구'라고 집약할 수 있다. 중남미와 미국이라는 아메리카 대륙을 포괄하는 스페인어 어휘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스페인어라는 언어의 골격이 되는 문법을 통일시키고 있다. 이렇게 스페인어라는 문법 골격은 하나로 유지되기 때문

에 스페인어권 화자들은 별 문제없이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별 그리고 국가별로 존재하는 발음의 차이, 어휘의 상이한 사용법 등이 있겠다. 그러나 한림원에서는 이들 모두를 인정하고 있으며 특정한 지역, 특정한 국가의 스페인어 사용법만을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매년 한림원에서는 회의를 통하여 중남미 국가에서 사용되는 어휘를 RAE 사전에 등재시켜 새로운 사전이 편찬될 때 이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스페인어의 다양성 속에서의 단일성을 추구하는 한림원의 정책은 표준어와 방언으로 이분화시켜 표준어 위주로 언어 정책을 펴고 있는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인 동시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는 점이라 할 수 있다.

#### 4. 나가며

문교부 고시 제88-2호로 1988년 1월 19일 공포되었고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온 우리의 '표준어 규정'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검토의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이는 시행된 이후의 시간 변화에 의한 국어의 변화와 국어의 사용 환경이 변한 데에 기인한다. 아울러 표준어에 대한 언중들의 의식 변화와 언어의 다양성에 대한 관심 증대 그리고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수요 계층의 다양화 등이 그간의 표준어 정책에 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대한 답을 찾아 가는 방안의 일환으로 우선 일본, 중국, 미국, 프랑스, 스페인, 인도네시아 등 외국에서의 표준어 또는 공용어와 관련한 정책을 살펴보았다. 우리보다 먼저 다문화 사회를 경험하였거나, 국가를 구성하는 민족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여러 언어가 혼재하고 있는 나라들의 언어 정책을 살펴본 작업은 우리나라의 표준어 정책에 적합한 방안을 찾아 가는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일본의 창코나베, 중국의 북경 오리 구이, 미국의 잠발라야, 프랑스의 에스카르고, 스페인의 파에야, 인도네시아의 나시고렝은 우리가 지금까지 둘러본 나라의 대표적인 음식들이다. 각각의 재료가 다르고 그에 따라 맛은 다르기는 하지만, 그들이 식사하는 이들을 염두에 두고 재료를 대하고, 요리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과정과 절차를 살펴보는 일은 우리의 음식 문화 발전에도 보탬이 되리라고 믿는다. 주어진 조건과 환경이 다르다는 점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살핀 결과는 보다 구체적인 답을 구하고자 하였던 우리의 기대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우리와 같은 형식의 표준어 정책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일본, 중국, 미국, 프랑스, 스페인, 인도네시아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우선 우리와 같은 방식의 표준어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국가는 찾아볼 수 없었다. 표준어 정책을 추구하던 일본조차도 공용어 정책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미국이나 스페인과 같은 경우에는 표준어에 관한 명시적인 태도를 표명하고 있지 않다. 각국의 표준어 또는 공용어에 관한 정책은 각기 형편에 맞추어 시행되고 있으며, 그의 교육과 보급 방식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작업이 공허한 것이 아니라 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각 국가에서 언어의 표준화를 위하여 택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으며, 당면한 과제를 풀어 가기 위한 답은 물론 표준어 정책을 대하는 태도까지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음을 일깨워 주고 있다. 우리의 표준어 정책과 각국의 정책 비교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각국의 표준어 정책이 우리의 그것과는 거리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지만, 각국의 언어 사용 환경과 배경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다문화 사회로 변하고 있는 우리도 지향하여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참고 문헌

- 국어학회 편(1993), 《세계의 언어 정책》, 태학사.
- 김인숙(2000), 《미국 영어(American English)》, 한국문화사.
- 김진수(2000), 프랑스어 사용 관련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 《한국 프랑스학 논집》 제31집.
- 김진수(2000), 프랑스의 언어 정책에 대하여, 《프랑스 어문 교육》 제9집.
- 김진수(2001), 프랑스어 사용 관련법, 《프랑스 어문 교육》 제11집.
- 김현권(2003), 프랑스의 모국어 보호 정책과 법제, 《새국어생활》 제13권 제2호.
- 노무라 도시오[野村敏夫](2006), 《國語政策の戦後史(국어 정책의 전후사)》, 東京: 大衆館書店.
- 문화청(文化廳)(2005), 《國語施策百年史》.
- 사나다 신지[眞田信治](2001), 《標準語の成立事情(표준어의 성립 사정)》, PHP文庫, PHP研究所.
- 송기형(1998), 인터넷을 통한 프랑스의 언어 정책 연구, 《한국 프랑스학 논집》 제25집.
- 송기형(1999), 프랑스의 언어 정책과 불어 사용법, 《한국 프랑스학 논집》 제27집.
- 송기형(2000), 프랑스의 언어 정책, 《역사 비평》 통권 52호.
- 송기형(2001), 불어 총괄식 연구, 《한국 프랑스학 논집》 제31집.
- 심을식(2002), 프랑스의 언어 정책, 《한국 프랑스학 논집》 제38집.
- 안동환(2002), 《코퍼스 영어학》, 한국문화사.
- 양오진(2003), 中國의 自國語 教育, 《語文研究》 제31권 제4호.
- 이우경(2000), 미국의 언어 정책과 영어, 《외국학 연구》 4.
- 장소원(1993), 프랑스의 언어 정책, 《세계의 언어 정책》, 태학사.
- 한선혜(2002), 자국어 능력 배양을 위한 프랑스의 노력, 《새국어생활》 제12권 제2호.
- 현성준(2003), 中國 初·中·高等學校 語文教育 教育內容에 대하여, 《漢文 教育研究》 제21호.
- 黃伯榮·廖序東(2011), 《現代漢語(增訂四版)》, 高等教育出版社.
- AIF(2004), *Le français dans le monde*, No 333, Paris: CLE International.
- Allieres, J.(1982), *La formation de la langue française*, Paris: PUF.

- Calvet, L-J.(1974), *Les politiques linguistiques*, Paris: PUF.
- Caubet, D. et al.(2002), *Codification des langues de France*, Paris: L'Harmattan.
- Chafe, W. L., W. John, De Bois & S. A. Thompson(1991), Towards a new corpus of spoken American English, in Aijmer, K. & Altenberg, B.(eds.), *Corpus Linguistics*, NY: Longman Inc.
- Dauzat, A.(1949), *Le génie de la langue française*, Paris: Librairie Guénégaud.
- DGLFLF(2001), *Rapport au Parlement*, Paris: 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 Fennell, B. A.(2001), *A History of English*, MA: Blackwell Publishing.
- Finegan, E.(2009), English, in Comrie, B.(eds.), *The World's Major Languages* (2nd edition), New York: Routledge.
- Giusti, A.(1997), *La langue française*, Paris: Flammarion
- Jacquois, G.(1994), Les politiques linguistiques de la France et le statut des langues en Belgique, Paris : RIE, N°3.
- Judge, A.(1994), La planification linguistique française, Paris : RIE, N°3.
- Kretzschmar, JR., W. A.(2004), Regional Dialects, in English in the U.S.A (eds.).
- Kridalaksana, Harimurti(2009), *Masa-Masa Awal Bahasa Indonesia*, Depok: Laboratorium Leksikologi dan Leksikografi, Universitas Indonesia.
- Kurath, H.(1949), *A Word Geography of the Eastern United States*,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Labov, W., Ash, S. & C. Boberg(2006), *The Atlas of North American English: Phonetics, Phonology and Sound Change*, Berlin: Walter de Gruyter GmbH & Co.
- Metcalf, A.(2000), *how we talk: American regional English today*, Boston, New York: Houghton Mifflin Company.
- Millward, C. M.(1996), *A Biography of the English Language*(2nd edition), Wadsworth, a division of Thompson Learning, Inc.
- Schildkraut, D. J.(2005), *Press 'one' for English*,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hmid, C. L.(2001), *The Politics and Cultural Pluralism in Comparative Perspective*, Oxford University Press.
- Walter, H.(1998), *Le français dans tous les sens*, Paris: Robert Laffont.
- Wiley, T. G.(2000), Continuity and Change in the Function of Language Ideologies in the United States, in Ricento, T.(Ed.), *Ideology, Politics and Language Politics*,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
- Wolfram, W. & N. Schilling-Estes(1998), *American English*, Blackwell Publishers.
- Wolfram, W.(2004), Social varieties of American English, in English in the U.S.A.(eds.), 58~75.

## 표준어 규범 영향 평가의 결과

장소원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1. 들어가기

‘표준어 규범 영향 평가’ 사업은 2011년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의 담당 사업 중 하나인 ‘다양한 어문 규범 관련 연구 및 영향 평가’의 일환으로, 현행 표준어 규범에 대한 국민(일반인, 전문가)의 평가를 받고, 이 규범을 외국의 관련 정책, 규정 운용 방식과 비교함으로써 표준어 규정의 형식, 운용 및 표준어 개별 항목의 타당성 등을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의 배경이 된 국어 기본법의 조항은 4대 어문 규범-한글 맞춤법(1988. 1. 19.), 표준어 규정 및 표준어 발음법(1988. 1. 19.), 외래어 표기법(1986. 1. 7.),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2000. 7. 7.)-을 대상으로 ‘어문 규범 영향 평가제’를 도입하고자 한 제12조이다.

현행 표준어 규범이 대부분 1980년대에 정비된 것으로, 그동안 달라진 언어 환경의 변화와 국민의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표준어 정책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타진할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먼저 ‘표준어 규범 영향 평가’ 사업의 개요를 정리한 후, 이어서 이 사업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소개하기로 한다.

## 2. ‘표준어 규범 영향 평가’ 사업의 개요

### 2.1. 사업 배경

#### 2.1.1. 표준어 개념의 도입

우리나라에 처음 표준어가 도입된 것은 1930년대로, 조선어 학회의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 이후 그 후속 작업으로 이루어진 1936년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이 최초의 표준어 규범이지만, 그에 담겨 있는 어휘는 9,500여 개에 불과하다. 이는 표준어 규범의 완성이 라기보다는 완성을 위한 예비 작업의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도 있으나, 이후 표준어에 관한 논의도 여기서 멀리 나아가지는 못하였다.

#### 2.1.2. 정부가 추진한 표준어 개정 작업

진정한 의미에서 국가적 차원의 표준어 정책은 정부에서 표준어 개정 작업에 착수한 1970년 4월 국어조사연구위원회를 구성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표준어 규정의 개정 작업을 위탁한 문교부에서는 국어조사연구위원회에 의뢰, 문제성이 있는 어휘 16,500여 개를 사정하였고, 그 결과를 1985년 학술원 산하의 국어연구소에 재검토, 보완하도록 하여, 1988년 1월 문교부 고시 제88-2호로 표준어 규정을 고시하였다. 하지만 표준어 규범에 담긴 내용이 어휘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표준어 전반을 담아내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 2.1.3. 표준어 규정의 검토 필요성 대두

이 사건 표준어 규정은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인바, 이는 표준어의 개념을 정의하는 조항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법적 효과를 갖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의 자유나 권리를 금지·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헌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2006헌마618 표준어 규정 제1장 제1항 등 위헌 확인  
(국어 기본법 제14조, 제18조)에 대한 【결정 요지】 [2009. 5. 28.]

이는 표준어 규정 제1장 제1항과 국어 기본법 제14조, 제18조 등이 지역어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성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에 초·중등 교육 과정에 지역어 보전,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의 교과를 편성하는 것에 관한 작위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공공 기관의 공문서를 표준어 규정에 맞추어 작성하도록 하는 구 국어 기본법의 규정들이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등을 판단해 달라는 시민 단체의 헌법 소원에 대해 헌법 재판소가 내린 판결 내용이다. 이는 더 이상 표준어 규정이 모든 국민에게 당연히 준수해야 할 규범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건으로, 이제는 표준어 규정을 심층적으로 검토할 시점에 이르렀음을 보여 준다.

## 2.2. 연구의 필요성

### 2.2.1. 표준어 규정의 적합성 논의의 필요성

《새국어생활》 2004년 봄 호(제14권 제1호)는 ‘표준어 정책, 비판적 접근과 대안 모색’이라는 주제의 특집호로 발간된 바 있다. 이는 표준어 규정이 제정, 고시된 후 어느덧 20여 년의 세월이 흘러 현행 규정의 적합성을 다시 논의할 시점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2006년 시민 단체의

표준어 규정 및 국어 기본법 조항에 대한 헌법 소원에서 비롯한 2009년 헌법 재판소의 판결 역시 표준어 규정의 적합성을 다시 논의할 시기가 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2.2.2. 표준어에 대한 국민의 인식 파악 필요성

최근 들어 급속한 속도로 모바일 환경이 확대되면서 효율성을 위주로 하는 언어 사용 실태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이는 일반인들의 ‘표준어’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바, ‘표준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파악하여 이를 표준어 규정의 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 2.2.3. 복수 표준어의 확대를 위한 절차 확립 필요성

위에서 지적한 현대의 언어 사용 환경은 외래어 또는 외국어를 사용함으로써 순화어와 구별되는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표준어와 지역 방언을 동일하게 사용하기도 하는 등 복수 표준어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에 표준어 규정은 이러한 언어 사용 양상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따라서 복수 표준어를 확대하기 위한 절차를 확립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 2.2.4. 언어 사용 환경의 고려 필요성

표준어 규정이 제정, 고시된 시점과 비교할 때 현재의 언어 사용 실태는 훨씬 복잡, 다양해졌고, 언어 사용자가 지향하는 ‘표준어’의 기준도 훨씬 더 유연해졌다. 이는 한 형태의 어휘를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발음하고 표기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외래어와 지역 방언, 은어, 신조어의 사용 확대로 이어지고 있어 이러한 사용 환경을 고려하고 이를 반영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 2.2.5. 《표준국어대사전》의 보완 필요성

1999년, 국립국어연구원은 국민 언어생활의 표준을 제공하고 남북한 언어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 《표준국어대사전》을 출간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은 모든 사전이 그러하듯이 지속적인 관리와 보완이 필요하다. 이는 《표준국어대사전》의 보완을 위한 실태 조사와 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의 제4장에서 행한 ‘개별 표준어 항목에 대한 실태 조사’의 결과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어휘 목록을 선정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2.3. 연구 목적 및 대상

현실에 적합한 표준어 정책을 찾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업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구체적인 과업을 목적으로 삼고 진행되었다.

### 2.3.1. 외국의 표준어 관련 정책 조사

일본, 중국, 미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인도네시아 등 외국에서의 표준어 또는 공용어와 관련한 정책과 제도 및 법과 시행령 등을 검토하였다. 그 조사 결과를 우리의 표준어 규정의 내용, 사용 실태와 비교, 검토함으로써 각각의 정책이 지니는 효과를 검증하고 표준어 규정의 개정 시점에서 기준과 방향의 설정에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행한 작업은 다음과 같다.

- ① 우리나라 표준어 정책의 어제와 오늘에 대한 정리
- ② 외국의 표준어(공용어) 관련 정책, 제도, 법률 현황 조사
- ③ 한국과 외국의 표준어 정책 비교
- ④ 북한의 문화어와 문화어 정책에 대한 조사
- ⑤ 우리나라 표준어 정책의 나아갈 길 모색

### 2.3.2. 현행 표준어 규범에 대한 국민의 의식 조사

이 조사는 일반인과 전문가가 표준어에 대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조사하여 표준어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사는 일반인 설문 조사와 전문가 심층 면담 조사, 그리고 전문가 설문으로 구성되었다.

#### ① 일반인 설문 조사

이 조사는 전 국민의 언어적 특성을 파악하기에 충분히 유효한 숫자인 3천 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면 대 면 조사를 실시하여 표준어 규정에 대한 인지도, 이해도, 수용도, 선호도를 파악하였다.

#### ② 전문가 심층 면담 조사

이 조사는 한국어 연구자, 언론인, 사전 편찬 관련자 등을 대표하는 40명을 대상으로 1:1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조사에서는 전문가가 표준어에 대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조사하여 표준어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 ③ 전문가 설문 조사

이 조사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일반인 대상 설문 결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실시한 설문으로 이를 통해 전체 경향, 지역별 경향, 직군별 경향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닌다.

### 2.3.3. 개별 표준어 항목에 대한 실태 조사

이 조사는 개별 표준어 항목에 대한 표준어와 비표준어의 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사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하였다.

- ① 21세기 세종 계획 말뭉치 속의 비표준어 자료 조사
- ② 국어 시험의 표준어 관련 문항 조사
- ③ 방송 언어 실태 분석에서 지적된 표준어 항목 조사

#### 2.3.4. 표준어 규범의 운영에 관한 개선 방안 도출

##### ① 표준어 정책의 방향 제시 및 규정 개선 방향의 도출

이후 우리나라의 표준어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향후 표준어 규정을 개정할 때 취해야 할 방법론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 ② 표준어 심의 기준 및 절차의 제시

표준어 사정의 기본 원칙을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세부 원칙과 단수 표준어와 복수 표준어 선정의 기준 등 표준어 선정의 기준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표준어 선정의 대상 및 선정 절차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였다.

### 3. ‘표준어 규범 영향 평가’ 사업의 결과

이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진행한 조사와 연구로부터 얻어진 결론을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한다. 먼저 3.1.에서는 본 연구에서 시행한 세부 주제별 결론을 요약·정리하고, 3.2.에서는 표준어 정책과 관련한 개선 방안으로 표준어 규정의 개선 방향과 표준어 심의와 관련한 기준 및 절차에 있어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 3.1. 주제별 결론

#### 3.1.1. 외국의 표준어 관련 정책 분야

우리나라 표준어 규정의 어제와 오늘을 정리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 표준어 규정이 담고 있는 표준어의 모습이 무엇이었던가에 대한 답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표준어 규정이 담고 있는 표준어의 모습은 발음과 문법과 어휘 등의 우리 국어 전반의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범위를 어휘에 국한하더라도 우리 어휘 전반적인 모습과는 여전히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각국의 표준어 정책의 현황을 검토한 결과는 구체적인 답을 구하고자 하였던 우리의 기대와는 거리가 있었다. 일본, 중국, 미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 인도네시아에서는 우리와 같은 형식의 표준어 정책을 가지고 있는 국가를 찾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표준어 정책을 추구하던 일본조차도 공용어 정책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미국, 스페인, 독일은 표준어에 관한 명시적인 태도를 표명하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각국의 표준어 또는 공용어에 관한 정책은 각기 형편에 맞추어 시행되고 있으며, 그의 교육과 보급 방식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외국의 표준어 정책은 우리의 그것과는 거리가 있었다. 각국의 언어 사용 환경과 배경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다문화 사회로 변하고 있는 우리도 지향하여야 할 방향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북한의 문화어와 문화어 정책에 대한 정리 작업은 늘어 가는 새터민에 대한 표준어 교육이라는 측면과 통일을 대비한 언어 정책을 염두에 둔 조처였다.

#### 3.1.2. 표준어 규범에 대한 국민의 의식 조사 중 일반인 설문 분야

‘표준어’와 ‘표준어 규정’의 차이에 대해 교육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는 일반인은 표준어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나, 표준어 규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표준어’와 ‘표준어

규정'의 차이에 대해 정확하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아울러 표준어 규정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상황에서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하고, 표준어를 알기 위해서는 사전을 참조해야 함을 인식시켜야 한다. 또 표준어 규정 속 정의 부분의 '서울말'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표준어의 기준이 '서울말'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교육,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일부 설문문의 학력 및 연령 차이에서 표준어 교육에 의한 효과가 보이므로, 표준어 교육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가와 비교할 때 일반인에게서 표준어 규정의 개정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나타나는 데서 일반인에게 '표준어 규정'이 그만큼 강력한 제약으로 느껴진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표준어 규정이 일상의 언어생활을 편리하게 할 목적으로 표준어를 결정하기 위한 원칙이지, 일반인들의 언어생활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전문가에 비해 일반인에게서는 복수 표준어 선호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인들에게 표준어가 '맞고 틀림'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복수 표준어의 확대 이유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향후 표준어 정책의 방향은 일반인이 표준어가 되기를 바라는 어휘와 현재의 표준어 사이에 차이가 발견되므로, 가능한 한 복수 표준어를 확대하여 표준어 규정과 표준어 제정이 일반인의 언어생활을 원활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 3.1.3. 표준어 규범에 대한 국민의 의식 조사 중 전문가 면담 분야

표준어 규정의 정비 작업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작업은 '표준어'와 '외래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각각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다. 또한 표준어 규정 제1항의 '교양'과 '두루 쓰는'에 대한 기준을 표준어 규정의 해설에서 일반인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로 설득력 있게 풀어 주어야 하며, 표준어 규정의 성격이 의사소통을 도와주기 위

한 것이지 규제하기 위함이 아님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표준어 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표준어에 대한 권위 부여’, ‘사전 편찬 기준 제공’, ‘표준어 선정의 원칙에 대한 일반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할 때 표준어 규정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현행 표준어 규정이 안고 있는 형식상의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할 수 있다. 먼저 “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은 “ㄱ을 표준어로 삼는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현재의 규정은 원칙이라고 하기보다는 예시를 보여 주려는 측면이 강한데 예시 단어 중에는 현대인에게 생소한 단어가 많으므로 사용 빈도가 높은 단어로 바꾸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규정이든 예외가 많으면 그 규정이 어렵게 느껴진다는 점에 유의해서 가능한 한 예외를 많이 만들지 않는 방향으로 규정이 수정되어야 한다.

또 현행 규정에서 보완 및 심의를 필요로 하는 표준어 규정 항목은 제7항, 제8항, 제11항이며, 심의를 필요로 하는 단어 목록은 별도로 제시하였다.

‘표준어’의 선정 절차와 관련해서는 말뭉치 및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한 후 ‘폭넓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를 토대로 심의를 진행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일반인 설문 결과와 전문가의 의견 청취 결과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매번 일반인 대상 설문을 진행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이때 실태 조사의 범위는 표준어 규정의 ‘서울’을 확대하여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리고 ‘폭넓은 전문가’는 각급 학교 교사와 국어학 및 외국어 전공 교수, 방송, 출판, 신문 계통 종사자 및 국어 운동 관련 인사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며, 좀 더 구체적으로는 국립국어원에서 표준어 1차 심의 인력으로 인력풀을 등록받은 후, 그 인력풀에서 100명을 표집하여 2년 정도 심의를 맡기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1차 심의 인력 대상의 설문 결과를 토대로 최종 심의 자료를 만들어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기타 사항으로 본 사업에서 면담을 진행한 국어 전문가의 대부분은 복수 표준어의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 3.1.4. 표준어 규범에 대한 국민의 의식 조사 중 전문가 설문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먼저 표준어 규정 총칙에 대한 질문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현행 표준어 규정 총칙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32.5%가 부정적 견해를 표했으며, 심층 면담 결과와 관련지을 때 ‘교양 있는’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언어 변화의 수용과 관련하여 이들은 발음 변화 및 방언형의 확산에 따라 표준어가 변할 수 있다는 점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특히 방언형의 확산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92.5%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따라서 전문가 집단은 방언을 수용하는 데 관대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복수 표준어의 확대에 있어서 전문가들은 복수 표준어의 확대를 지향하는데, 특히 뜻은 같으면서 발음에서는 차이를 보이는 단어가 모두 널리 쓰이면 이들을 복수 표준어로 삼는 것에 긍정적이었다. 특이한 점은 전문가들은 더 이상 쓰이지 않는 단어 대신 현재 널리 쓰이는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전반적으로 긍정적(72.5%)이나, 부정적인 견해(15%)가 일반인(7.3%)의 두 배에 이른다는 것이다.

‘표준어’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표준어는 필요하며, 공적인 상황에서 사용하여야 한다고 답했으며 표준어 규정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는데, 특히 교사들은 표준어 규정을 강력히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표준어 규정의 교육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주로 신문과 출판계 종사자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 이는 표준어 규정의 교육보다 표준어를 사용하는 이유를 가르치고, 표준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을 이용하는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표준어 규정의 개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89.7%가 표준어 규정을 정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답하였다. 이는 표준어 규정 개정의 이유로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서 언어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므로'를 든 것은 규정 자체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인 것이다.

### 3.1.5. 개별 표준어 항목에 대한 실태 조사 분야

#### ① 말뭉치에서의 표준어 사용 실태 분석

구어 말뭉치를 확대하고, 정제되기 이전의 문어 자료를 확보해 말뭉치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말뭉치는 매우 정제된 것이기 때문에 비표준어가 사용된 것이 매우 드물다. 따라서 이러한 말뭉치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비표준어의 사용 양상을 정확하게 분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태 조사는 말뭉치를 대상으로 하되 연역적인 방법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표준 어형 및 비표준 어형을 중심으로 이들의 사용 양상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의 작업은 기존의 말뭉치를 대상으로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모든 어형들의 빈도와 사용 비율을 추출하는 것이었는데, 이 방법은 동음이의어 및 동일한 활용형 때문에 정확한 분석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말뭉치를 대상으로 한 표준어 사용 양상 분석 결과를 볼 때 추후 개정 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거푸집 / 곤색 / 굵신거리다 / 나염 / 나으리 / 널부러지다 / 늘어볼다 / 땡초 / 막동이 / 사그라들다 / 사랑놀음 / 새길 / 속얇이 / 송글송글 / 알타리무 / 어줍잖다 / 여지껏 / 입마 / 정한수 / 지리하다 / 푸드득 / 향그럽다 / 후두둑 / 히히덕거리다

## ② 국어 시험의 표준어 관련 문항 분석

국어 시험에 출제된 어휘 항목들 가운데는 표준어 규정의 각 항목에 예로 제시되지 않았으나 전문가들이 표준어와 비표준어의 구분에 혼란이 있다고 판단하는 예들이 있었다. ‘갑절:곱절, 사흘날:사흘날, 치르다:치루다, 엔간하다:웬간하다’ 등이 그러한 예들이다. 이는 표준어 규정에 제시된 예들이 실제로 문제가 되는 표준어와 비표준어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표준어 규정 속의 예를 언어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표준어 규정의 적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방언과 표준어의 구분, 구어에 자주 쓰이는 예 가운데 표준어와 비표준어의 구분도 중시하고 있다. ‘시방, 육보다, 식겁하다’와 같이 방언으로 오인되는 표준어, ‘인제, 퍼뜩, 노상’과 같이 비표준어로 오인되는 구어 표준어의 경우 사전을 참조하지 않고는 어떤 것이 표준어인지 알기 어렵다. 일반인들이 이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국립국어원 누리집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국어 시험에서의 표준어 관련 문항에서는 ‘웃-’, ‘읽-’을 다루는 제12항 및 ‘수-’, ‘숫-’을 다루는 제7항과 관련된 항목이 자주 출제되는 것은 시험 출제의 용이성뿐 아니라 규정 자체의 복잡함에도 이유가 있다. 따라서 규정 자체를 좀 더 쉽고 명료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

## ③ 방승 언어 말뭉치에서의 표준어 사용 실태 분석

방승 언어 말뭉치에서 지적 빈도가 높은 비표준어 가운데에는 표준어 규정의 각 항목에서 예로 제시된 어휘 항목들이 거의 없다. 이는 표준어 규정의 예가 실제로 사용되는 언어와는 거리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으로, 표준어 규정의 예를 언어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방승 언어 말뭉치의 지적 사항에 포함된 표준어 관련 항목 가운데는 구어체의 특정한 발음 경향과 관련된 예가 많다. 그 이유

는 구어체 발음을 문어체 발음에 입각하여 지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어체로 발음된 어형을 모두 비표준어로 간주하지 않고 표준어로 인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현재 구어와 문어의 구분 없이 적용되는 표준어 개념과는 다른 ‘구어 표준어’ 개념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방송 언어 말뭉치의 지적 사항에 포함된 표준어 관련 항목 가운데는 어미와 조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간의 표준어 논의나 표준어 규정은 다분히 어휘 중심적이었으므로 이와 달리 조사나 어미의 표준어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 3.2. 표준어 정책과 관련한 개선 방안

### 3.2.1. 표준어 규정의 개선 방향

표준어 규범 영향 평가 사업에서는 표준어 규정의 개정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므로 표준어 규정의 개정을 전제로 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념과 관련한 개선 방안으로는 ‘표준어’와 ‘외래어’의 개념을 정립하고, ‘구어 표준어’ 개념을 도입하며 ‘표준어’와 ‘표준어 규정’의 차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과 아울러 ‘표준어’의 정의를 수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제안되었다.

다음으로 표준어 규정의 내용에 관한 개선 방안으로는 ‘총칙’의 내용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표준어 규정의 예를 언어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복수 표준어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제안되었다. 또 조사나 어미에 있어서의 표준 어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방언으로 오인되는 표준어, 비표준어로 오인되는 구어 표준어에 대해서는 별도의 홍보를 시행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표준어 규정을 정기적으로 개정해야 하는 이유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할 것을 제안하였다.

### 3.2.2. 표준어 심의와 관련한 기준 및 절차에 있어서의 개선 방안

표준어의 심의를 위한 준비 단계로는 표준어 사정을 위한 구어 말뭉치를 구축하는 일과 비표준어 사용 양상 분석을 위한 별도의 말뭉치 구축을 생각할 수 있다. 현재와 유사한 문어 말뭉치는 표준어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음을 고려하여 표준어 사정을 위한 별도의 구어 말뭉치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구체적인 ‘표준어’의 선정 절차를 단계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말뭉치 조사

말뭉치를 바탕으로 다양한 변종이 존재하는 어형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다. 여기서는 기존의 규정에서 다루었던 단어는 물론이며, ‘웬스레/웬시리, 수군거리다/수근거리다, 숙맥/쑥맥’ 등과 같이 많이 쓰임에도 불구하고 규정에서 다루지 않았다고 비판받았던 단어들을 비롯하여, 발음 변화로 인한 변이형들이나 어휘적 차원의 변이형들 그리고 새로 등장한 신어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도 행해야 한다.

#### ② 연구의 병행

표준어 사정이 별도로 필요한 단어의 유형 분류에 대한 연구나 신어의 표준어 등재 기준 연구 같은 이론적 바탕 연구를 먼저 수행하거나 실제 자료 정리와 병행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 ③ 언어 사용 실태 조사

실태 조사의 범위는 표준어 규정의 ‘서울’을 확대하여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며 실태 조사에서 고려하여야 할 어휘로는 자연스러운 언어 변화에 의해 1988년에 표준어로 규정하였던 형태가 고행(古形)이 된 것

과 1988년에 미처 사정의 대상이 되지 않아 표준어로서의 자격을 인정 받을 기회가 없었던 것, 방언, 신조어 등이 세력을 얻어 표준어로 편입 될 가능성이 있는 것과 현재 표준어로 선정되어 있지만 ‘교양 있는 현대 서울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신조어의 경우는 일시적인 사용 비율만으로 표준어로 선정할 수 없으므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꾸준히 사용되어야 표준어로 선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 ④ 폭넓은 전문가 의견의 청취

여기서 ‘폭넓은 전문가’는 각급 학교 교사와 국어학 및 외국어 전공 교수, 방송, 출판, 신문 계통 종사자 및 국어 운동 관련 인사로 구성한다. 일반인 설문 결과와 전문가의 의견 청취 결과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매번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전문가 인력풀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훨씬 경제적인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다. 심의 인력풀의 구성 및 심의 의뢰 과정은 국립국어원에서 표준어 1차 심의 인력풀로 인력풀을 구성한 후, 그 인력풀에서 100명을 표집하여 2년 정도씩 심의를 의뢰하고, 표준어로 선정되지 않았던 단어의 사용 비율이 1차 심의 결과 기준으로 정한 비율(예를 들어 60% 또는 70%) 이상이 되면 표준어 선정 대상으로 삼아 이를 표준어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 ⑤ 심의위원회와 공청회의 개최

표준어 심의위원회에서 표준어로 선정된 어휘는 전문가의 공청회 등을 거쳐 표준어로 결정한다.

#### ⑥ 새롭게 확정된 표준어의 관리 및 홍보

새롭게 표준어로 결정된 어휘는 국립국어원 누리집 등에 공시하고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하며 이들은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별도의 난을 만들거나 포털 사이트에 링크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한다.

#### 4. 마무리

‘표준어 규범 영향 평가’ 사업을 수행하면서 연구진들은 부분 개정이든 전면 개정이든 표준어 규정의 정비가 새로운 표준어를 양산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현행 규정에 대한 다양한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는 표준어 위주의 어문 생활을 비교적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준어 규정의 정비는 지금의 표준어 규정이 보다 명확한 원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

## 표준어 정책의 새로운 방향 - 복수 표준어 발표의 경과와 의의 -

최혜원 · 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

### 1. 들어가기

지난 8월 31일 그동안 비표준어로 간주되었던 ‘짜장면’이 표준어가 됐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네티즌 공간에서는 ‘짜장면을 짜장면이라 부를 수 있는’ 이날을 짜장면 해방의 날로 부르자는 제안까지 나왔다. 국민 언어생활의 혼란을 막고 언어생활에 편리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존재한 ‘표준어’는 그 일부가 국민에게 큰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존재해왔다. 이 글에서는 수년간 비판의 대상이 되어 온 표준어 정책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된 ‘복수 표준어 확대’의 의의와 복수 표준어를 발표하기까지의 경과, 그리고 앞으로 표준어 정책 방향에서 이를 이어 나가기 위한 방안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 2. 새로운 복수 표준어 발표의 의미

애초 표준어 규정 개정의 전반적인 취지를 보면 널리 쓰이는 말을

표준어로 삼고 둘 다 널리 쓰이면 복수 표준어로 삼는 기본 방향을 취하고 있다. ‘표준어 모음’도 폭넓게 복수 표준어를 인정하려는 태도는 동일하다. 이는 언어생활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어의 어휘를 풍부하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 취지는 표준어 규정이 개정된 1988년 당시 “현실에서 멀던 형태를 제거하고 새로 자리를 굳힌 형태들을 표준어에 입적시켜 좁으로써 그동안 현실과 법 사이에서 곤란을 겪던 국민들을 편하게 해 주는 데 큰 기여를 했다(이익섭 1988: 23).”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표준어 규정은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으로 언어생활의 걸림돌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 정보화 시대의 빠른 변화 속에서 사람들의 언어는 그만큼 변화무쌍하고, 표준어 규정은 이에 따른 변화를 따라갈 수 없는 것이다. 규정이라는 정해진 틀이 살아 있는 언어를 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규정이 존재하는 이러한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표준어 규정의 근본적인 한계는 표준어 규정 자체를 폐기하자는 다소 과격적인 주장으로까지 이어진다. 이 주장은 표준어 규정은 대규모의 언어 실태 조사와 다양한 사전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 다수의 선택을 받는 사전이나 문법서가 표준으로 인정받음으로써 그 역할은 끝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사전 편찬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고, 최근 들어 들려오는 종이 사전의 폐지 등 민간 사전 편찬 시장의 현실이 더욱 척박해져 가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주장은 아직 현실화하기에 거리가 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표준어 정책이 국민 언어생활 향상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립국어원이 풀어야 할 숙제이고, 그 첫 번째 시도가 39개의 복수 표준어 발표라고 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 이번 복수 표준어 발표는 현실과 언어 규범 사이의 괴리를 정리하고 어문 규범을 현실화할 것인가의 고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3. 복수 표준어 제시 경위

#### 3.1. 비현실적인 표준어 규정에 대한 대안으로서 복수 표준어 논의

개정된 표준어 규정의 내용과 관련된 논의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쟁점이 되어 온 것은 바로 표준어 규정이 현실 언어와 괴리되어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이는 표준어 규정이 개정되기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문제인데, 2000년대에 들어서 현행 표준어 규정의 비현실성을 비판하며 규범의 현실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규범의 현실화는 복수 표준어의 설정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는데 민현식(1999)에서는 구형과 신형이 대등한 분포로 같이 널리 쓰이거나 또는 한 사람의 발화자에게서 두 형태가 동의어로 잘 쓰이거나 이해 어휘로 수용되고 있다면 복수 표준어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고, 최경봉(2006: 352)에서는 단일 표준어 우선 원칙인 현 규범의 형태를 탈피한 복수 표준어를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 3.2. 《표준국어대사전》의 비표준어

1999년에 발간된 《표준국어대사전》은 일반 원칙만을 정하고 있는 어문 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을 큰 특징으로 하고 있다. 어문 규정이 정한 원칙을 구체적인 단어 하나하나에 적용해 이용자가 사전만으로도 표준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어문 규정을 실제 단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어문 규정의 확장 가능한 '예시' 단어로 봐야 할 것을 확정적인 '기준' 단어로 해석하고 기존 국어사전이 정했던 현실에서 많이 쓰이는 비표준어를 그대로 비표준어로 답습한 결과 현실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를 비표준어로 재생산하였다. 비표준어에 대한

사전의 기술 또한 ‘~의 잘못’으로 표현되어 표준어와 비표준어에 대한 이분법적인 태도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이로 인해 《표준국어대사전》은 일반에 공개된 이후 경직된 사전 기술에 대해 비판을 받아 왔고, 실제 현실 언어와의 괴리를 보이는 단어는 수많은 민원의 대상이 되었다. 표준어 규정에 대한 비판적인 논쟁이 진행되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회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2008년 개정판은 기존의 ‘~의 잘못’으로 기술되던 경직된 방식을 탈피하여 화살표(→)로 처리하는 등 비표준어에 대한 기술 방식을 달리하였다.<sup>1)</sup>

### 3.3. 표준어사정심의위원회

‘표준어사정심의위원회’는 국어 생활의 기준이 되는 ‘표준어’를 언어 현실에 맞게 상시적으로 심의하고 논의함으로써 국어 생활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하려는 목적으로 2003년도에 조직되었다. 총 7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200여 단어를 검토하였는데,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말을 복수 표준어로 폭넓게 받아들이는 것이 심의의 기본 방향이었다. ‘표준어사정심의위원회’에서는 표준어가 국어 생활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체계적인 어문 규범 보급의 체제를 마련하는 한편, 어문 규범에 언어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특히, 국어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방언과의 연계성을 강화한다는 세부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내용은 표준어 정책 방향의 전환에 대해 준비되지 않은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표준어라는 지위를 얻지 못하고 표준어 정책의 역사 한편에 남아 있게 된다.

---

1) 비표준어를 잘못된 것으로 보는 것에서 탈피한 태도는 국어원의 ‘가나다전화(현 국어생활종합상담실)’의 답변에도 반영되었다. 단순히 ‘표준어다, 비표준어다’가 아닌 규범이 정하고 있는 범위는 이러하지만 현실 언어의 가능성을 적극 인정하는 방향으로 기본 방침을 정하고 있다.

### 3.4. 《표준국어대사전》 보완을 위한 실태 조사

표준어 규정이 어휘 중 극히 일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마저도 현실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말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문제점은 《표준국어대사전》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일반에서 널리 쓰이는 어휘를 폭넓게 반영하지 못했다. 이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된 배경에는 언어 사용 실태에 대한 다양한 면모를 파악하는 노력이 없이 국어학자들이 정립한 표준어 규정에만 의지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 언어와 거리가 먼 말을 표준어로 정하거나 널리 쓰이는 말이 표준어에서 빠진 것은 이러한 조사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어 현실을 폭넓게 조사하여 널리 쓰이면서 국어를 풍요롭게 하는 말들을 찾아냄으로써 ‘표준어’가 권위 있고 엄격한 말이 아닌 편하고 풍요로운 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립국어원은 2009년 일반에서 널리 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비표준어로 처리된 어휘들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실제 사용 정도를 확인하여 사전 집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표준국어대사전》 보완을 위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의 비표준어 약 8,500항목, 2003년~2006년 표준어 사정심의위원회 논의 자료 약 150여 항목, 표준어 관련 실용서(《한국어가 있다》, 《우리말 바꾸기》, 《나만 모르는 우리말》, 《돌보기 줄보기》 등)를 대상으로 검토하여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비표준어, 사전 미등재어 3개(개기다, 손주, 알쌍하다) 항목 등 총 76개의 어휘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서울시 거주자 총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아래 표는 조사 결과 표준어와 대비하여 비표준어 사용률이 50%를 넘는 어휘를 모아 놓은 것이다.

번호	현행 표준어	대응 비표준어	표준어 사용률	비표준어 사용률	비슷하게 사용	둘 다 미사용
1	형허케	형하니	6.4	84.2	1.5	7.9
2	남우세스럽다	남사스럽다	7.2	88.4	1.4	3.0
3	허섭스레기	허쩍스레기	9.9	77.6	1.5	11.0
4	복시빠	복송아빠	11.0	85.4	3.1	0.6
5	맨송맨송	맹송맹송	11.1	83.9	1.7	3.3
6	만날	맨날	11.3	84.8	3.2	0.6
7	괴발개발	개발새발	11.5	78.6	2.0	8.0
8	야멸치다	야멸차다	11.6	76.7	2.2	9.5
9	목물	등물	12.7	69.6	2.6	15.1
10	거치적거리다	걸리적거리다	12.7	85.3	1.8	0.2
11	바둥바둥	바둥비둥	13.5	82.8	2.2	1.4
12	쌈싸래하다	쌈싸름하다	16.0	78.1	3.4	2.4
13	들이켜다	들이키다	16.6	76.0	5.6	1.7
14	끼적거리다	끄적거리다	17.9	74.7	3.6	3.8
15	두루몽술하다	두리몽실하다	18.3	76.9	4.0	0.8
16	세간	세간살이	19.0	68.3	5.5	7.2
17	새치름하다	새조름하다	20.4	71.0	2.2	6.4
18	자장면	짜장면	21.8	73.9	4.2	0.1
19	찌뿌듯하다	찌뿌둥하다	26.8	70.0	2.9	0.3
20	-기에	-길래	27.1	65.4	5.8	1.7
21	간절이다	간지럽하다	27.1	68.9	3.5	0.4
22	토담	흙담	27.4	55.2	8.1	9.2
23	연방	연신	27.5	58.8	7.5	6.2
24	밧자리	못자리	27.8	65.9	2.4	3.8
25	어수룩하다	어리숙하다	28.5	65.7	5.2	0.6
26	아웅다웅	아웅다웅	29.5	66.1	3.9	0.4
27	약수건	약보자기	29.8	54.7	3.2	12.3
28	아비	애비	29.8	53.2	11.0	6.1
29	꼬드기다	꼬시다	32.0	60.1	6.9	1.0
30	메우다	메꾸다	32.3	60.5	6.4	0.8
31	떨어뜨리다	떨구다	33.3	58.1	7.6	1.0
32	눈초리	눈꼬리	35.5	56.5	7.5	0.5
33	먹을거리	먹거리	35.6	54.4	9.5	0.5
34	치근거리다	추근거리다	38.4	53.8	6.8	1.0
35	오순도순	오손도손	40.5	53.6	5.5	0.4

### 3.5. 국어심의회(전문소위원회)

2010년 2월 소집된 국어심의회에서는 1988년 표준어 규정 개정과 1999년 《표준국어대사전》 발간 이후 국어 사용 양상의 변화와 다양화로 인해 표준어를 추가하고 표기 개선에 대한 그동안의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통용되고 있는 비표준어, 방언에 대한 표준어 자격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였다. 다소 파격적인 복수 표준어안은 1차 본 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하였는데 국어학, 사전학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소위원회에 이 문제를 맡겨 논란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였다. 전문소위원회는 3회에 걸쳐 그동안 일반인들의 언어 의식 속에 표준어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어휘 44개를 전년도 《표준국어대사전》 보완을 위한 실태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유형별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 널리 쓰이는 비표준어의 복수 표준어 자격 심의(30건)
  - 예) 횡하니(囹횡허케), 남사스럽다(囹남우세스럽다), 허접쓰레기(囹허섭쓰레기)
- 통용되는 방언 및 기존 표준어와 의미 차가 있는 비표준어의 표준어 자격 심의(10건)
  - 예) 싸가지(囹싸수), 나래(囹날개), 내음(囹냄새)
  - 예) 손주/囹손자, 트락/囹뜰, 맹송맹송/囹맨송맨송, 바둥바둥/囹바둥바둥, 떨어다/囹떨어뜨리다
- 해당 분야에서 표기 수정을 요청한 민원 사항 심의(3건)
  - 囹태전/택전, 囹폼세/폼새, 囹학꽂치/학공치
- ‘자장면’의 표기 심의
  - ※ 囹: 표준어, 囹: 현 올림말

검토 대상 가운데 속어(싸가지, 꼬시다)와 해당 지역에만 있는 고유한 단어(과메기) 등 몇몇 단어는 논의 과정에서 제외한 후 일반에서 많

이 쓰이는 단어들을 대거 복수 표준어로<sup>2)</sup>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전문소위원회의 안은 국어심의회에 다시 회부되어 39개의 복수 표준어를 인정하는 원안 그대로 통과되었다.

## 4. 복수 표준어 설명

이번에 표준어로 인정된 단어들은 사전에서는 비표준어로 처리되었지만 기존에 쓰이던 표준어보다 일반에 널리 알려진 단어들이다. 사전에 표준어로 처리된 ‘횡허케’나 ‘고운데’ 같은 말은 일상 언어에서 쓰임을 거의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일반에 낯선 말이다. 현실 언어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쓰임 빈도가 현격히 떨어지는 말을 표준어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새 표기를 인정하는 데서 올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표기는 쓰임이 거의 없더라도 그대로 두었다.

39개 항목은 ‘맨날/만날’과 같이 기존 표준어와 의미가 일치하는 경우, ‘오손도손/오순도순’과 같이 기존 표준어와 어감의 차이가 있는 경우, ‘짜장면’, ‘택견’, ‘폼새’와 같이 일반이나 그 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표기 등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

### 4.1. 현재 표준어와 같은 뜻으로 추가로 표준어로 인정한 것

#### 4.1.1. 맨날/만날<sup>3)</sup>

‘맨날’은 ‘매일’ 또는 ‘맨’에서 유추되어 어형이 변화한 것으로 여겨진

---

2) 여기서 ‘복수 표준어’라 함은 의미가 같은 동의어뿐만 아니라 어감이나 의미 차이가 있는 단어들도 포함한다.

3) 새로 표준어로 정한 말은 빗금 앞에 기존 표준어는 빗금 뒤의 순서로 배치하였다.

다. ‘만날’과 뜻이 같고 ‘맨날’의 사용률이 높아 복수 표준어로 처리하였다.

#### 4.1.2. 허접쓰레기/허섭스레기

‘허섭스레기’의 동의어를 논의하면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허접스레기’로 표기할 것인가, ‘허접쓰레기’로 표기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허접스럽다’와의 관련성을 강조하면 ‘스럽다’에서 ‘쓰레기’가 파생될 수 없으므로 ‘허접스레기’로 하는 것이 어법에 맞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어법에 정확히 맞춘 ‘허접쓰레기’를 ‘허섭스레기’의 동의어로 본다 면 이는 또 다시 언어 현실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보아 ‘쓰레기’가 붙은 합성어로 보는 언중의 의식을 반영한 ‘허접쓰레기’를 ‘허섭스레기’의 동의어로 결정하였다.

#### 4.1.3. 간지럽히다/간질이다, 못자리/뿔자리, 흙담/토담

‘간지럽다’에 사동 접미사가 붙은 ‘간지럽히다’, 어근 ‘간질’에 동사화 접미사 ‘-이다’가 붙은 ‘간질이다’는 조어법 자체가 다르므로 별개의 단어로 볼 수 있다. 굳이 둘 중에 하나만을 표준으로 정하기보다는 다른 형태의 조어를 인정하여 둘을 동의어로 보았다.

이번 심의에서는 ‘흙담/토담’ 등 어휘 구성(고유어 합성어와 한자어 포함 합성어)이 서로 다른 말들은 모두 개별 어휘로 처리하여 그 둘을 복수 표준어로 결정하였다. ‘뿔자리’ 또한 한자어 포함 합성어 ‘뿔자리’와 동의어로 처리하였다.

#### 4.1.4. 세간살이/세간

사전에서 이와 유사한 단어 구성인 ‘살림’과 ‘살림살이’의 일부 뜻이 동의어로 처리되어 있으므로 같은 방식의 어휘 형태인 ‘세간’과 ‘세간살이’ 또한 동의어로 결정하였다.

#### 4.1.5. 등물/목물

예전 여름 수돗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인 ‘등물’은 서울 주민의 언어 실태 조사에서 보듯이 ‘목물’보다 훨씬 더 많은 쓰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어휘의 조어법 자체가 다르므로 굳이 둘 중 어느 하나만을 표준어로 고집할 필요는 없다.

#### 4.1.6. 복숭아뼈/복사뼈

‘복숭아뼈’는 ‘복사뼈’의 잘못이나 방언으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복숭아’와 ‘복사’는 본말, 준말의 관계에 있는 말이라는 것, 그리고 단독형으로는 ‘복사’보다 ‘복숭아’가 현대인에게 친숙한 말이라는 사실로 볼 때 ‘복숭아뼈’는 ‘복사뼈’의 비표준어가 아닌 동의어로 다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 4.1.7. 씹싸름하다/씹싸래하다

‘씹싸름하다’는 ‘조금 쓴 맛이 있는 듯하다’라는 뜻의 표준어 ‘씹싸래하다’와 그 의미와 쓰임이 비슷한 말로, 북한 사전에 올라 있는 말이었다. 최근에는 ‘달콤씹싸름하다’는 표현이 빈번히 쓰이면서 일반에 더욱 널리 쓰이고 있다. 또한 ‘씹싸름하다’와 음상이 차이 나는 ‘씹쓰름하다’가 ‘씹쓰래하다’와 함께 복수 표준어로 다루어지고 있는 현상을 고려할 때 ‘씹싸름하다’는 ‘씹싸래하다’의 복수 표준어로 다루어질 수 있다.

#### 4.1.8. 남사스럽다/남우세스럽다

‘남사스럽다’는 그 유래가 지역어<sup>4)</sup>에서 나온 말로 보인다. 그러나 ‘명

---

4) 무식하고 흉물 같은 계집이 내 여편네라니 참 내, {남사스러바서}.<박경리, 토지>  
개가죽을 썼는지 도리어 우리가 {남사스러바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박경리, 토지>

게, '물방개', '애순'과 같이 방언이 전국적으로 널리 사용될 경우에는 표준어로 삼을 수 있는 표준어 규정과 퀘를 같이하여 '남우세스럽다'의 동의어로 처리하였다.

#### 4.1.9. 토란대/고운대

'토란의 줄기'를 가리키는 '토란대'는 일상에서 흔히 쓰이는 말이다. 오히려 표준어로 되어 있는 '고운대'는 준말인 '곤대'와 더불어 이 말을 쓰는 사람을 거의 볼 수 없다. 인지도가 매우 떨어지는 '고운대' 외에 어법 상으로도 문제가 없는 '토란대'는 복수 표준어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

## 4.2. 현재 표준어와 의미가 다른 별도의 표준어로 추가로 인정한 것

### 4.2.1. 오손도손/오순도순, 아웅다웅/아웅다웅, 맹송맹송/맹송맹송, 바둥바둥/바동바동

'아웅다웅', '오손도순' 등 상징어는 음상이 달라지면서 뉘앙스도 달라지는 말로 앞서 소개한 동의어로 다루는 복수 표준어와 달리 다른 의미를 가진 별도의 어휘로 다루고 있다. 풍부한 음성 상징어를 특징으로 하는 우리말에서 표준과 비표준으로 가르는 것은 우리말의 다양성을 제한하는 일이다. 더구나 이번에 발표한 의성 의태어는 대부분 표준어에 대응되는 비표준어의 빈도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뉘앙스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옳다.

### 4.2.2. 걸리적거리다/거치적거리다, 끄적거리다/끼적거리다, 새초롬하다/새치름하다, 야멸차다/야멸치다, 두루뭉실하다/두루뭉술하다, 찌뿌둥하다/찌뿌듯하다, 추근거리다/치근거리다

크지 않은 자음과 모음의 교체에 따라 어감이 달라지는 것으로, 앞의 의성 의태어와 마찬가지로 어감의 차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하였다.

이 부류 역시 비표준어가 표준어형보다 훨씬 더 많이 쓰이는데, 예를 들어 태도가 인정사정없이 매섭고 차다는 뜻으로 쓰이는 규범어 ‘야멸차다’는 현실 언어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sup>5)</sup>

#### 4.2.3. 연신/연방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행위를 수식할 때 쓰이는 ‘연방’ 또한 ‘연신’과는 다른 어감으로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 4.2.4. 어리숙하다/어수룩하다

‘어수룩하다’가 세상 물정에 어두운 순박함의 느낌이 있는 데 비해 ‘어리숙하다’는 ‘어리석다’와의 연관성을 인정하여 겉모습이나 언행이 아둔하거나 어리석음의 뜻을 두었다.

#### 4.2.5. -갈래/기에

‘-갈래’를 그동안 ‘-기에’의 비표준어라는 틀을 탈피하여 구어적 표현으로 처리하였다.

#### 4.2.6. 나래/날개, 내음/냄새, 트락/뜰

‘나래’, ‘내음’, ‘트락’은 ‘날개’, ‘냄새’, ‘뜰’을 대신하여 문학적 표현에서 흔히 쓰인 단어들이다. 방언이나 북한어로 처리되던 종전의 처리 방식을 탈피하여 풍부한 표현 양식을 폭넓게 인정하였다.

#### 4.2.7. 개발새발/괴발개발

‘고양이 발(괴발)’과 ‘개의 발’이 합쳐진 말인 ‘괴발개발’은 ‘괴’의 뜻을 잘 몰라 어형이 변한 것으로 보인다. 어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으나 ‘개발새발’이 전국적으로 많이 쓰이고 ‘괴발개발’과 구성 요소가 다

---

5) ‘매몰차다’의 ‘-차다’에 이끌려 ‘야멸차다’를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르므로 별도의 어휘로 처리하였다.

#### 4.2.8. 눈꼬리/눈초리

현행 규범은 ‘눈초리’만을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으나, 두 말은 의미가 다른 말로 분화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눈초리’는 대상을 바라볼 때 눈에 나타나는 날카롭거나 사나운 표정을 가리키고, ‘눈꼬리’는 귀 쪽으로 가늘게 좁혀진 눈의 가장자리를 가리킨다.

#### 4.2.9. 떨구다/떨어뜨리다

특히 ‘시선을 떨구다’, ‘고개를 떨구다’, ‘눈물을 떨구다’의 문맥에서 많이 쓰이는 ‘떨구다’는 ‘떨어뜨리다’와 대부분의 의미를 공유하지만 ‘신발을 떨어뜨리다/떨구다’처럼 일부 의미는 쓰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 4.2.10. 메꾸다/메우다

‘메꾸다’는 흔히 시간이나 돈과 함께 쓰이는 추상적인 의미를 중심 의미로 볼 수 있다. ‘메우다’도 그러한 문맥에서 쓰이지만 ‘메꾸다’와는 의미 중심이 사뭇 다르다고 볼 수 있다.

#### 4.2.11. 먹거리/먹을거리

비교적 새로 출현한 ‘먹거리’는 그동안 전통적인 단어 형성법에 어긋난다는 평가를 받아 표준어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묵밭’, ‘접칼’과 같은 단어들이 있음을 볼 때 ‘먹거리’는 국어의 정상적인 단어 형성법으로 만들어진 단어로 볼 수 있다. 다만 ‘전통 먹거리’, ‘먹거리 장터’, ‘먹거리 문화’처럼 ‘먹을거리’와는 다른 의미 사용이 있으므로 이러한 의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 4.2.12. 손주/손자

‘손자’의 잘못으로 처리되었던 ‘손주’는 현실 언어에서 ‘손자’와 ‘손녀’의 통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였다. ‘손주’의 ‘주’에 대응될 한자가 분명치 않아, ‘주’에는 한자 정보를 따로 주지 않았다.

#### 4.2.13. 횡하니/횡허케

전문소위원회에서 옛말로 처리해야 하는지까지 논의되었을 정도로 ‘횡허케’는 현실 언어에서는 거의 들을 수 없는 말이다. 우리말에서는 흔치 않은 음절인 ‘횡’은 국어사전 전통의 흔적으로 거의 사어화되었지만 언중이 사용하지 않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므로 이번 결정에서 굳이 비표준어로 지정하지 않았다.

### 4.3. 표준 표기를 새로 추가한 것

#### 4.3.1. 짜장면/자장면

이번에 표준어로 인정된 단어 중 가장 주목을 받은 ‘자장면’은 어문정책의 경직성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예로 일반 대중의 논란을 가장 많이 불러일으킨 말이었다. 그동안 중국에서 온 외래어<sup>6)</sup>로 다루어져 현행 중국어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자장면’으로 표기되어 왔고, 이미 1965년대 한글학회에서 펴낸 《새한글사전》<sup>7)</sup>에 ‘자장면’으로 올라가 있는 등 나름대로 오랜 표기 전통을 지켜 왔다. 그러나 ‘자장면’의 ‘자장’이 중국어에서 유래한 외래어라는 어원 의식이 희박해졌고 대다수의 한국어 화자가 이를 ‘짜장’으로 소리 내는 언어 현실에 따라 ‘자장면’과 ‘짜장면’을 둘 다 인정하게 된 것이다.

---

6) ‘자장면’은 ‘자장(Zhajiāng, 炸醬)’과 ‘면(麵)’이 합성된 말로 지금까지 중국어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자장면’으로 적고 있었다.

7) 국어사전의 자장면(Zhajiāngmian, 炸醬麵) 표기 사례

#### 4.3.2. 택견/태견, 품새/품세

‘대한택견협회’와 ‘대한태권도협회’에서 해당 전문 분야에서 쓰이는 용어인 ‘택견’<sup>8)</sup>, ‘품새’로 교체해 달라는 요구와 관련된 내용이다. ‘택견’의 경우 이만영(1798)의 《재물보》 등 문헌 자료에서 표기가 나타나는 등 비교적 출현 시기가 이르고, 반면 그 역사가 짧은 ‘품새’는 국기원 기술심의회(1987)에서 용어를 통일하면서 정립된 표기이다. 해당 전문인들이 예외 없이 표기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두 표기를 표준으로 인정하였다.

### 5. 사전에서의 복수 표준어 반영

이번 복수 표준어 발표는 표기법을 현실화하기 위해 어문 규정의 개정을 통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이룬 표기형을 사전에 올리는 방법을 십분 활용하였다. 국어심의회에서 결정된 39개 단어는 국어원 누리집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반영되어 일반에 즉시 공개되었다.<sup>9)</sup> 새롭게 바뀐 내용을 알리기 위해 수년에 걸쳐 꾸준히 홍보하고 교육해야 하던 이전 방식에서 탈피한 이러한 즉각적인 반영은 인터넷 시대에 달라진 환경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구분	간행 시기	등재 내용
한글학회 《큰사전》	1957년	관련 어휘 미등재
한글학회 《세한글사전》	1965년	자장면: 중국 음식의 한 가지. 국수를 중국 된장에 비벼 만들.
금성출판사 《국어대사전》	1997년	자장면: 고기와 채소를 넣어 볶은 중국 된장에 비빈 국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1999년	자장면: 중화요리의 하나. 고기와 채소를 넣어 볶은 중국 된장에 국수를 비벼 먹는다.

8) 어원이 분명하지 않으면 보통 발음을 기준으로 표기를 정해 왔음을 고려하면 ‘택견’이 아닌 ‘태견’이 한글 맞춤법에 맞는 표기이다.

9) 《표준국어대사전》을 서비스하고 있는 네이버, 네이버 등에서도 수정된 내용이 반영되었다.

어문 규정을 실제 단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어문 규정의 ‘예시’를 확장 가능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을 확정적인 ‘기준’ 단어로 해석하여 정한 국어사전은 현실 언어와의 괴리를 야기하였고 그 결과 표준어의 경직성을 공고히 하였다. 국어심의회에서 정한 39항목의 복수 표준어만을 확정 사항으로 한정할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는데 이번 《표준국어대사전》에 반영하는 과정에서는 39개 단어를 좀 더 확장하여 적용하였다. 또한 복수 표준어 관계인 두 단어의 의미만을 놓고 보았을 때에는 나타나지 않던 문제가 새로 부각될 때에도 기본적인 결정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전의 틀에 맞추어 수정하였다.<sup>10)</sup>

## 6. 앞으로의 방향

일반 대중에게 열렬한 환영을 받은 ‘짜장면’의 표준어 결정 앞에는 수많은 과제가 놓여 있다. 여전히 표준어로 인정받지 못한 ‘임마, 여지껏, 향그럽다, 널부러지다’ 등 언중이 선호하는 말과 ‘수놈’, ‘수소’와 같이 표준어 규정 안에 있는 비현실적인 단어들은 앞으로의 표준어 정책 방향에 대한 해답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어문 규정이 존재하고 있는 한 어문 규범의 현실화는 쉽지 않다. 현재로서는 규정의 현실화가 어문 규정의 개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립국어원은 당분간 규정 개정의 논의에서 벗어나 우리말의 다양성을 살리고 국어 생활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 표준어 확대 작업에 속도를 내려고 한다.<sup>11)</sup> 어문 규정 자체를 고

10) ‘짜장면’은 ‘간짜장’, ‘쟁반짜장’, ‘아웅다웅’은 준말인 ‘아웅당’의 뜻풀이에도 표준어 정보가 반영된다.

11) ‘표준어 규범 영향 평가’(2011)에서는 복수 표준어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며 광범위한 언어 실태 조사와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치려면 절차상 대응 속도가 떨어진다. 그 대신 《표준국어대사전》이 언어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함으로써 현실과 규범이 조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를 위해 표준어 선정과 직결되는 표제어의 경우 언어 사용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보를 선정하고 국어심의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 사항을 사전에 신속하게 반영할 예정이다.

1930년대의 표준어 사정 작업은 전근대적인 시대 상황과 혼란스러운 언어 상황에 비추어 불가피한 면이 있었지만 지금은 시민 사회에 접어들었고 수준 높은 언어 통일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개별적인 어휘 사정이 현재 단계에서 과연 필요한 작업인지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표준어의 확대는 개별 어휘 사정이라는 제한된 범위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확대 과정을 거친다면 표준어가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소통 불능의 괴물이라는 인식을 깨고, 표준어 정책을 통해 언어 현실과의 괴리를 줄일 수 있다는 일반인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규제 차원의 표준어 정책이 아닌 좀 더 유연하고 자율적인 새로운 표준어 정책 전환의 기반이 다져지리라 기대해 본다.

## 참고 문헌

- 국어연구소(1988), 《표준어 규정 해설》, 국어연구소.
- 김선철(2004), 표준 발음법과 언어 현실, 《새국어생활》 14-1, 국립국어연구원.
- 김주필(1990), '표준어 모음'의 심의 경위와 해설, 《국어생활》 22, 국어연구소.
- 김주필(2004), 표준어 사정 기준과 표준어의 성격, 《새국어생활》 14-1, 국립국어연구원.
- 김세중(2004), 표준어 정책에 대하여, 《새국어생활》 14-1, 국립국어연구원.
- 김희진(1990), 표준어 규정 고시 이후의 몇 문제, 《국어생활》 20, 국어연구소.
- 남경완(2010), 표준어 규정과 표준어 정책에 대하여, 《한국학연구》 33,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 민현식(1999), 표준어와 언어 정책론(1), 《선청어문》 27호, 서울대 국어교육과.
- 민현식(2004), '새로운 표준어 정책의 모색'에 대한 토론회, 《새국어생활》 14-1, 국립국어연구원.
- 안상순(2004), 표준어 어떻게 할 것인가, 《새국어생활》 14-1, 국립국어연구원.
- 이익섭(1988), 국어 표준어의 형성과 변천, 《국어생활》 13, 국어연구소.
- 조태린(2007), 표준어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한말연구》 20, 한말연구학회.
- 최경봉(2006), 표준어 정책과 교육의 현재적 의미, 《한국어학》 31, 한국어학회.

---

## 우리말과 표준어 사이

김태희 · 사계절출판사 편집장

---

책 만드는 사람은, 그것도 어린이 책을 만드는 사람은 맞춤법이나 표준어 규정에 늘 예민하다. 어린이 책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국어 교과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국가가 정하는 어문 규정을 잘 따라야 한다. 2011년 8월 31일 국립국어원에서 발표한 새 표준어 관련 규정은 일단 반가운 소식으로 다가온다.

그동안 수많은 어린이 책에서 '짜장면'은 단골 소재로 쓰여 왔다. 책 제목으로 쓰이는 경우도 많다. 《짜장면 불어요》, 《짜장, 짬뽕, 탕수육》, 《짜장면 더 주세요》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때 편집자의 고민은 클 수밖에 없다. 그냥 본문에 한 번 쓰여 나오고 마는 경우라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자장면'으로 가거나 아니면 부자연스럽다는 예외를 적용해 '짜장면'으로 갈 수 있다. 하지만 그 책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제목일 경우에는 문제가 살짝 심각해진다. 표지에 큼지막하게 들어가는 '짜장면'이라는 글자는 우리 모두에게는 자연스러우나 편집자에게는 표준어 규정을 어겼다는 찝찝함이 늘 따라다니기 마련이다. 사계절출판사에서 나온 '일과 사람 시리즈' 첫째 권 《짜장면 더 주세요》(2010년 4월 출간)의 경우엔 편집부에서 자장면으로 갈 것인지 짜장면으로 갈 것인지를 두고 격론을 벌이기도 했다. 중국집 요리사들이 모두 '짜장면'이라 발음하고 메뉴판에도 다 '짜장면'으로 나와 있는데 현실에

어긋나게 ‘자장면’으로 하느냐, 그래도 어린이 책인데 어문 규정에 어긋나면 안 되지 않겠냐, 우리는 나이가 들어 짜장면이 익숙해서 그렇지 지금 아이들은 자장면으로 써야 한다고 배우지 않느냐, 이러다 아이들이 짜장면과 자장면을 헷갈려 하면 어쩌하나 등등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결국 ‘짜장면’으로 정하고 일러두기에서 ‘짜장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짜장, 짬뽕, 탕수육》은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었는데, 제목과 본문에서 ‘짜장’이 ‘자장’으로 바뀌어 들어갔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표준어는 ‘한 나라에서 공용어로 쓰는 규범으로서의 언어’를 말한다. 또 ‘의사소통의 불편을 덜기 위하여 전 국민이 공통적으로 쓸 공용어의 자격을 부여받은 말’이기도 하다. 그런데 2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리는 전 국민이 공통적으로 ‘짜장면’이라 발음하면서도 ‘자장면’으로 써야 하는, 그야말로 의사소통의 불편함을 오랜 시간 견디며 살아야 했다. 단지 ‘짜장면’뿐만이 아니다. ‘맨날’을 ‘만날’이라고 고치고 나면 그 문장 전체가 어찌나 어색해지는지. 한 때 대중의 사랑을 받은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 제목을 ‘사랑이 뭐기에’로 고쳐 읽어 보면 그 맛이 살지 않는다. ‘눈꼬리가 올라갔다.’는 문장을 ‘눈초리로’ 바꾸어 놓으면 갑자기 전체 맥락이 낯설게 느껴지기까지 한다. 편집자로서는 이제 오랫동안 범법자의 심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다양하게 이 말들을 쓸 수가 있게 되어 기쁘다. 하지만 이번 복수 표준어 발표가 1988년 표준어 규정 고시 이후 처음이었는데, 그 기간이 너무 길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표준어가 ‘표준어’로 완전히 자리 잡지 못했다는 것은 ‘표준어’가 아니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앞으로는 좀 더 자주, 기간을 정해 실제 언어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좋은 우리말들을 조사·발표하고, 표준어로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던 흥길동처럼 ‘짜장면’과 ‘맨날’을 ‘자장면’과 ‘만날’로 고쳐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던 편집자들은 이제 당당히 ‘맨날’, ‘짜장면’을 외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39개의 표준어 인정에 모두 동의하지는 않는다. 가령 ‘먹거리’의 경우, ‘-거리’는 명사 뒤에 붙거나 어미 ‘-을’ 뒤에 쓰여 활용하는 단어이다(이야깃거리, 볼거리, 마실 거리 등). 그래서 먹을거리가 원래 표준어인데 환경 오염으로 먹을 것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먹거리 문화’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인 것으로 기억한다. 말은 처음 생겨났을 때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중요하다. 굳이 틀린 말을 단지 많이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표준어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싶다. 아니면 그 말이 어떤 식으로 쓰이는 말이며 어떻게 표준어로 굳어지게 되었는지 설명을 곁들여 주면 더 좋을 듯싶다. “여기는 ‘먹거리’가 많다”라는 문장을 보면 아직은 ‘먹을거리’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하지만 언중은 짧고 간결한 말들을 쓰기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읽거리’ 등도 탄생할지 모른다.

때로는 표준어 규정이 다양한 우리말 표현을 억압하기도 한다. 책이나 원고에서는 ‘뜻이나 어감 차이가 있어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한’ 표준어를 원래 표준어보다 평소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다. ‘새초롬하다, 끄적거리다, 걸리적거리다, 야멸차다, 맨송맨송’ 등이 ‘새치름하다, 끼적거리다, 거치적거리다, 야멸치다, 맨송맨송’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다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현재 표준어와 추가 표준어를 구별해 보라고 하면 추가 표준어를 원래 표준어로 알고, 현재 표준어를 새로 추가된 말로 오해할 사람이 더 많을 듯싶다. 영어가 세계 공통어인 글로벌 시대에 살다 보니 ‘우리말’이 얼마나 대단한 언어인지 새롭게 느낄 때가 많다. 영어를 공용어로 삼는 나라도 생겨나는 마당에 우리말 어휘를 좀 더 풍부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보면 좋겠다. 우리말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벽초 홍명희의 《임격정》만 봐도 당시 언중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풍부한 어휘를 구사했는지 엿볼 수 있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에는 한계가 있어, 이들이 가진 어휘로 표현 못하는 말들도 무수히 많다. 이 기준으로 보면 앞으로의 표준말에는 어설픈 콩글리시나 외계어가 다수

등장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현대의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서울말에는 없지만 여전히 두루 쓰이는 우리 고유의 좋은 말, 좋은 표현들은 표준어로 삼아 주었으면 좋겠다.

비록 국어학자는 아니지만 편집자 생활을 하다 보니 우리말의 변화나 유행에 자연스레 민감해진다. 최근 들어 느끼는 혼란스러움을 몇 가지 들어 보면 언제부터 우리말에 '사이시옷'이 그렇게 많이 쓰였을까 하는 것이다. 예전엔 '등곶길' '하곶길'엔 사이시옷이 없었다. 하지만 여기저기 마구 사이시옷을 넣다 보니 글씨 모양은 모양대로 안 예쁘고, 간결하지도 않고, 어디엔 넣고 어디엔 빼야 하는지 점점 구분이 모호해진다. 또 "내가 어머니 '배속'에 있었을 때" 같은 문장을 이제는 '배 속'으로 써야 한다. 북한에서는 사이시옷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한 나라 말을 쓰는 언중들 간의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사이시옷'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말에 뾰족하게 돌아났는지, 그리고 이런 사이시옷을 어디까지 적용해야 하는지 '애정남' 같은 존재가 속 시원하게 정해 줬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편집자로서 우주의 신비보다 더 신비롭게 다가오는 '띄어쓰기' 이야기를 하고 싶다. 편집자들은 농담처럼 '띄어쓰기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말한다. 시나 동화, 소설, 학술 논문 등에 적용하는 띄어쓰기가 다르고, 같은 조합이라도 어떤 건 띄고 어떤 것은 붙인다(불거리, 먹을거리, 마실 거리 등). 거기에 더해 '신나는'이 갑자기 어느 순간 '신 나는'으로 변하고, '(줍쌀)만한'이 '(줍쌀)만 한'으로 바뀌면 그 어색함에 전혀 신 나지도, 크기가 줍쌀만 하게도 느껴지지 않는다. 편집자가 우리말을 쓰면서 느끼는 어려움이 이렇게 큰데 일반 사람들은 말해 무엇하리.

말은 계속 변한다. 표준어든, 사이시옷이든, 띄어쓰기든 모든 것이 다 조금씩 계속 바뀌어 나갈 것이다. 처음 이런저런 규정을 정할 때, 문법도 중요하고 원칙도 중요하겠지만 실생활에서 대다수 언중이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눈여겨보고 귀 기울여 들어 좀 더 합리적으로 처리하면 좋겠다.

---

##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변정수 · 출판컨설턴트

---

몇 해 전의 일이다. 출판 편집자들이 정보를 교환하는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 재미있는 질문이 올라왔다. 연결 어미 '-든'과 '-건' 가운데 어떤 표현이 옳은지를 묻는 내용이었다.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이런 표현들에 관해 맞다거나 틀리다는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에, 처음엔 질문이 꽤나 생똥맞게 여겨지기까지 했다. 오히려 '왜 그런 의심을 가졌는지'를 되묻고 싶을 지경이었다. 하지만 이내 '언어 규범에 얼마나 주눅 들어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를 진지하게 되돌아보게 하는 아주 좋은 사례라는 데 생각이 미쳤다.

내가 아는 범위에서 연결 어미 '-든'과 '-건'은 거의 완벽하게 호환이 가능하다. 그것은 두 표현의 의미가 같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표준적인' 규범적 기준이 있을 것이라 짐작하는 건, 실은 대다수의 언중이 '표준어'에 관해 가진 통념에 비추어 그리 이상하지도 않은 일이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배워 왔고, 최근에는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에서까지 '무식'을 질타당하면서, '맞는 말'과 '틀린 말'을 가리도록 교육과 계몽의 객체가 되어 왔다. 게다가 대개 이렇게 규범적인 태도로 '표준어'를 강조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실제로 지역이나 계층에 따라 서로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바람에 원활한 의사소통에 곤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에서 가장 '보편적인' 표현을 제시해 주기보

다는 대다수 언중들이 일상에서 별다른 의심 없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표현들에 대해서 ‘틀린 말’이라고 딱지를 붙이는 데 치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일이 되풀이되다 보니 수십 년 동안 입에 붙은 익숙한 말조차도 ‘틀린 말’이 아닌지를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말 한 마디도 세심하게 가려 쓰려는 노력은 매우 훌륭한 자세이지만, 그것이 지나쳐 ‘맞는 말’과 ‘틀린 말’을 규범적으로 강박하는 것은 선후와 본말을 뒤바꾼 것이다. 가령 ‘총각김치의 재료가 되는 무’를 ‘알타리무’라고 표현해야 할 필연적인 까닭도 ‘총각무’라고 표현해야 할 필연적인 까닭도 없듯이, 말에는 본디 ‘맞는 말’이나 ‘틀린 말’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가 특정한 표현을 ‘표준어’로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근거는 실제로 대다수의 한국어 사용자들에게 널리 통용된다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경험적인 사실에 있을 따름이다. 현실적으로 ‘알타리무’가 ‘총각무’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도 ‘총각무’만을 표준어로 인정하여 ‘알타리무’를 ‘총각무의 잘못’이라 못 박을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실제 언어 현실을 반영하여 복수 표준어가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며 앞으로 더욱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여전히 ‘잘못된 말’로 규정당한 ‘비표준어’들이 존재하는 한, 아무리 많은 어휘들을 ‘표준어’로 감싸 안는다 하더라도 ‘언 발에 오줌 누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예컨대 왜 ‘-길래’는 ‘-기에’와 함께 복수 표준어로 인정하면서 ‘알타리무’나 ‘까탈스럽다’는 누락되었는지 따위의 문제를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고, 설령 앞으로 더 많은 어휘들이 복수 표준어로 인정된다 해도 또 다른 어휘들이 시뻐겨리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전향적으로 복수 표준어로 인정되는 어휘를 추가해 나가는 방식으로 ‘표준어’를 언어 현실에 근접시키려는 노력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그보다 선행해야 할 것은 좀 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다. 현실적으로

‘표준어’의 테두리를 일정하게 설정해 두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과연 ‘표준어’가 ‘맞는 말’과 ‘틀린 말’ 또는 ‘옳은 말’과 ‘그른 말’을 가르키는 ‘규범’인지, 그 성격부터 분명히 해 두자는 것이다. 나는 오래 전부터 출판 현장의 편집자들에게 어문 규범을 가르치면서, 표준어란 ‘규범’이 아니라 ‘정보’일 뿐이라고 역설해 왔다. 예컨대 ‘총각무’가 표준어로 규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총각무’가 ‘맞는 말’이니 ‘알타리무’라고 쓰는 것은 ‘잘못’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대다수의 한국어 사용자들에게 ‘총각무’가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라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 뿐이라는 것이다. 다른 모든 ‘정보’들이 그러하듯이, ‘표준어’에 관한 정보도 당연히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최신 정보의 업데이트’가 지연될 수도 있으며, 무엇보다도 정보 가치의 판단 또한 전적으로 정보를 수용하는 사람의 종합적이고 주체적인 판단에 달려 있다. 가령 ‘문제는 까다롭지만 사람은 까탈스럽다.’는 표현이 더 자연스러운 내게, ‘까탈스럽다’는 ‘까다롭다의 잘못’이라는 ‘정보’는 대체로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 ‘하잘것없는’ 정보이다.

이러한 내 생각을 정책의 차원에서 피력하자면, 어문 규범으로서의 ‘표준어 규정’ 자체를 폐기하자는 것이다. 표준어에 대한 정보는 사전에 모아 놓는 것으로 족하며, 특정한 어휘가 표준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국가 기관이 일률적인 규범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개별적인 사전 편찬자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 사전에는 표준어로 올라 있는 말이 다른 사전에는 누락될 수도 있으며, 언어 변화에 보수적이어서 가령 ‘너무’를 ‘지나치게’라는 부정적인 맥락에서만 쓰인다고 풀이하는 사전이 있는 반면, 좀 더 개방적으로 본래 뜻 외에도 ‘아주, 매우’ 등의 뜻의 긍정적인 쓰임도 있다고 파생 의미까지 기술한 사전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다양한 사전들 가운데 대다수의 언중들이 언어 현실을 가장 적절하고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여기는 사전이 좀 더 높은 권위를 스스로 확보하게 될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사전은, 실제로 적잖은 사람들이 익숙하게 사용하는 표현을 ‘잘못된 말’이라고 함부로 못 박지 않는 사전이다. 물론 그 모든 표현들이 다 ‘표준어’로 인정될 만한 ‘보편성’을 지닌 말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비표준어’라고 싸잡기보다는 ‘제한된 사용 범위’를 섬세하게 제시해 주면 좋을 것이다. 요컨대 ‘-길래’도 ‘-기에’와 함께 표준어(=맞는 말)로 인정한다는 것은 기실 ‘-기에’는 옳고 ‘-길래’는 틀렸다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그보다는 가령 ‘-기에’는 주로 격식을 갖춘 문어체에서 사용되는 경향이 강하고 ‘-길래’는 주로 구어체에서 두루 사용된다는 식의 정보를 폭넓게 담아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히려 규범 체계로서의 ‘표준어 규정’의 존재는 이런 다양한 사전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문화적 환경이 조성되는 데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한다. 가령 ‘바람’을 ‘바람’과 다름없는 자격으로(또는 심지어 더 중심적으로) 다루는 사전이 이미 ‘바람’은 ‘비표준어’라는 규정을 알고 있는 언중들에게 신뢰를 얻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익숙하게 사용해서 입에 붙은 말을 억지로 쓰지 못하게 가로막거나, 그 대신 좀처럼 입에 붙지 않는 낯선 말을 억지로 쓰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설령 가능하다 해도 그 자체로 민주 사회에는 걸맞지 않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혹시라도 내게는 무척 익숙한 표현이지만 보편성이 떨어져 의사소통에 지장이 생겨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내가 감수해야 할 문제일 뿐이다. 따라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내게 필요한 것은, 실제 언어 현실에서 어떤 어휘가 얼마나 보편적으로 수용 가능한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이지, 제한된 범위일망정 분명하게 사용되고 있는 어휘를 ‘잘못된 말’이라고 재단하는 ‘규범’이 아니다.

특정 어휘를 ‘표준어’의 범위에 넣을지 말지는 규범적인 차원에서 논의를 할 문제가 전혀 아니며, 단지 ‘정보 체계’로서의 사전을 편찬하는 과정에 수반되는 과제일 뿐이라는 인식의 대전환이 절실하다.

---

##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표기와 용례가 ‘표준’이 되기를

강혜란 · 중앙일보 기자

---

〈줄타기·택견도 인류 무형 유산 된다〉. 지난 11월 28일 자 중앙일보 16면 기사 제목이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6차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줄타기와 택견·한산모시 짜기 등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 유산(공식 명칭 ‘유네스코 인류 구전 및 무형 유산 걸작’)에 등재된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아무렇지 않게 읽히는 이 문장이 불과 두 달여 전까진 〈줄타기·태견도 인류 무형 유산 된다〉로 바뀌어야 했다. 8월 31일 국립국어원이 ‘택견’을 ‘태견’과 함께 복수 표준어로 인정하기 전까지 말이다.

이날 복수 표준어가 된 말은 ‘택견’ 외에 ‘짜장면’, ‘폼새’ 등 3가지다. 기존 표준어(‘태견’, ‘자장면’, ‘폼세’) 못지않게 실생활에서 자주 표기되는 말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실상 ‘택견’과 ‘폼새’는 원래부터 신문에선 표준어나 다름없이 쓰이고 있었다. 중앙일보 일요판 신문인 중앙선데이 6월 19일 자 20면을 보자. 〈흔들흔들 춤추는 듯한 폼새, 주먹 안 쓰기도 상대 제압〉이라는 제목 하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보인다.

택견은 상대를 넘어뜨리는 기술, 손발이 연결되는 방식이 매우 다양

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품새와 기술이 제각각이다. 고려대 택견 동아리 한울의 김지훈(32) 회장은 “택견은 정해진 품새가 없다. 날 기술을 이용해 자기 몸에 맞춰 품새를 만든다. 키가 큰 사람, 체격이 좋은 사람, 발이 빠른 사람의 품새가 다 다르다.”고 설명했다.

택견과 품새라는 단어를 반복하면서 이를 ‘태견’이나 ‘품새’로 고쳐 쓰지 않았다. 왜일까? 같은 기사에 힌트가 있다. 기사에 인용된 관련 협회 이름이 모두 결련택견협회, 한국택견협회, 대한택견연맹 등이다. 2,000여년의 역사를 가진 택견은 원래 탁견이 서울말화하면서 택견이 됐다. 일제 강점기인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따라 ‘태견’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그러나 택견을 고유 명사로 여긴 택견인들은 맞춤법을 따르지 않았다. 1983년 중요 무형 문화재 제76호로 지정될 당시에도 명칭이 ‘택견’이었다.

‘품새’도 마찬가지다. 태권도에서 공격과 방어의 기본 기술을 연결한 연속 동작을 이르는 말인 ‘품새’ 역시 태권도의 총본산이라 할 국기원이나 대한태권도협회에서 ‘품새’로 주로 써왔다. 《표준국어대사전》에만 ‘태견’과 ‘품새’로 올라 있지 전문가들이 대대로 써 온 용어가 달랐던 것이다.

그러다보니 기사 작성 시 혼란이 적지 않았다. 취재원으로부터 확인한 정식 용어가 표준어가 아니다 보니 어느 쪽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중앙일보 기사 데이터베이스(DB)만 기준으로 할 때 태견보다 택견이 월등하게 많이 쓰였다. ‘품새’의 경우엔 태권도인 안에서도 ‘품새’로 써야 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은지라 엇비슷하게 쓰였다. 적어도 신문 기사 안에서 ‘태견’과 ‘품새’는 표준어가 받아야 할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

그에 비해 기자들이 곤혹스럽게 한 단어가 ‘짜장면’이다. 택견과 품새에 비해 짜장면은 전문가가 따로 없는, 말 그대로 국민 단어다. 표준어가 엄연히 ‘자장면’으로 규정돼 있지만, 쓰는 기자도 입에 설거니와 고유 명사를 포함하는 기사를 쓸 때 종종 충돌이 생겼다. 2009년 5월 16

일 자 중앙일보 TV 프로그램 소개 기사는 이렇게 쓰고 있다.

자장면은 왜 검정색일까. 중화요리 애호가라면 한 번쯤 품었을 의문이다. 17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되는 'SBS 스페셜-짜장면의 진실'은 이런 의문을 속 시원히 풀어 줄 예정이다.

한 기사 안에서 '자장면'과 '짜장면'이 나란히 쓰인, 웃지 못할 풍경인 셈이다.

이번에 표준어가 된 39개 단어 중엔 이런 게 틀린 말이었던가 싶은 것들도 많다. 과문한 타인지 '간질이다', '등물', '토란대'가 표준어가 아니었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 알았다. '맨날'은 맨날 '만날'로 고쳐 써야 해서 불편했는데 드디어 표준어가 됐다. '나래'나 '내음'처럼 문학적 멋을 부리고 싶을 때도 표준어 규칙에 맞춰 삼가야 했던 단어들도 자유를 얻었다.

그러나 아마 더 유연해진 쪽은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보다 제목으로 승부하는 편집 기자일 것이다. 예컨대 '쌈싸름하다'는 영화 '달콤쌈싸름한 초콜릿' 때문에 상용화된 표현이다. '달콤쌈싸름한 도시, 서울'같이 멋을 부리려다가도 어색하게 '달콤쌈싸래한 도시'로 바뀌야 했는데, 드디어 결별할 수 있게 됐다. 마찬가지로 경우가 '-기에'의 구어적 표현으로 허용된 '-길래'다. 1991년 시청률 50% 이상을 기록한 공전의 히트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이후 입에 찹찹 감기게 써 온 '-길래'를 신문에선 쓸 수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도대체 노벨상이 뭐길래 매해 이런 소동을 되풀이 하는가" 하는 문장을 뚝뚝이 쓸 수 있게 됐다. '트위터가 뭐길래', '디젤이 뭐길래' 하는 식의 제목이 훨씬 잦아진 인상이다.

이번에 표준어에 추가된 39개의 단어 중 상당수가 중앙일보의 표준어 안내 칼럼 '우리말 바꾸기'에서 다루어 온 것이다. '우리말 바꾸기'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을 지적하면서 이들 단어의 표준어 채택 필요성

을 역설해 왔다.

‘우리말 바꾸기’를 연재하는 중앙일보 어문 연구소는 이번 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나래’, ‘내음’을 표준어로 추가했다면 ‘잎새’도 함께 올렸어야 했다는 것이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는 윤동주의 시처럼 ‘잎새’도 ‘잎사귀’를 밀어내고 널리 쓰인 지 오래됐다.

복잡하고 예외가 많은 사이시옷 규정도 쉽게 고쳐야 한다. ‘소주잔’ ‘대폿잔’은 왜 사이시옷이 다른지 일반인은 잘 알지 못한다. ‘등곳길’ ‘하곳길’은 모양이 사납다.

표준 발음도 문제다. ‘뺨다’를 [뺨따]로, ‘뺨다’를 [박따]로 발음하는 사람은 아나운서밖에 없다. 띄어쓰기 규정은 더욱 난해하다. ‘지’, ‘데’, ‘바’처럼 내용에 따라 띄었다 붙였다 해야 하는 것이 너무 많고 일관성도 부족하다.

신문과 방송은 교과서 다음으로 일반 국민이 신뢰하는 우리말 교재일 것이다. 은어, 비속어, 알 수 없는 외래어의 남용으로 우리 말글이 혼탁해지는 것은 물론 경계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모국어를 쓰는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표기와 용례가 ‘표준’과 맞지 않다면, 표준이 말글 사용자의 발목을 잡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신문 기사가 사회와 언중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반영하고, 이것을 대중이 존중하며 사용하는 선순환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

## 대중이 사용하는 말은 살아 움직이는 도구

이효연 · 한국방송공사(KBS) 기자

---

‘자장면’이라고 쓰고 ‘짜장면’이라고 읽어 왔다. 오랜 시간 대중의 입맛을 사로잡아 왔던 매력적인 음식 ‘짜장면’. 우리는 그 맛깔스러운 음식의 이름을 애써 ‘자장면’이라고 불러야만 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던 홍길동의 심정이었을까. 2011년 8월의 마지막 날, ‘자장면’을 ‘짜장면’으로 부를 수 있게 된 날, 대중은 환호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어 상위권에 ‘짜장면’이 올랐고 트위터와 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도 ‘짜장면’은 단연 최고의 이야기거리였다. 직장인들은 ‘짜장면’이 제 이름을 찾은 날을 기념하며 그날의 점심으로 기꺼이 ‘짜장면’을 택했다.

‘짜장면’이 표준어가 됐다는 사실을 KBS 9시 뉴스를 통해 보도했던 필자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다음 날 KBS FM을 통해 방송된 ‘변기수의 미스터 라디오’의 ‘짜장면’ 특집이었다. 어색한 ‘자장면’이 아닌 맛깔난 ‘짜장면’을 방송에서 처음으로 부를 수 있게 된 날, 개그맨 출신 디제이(DJ) 변기수 씨는 특유의 넘치는 끼로 ‘짜~장면’을 작심한 듯 외쳐 댔다. 청취자들은 자신의 추억에 얽힌 ‘짜장면’ 이야기를 쏟아 냈고 심지어 KBS 라디오 스튜디오로 짜장면을 배달해 준 청취자까지 있어 제작진을 놀라게 했다. 이런 열렬한 청취자들의 반응을 통해 ‘짜장면’이라는 음식은 단순한 면 요리가 아닌 ‘국민 짜장면’

의 반열에 올라 있는 음식이라는 것을 새삼 실감했다.

KBS '뉴스 9'의 민경욱 앵커는 2011년 8월 31일, '짜장면'이 표준어가 됐다는 소식을 이렇게 전했다.

장을 볶은 소스에 비벼 낸 국수를 처음엔 볶을 '작(炸)' 자에 된장 '장(醬)' 자를 써서 '작장면'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게 '자장면'이나 '짜장면'이나, 그동안 논란이 많았었죠. 이제는 마음 놓고 둘 다 쓰셔도 되겠습니다. 이효연 기자가 새로 표준어로 인정된 단어들을 소개합니다.

이 짧은 앵커 멘트를 통해 '짜장면'이라는 음식 이름의 기원을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 '작장면'이라는 음식을 대중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짜장면'이라고 부르게 됐는지는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간단하게 언급할 수 있는 것은, 대중이 사용하는 단어는 대상의 느낌을 가장 적합하게 표현하는 동시에 가장 발음하기 쉬운 형태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물론 대중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방송 등 대중 매체를 통해 바로잡은 사례도 적지 않다. 필자가 기억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쌍얼'과 '성대묘사'다. 화장을 하지 않은 맨 얼굴을 말하는 '쌍얼'의 표준어는 '민낯', 다른 사람의 목소리나 짐승 등을 흉내 낼 때 자주 사용하는 '성대묘사'는 '성대모사'의 잘못된 발음임을 지적하는 상황을 많은 TV 프로그램에서 봐 왔고, 많이 시정됐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대중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단어나 표현법은 바로잡아 주면 고쳐지기도 한다.

그러나 '자장면'은 달랐다. 아무리 공식 석상에서 '자장면'이라 발음하고 대중의 잘못된 언어생활을 바로잡아 주는 TV 프로그램에서 수차례 지적해도 사람들이 '자장면'을 '짜장면'이라고 불렀던 것은 '짜장면'이 그 음식의 느낌과 맛을 가장 적합하고도 가장 발음하기 쉽게 전하는 단어로 이미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국립국어원은 지난 8월 '짜장면'과 함께 39개 단어를 표준어로 추가했다. '짜장면'이 표준어 대접을 받게 된 날, 함께 표준어 대열에 이름

을 올린 단어는 ‘먹거리’와 ‘복숭아빠’, ‘간지럽히다’, ‘남사스럽다’ 등이 있다. 이 단어들의 원래 표준어였던 ‘먹을거리’와 ‘복사빠’, ‘간질이다’, ‘남우세스럽다’가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진다.

‘짜장면’을 비롯해 39가지 단어를 표준어로 추가 인정한 국립국어원의 결정은 분명 환영할 만하다. 지금의 표준어 규정이 마련된 것은 1988년이었는데, 대중의 언어 사용 변화상을 적극 반영해 표준어를 추가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표준어 추가 결정에 앞서 국립국어원은 최근 2~3년 동안 대중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와 표현법 200여 가지를 대상으로 한국의 성인 남녀가 어떠한 상황과 분위기에서 어떠한 의미로 해당 단어를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심도 깊은 조사를 펼쳤다. 그 가운데 39개 단어가 표준어 대접을 받는 영광을 얻은 셈이다.

대중이 사용하는 말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도구와도 같아서 그 시대의 사회 문화적 분위기에 따라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 방법이 유행처럼 번져 나갔다가 잊히기도 하고 또 변화한다. 언어의 이런 속성을 이해하고 언어 정책에 적극 반영하려 했던 노력을 환영하는 것이다. 아마도 대중들도 그래서 ‘짜장면’이 제 이름을 찾았던 날 그렇게 즐거워했던 게 아닌가 싶다. 마치 생물처럼 환경에 따라 살아 움직이는 언어의 변화상을 면밀하게 검토해 이번과 같이 표준어로 적극 반영하는 정책이 지속되길 바란다. 그것이 한 시대의 언어생활과 문화를 생생하게 기록한 또 하나의 역사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

## 시험에서는 자장면을 쓰고 나와서 점심시간에 짜장면을 외치는 학생들, 이제 고민하지 마!

안용순 · 서울 배명중학교 국어 교사

---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 하는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워서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니가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 두신 비상금으로 시켜 주신  
자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니는 웬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니는 자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니는 자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위의 노래 가사는 '지오디'(노래하는 가수 모임)의 '어머님께'라는 노래 가사이다. 여기서 인상적인 부분이 나온다. 바로 자장면이다. 가수가 부르는 원 노래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로 불려진다. 그런데 웬일인지 가사는 '자장면'으로 되어 있다. 참으로 이상한 노릇이다.

가끔 뉴스에서 아나운서들이 ‘자장면’이라는 발음을 한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 드라마나 개그 프로그램에서는 ‘짜장면’이라고 발음한다. 무엇이 맞는 표현인지 헷갈렸다.

학교 현장으로 가 보자. 1교시 국어 시험에서 맞춤법 문제가 나왔다. 아이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자장면을 정답으로 쓰고 나온다. 그런데 점심시간에 급식이 안 되어 밖으로 나가 먹을 양이면 “야, 짜장면이나 한 그릇 시켜”라고 말한다. 표기는 ‘자장면’으로 하고 ‘짜장면’으로 발음하는 이상한 현상이 몇 년째 지속되고 있었다.

《홍길동전》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가 아니고 ‘짜장면을 짜장면이라 부르지 못하는’ 사태가 자주 일어났다. 학생들도 종종 물어본다. “자장면이 맞아요? 짜장면이 맞아요?” 교사로써 난감했다. 현실 속에서는 짜장면이라고 분명히 쓰고 있는데 맞춤법 문제라도 낼 양이면 자장면을 정답 처리해야 하니 말이다.

알고 보니 자장면은 예전 국어사전에서 계속 정리된 말이었기에 아무리 현실에서 짜장면이라고 쓴들 학자들의 입장에서, 아니면 국립국어원의 입장에서 자장면이 맞다고 손을 들어 주었던 것이 그간의 상황이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1999년 국민 언어생활의 길잡이가 되는 《표준국어대사전》을 발간한 이후 실제 언어생활에서 많이 사용되었지만 표준어로 인정받지 못한 단어들을 검토하는 일을 꾸준히 해 왔다. 표준어를 새로 정하는 일은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일이기에 여러 시간의 조사 작업 끝에 심의 대상 단어들에 국어심의회에 상정되었고, 2011년 8월 22일 국어심의회 회의에서 새 표준어를 최종 결정하였다.

이번에 생활 속에 널리 쓰이는 말 39항목을 표준어로 인정한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학교 사회에서도 입을 모은다. 물론 표준어를 정하는 일은 국가적인 일이라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여러 단위에서 검토를 거쳐 확정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짜장면’의 사례에서처럼 현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말들이 표준어로 인정받지 못했던 것

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개발새발’처럼 학생들은 맞다고 생각되는 말이 표준어가 아니고 ‘괴발개발’이라는 학생들에게는 생소한 말이 표준어로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학생들은 의아해한다. 한글을 만든 배경도 백성들이 쉽게 글자를 익히고 서로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인데 그것의 취지와는 다른 쪽으로 표준어가 정해지니 학생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먹거리’같이 1980년대 이후 대학생들이 만들어 대중화시킨 단어들도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다. ‘동아리’나 ‘새내기’ 같은 말들과 함께 ‘먹을거리’를 대체할 말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었지만 실제 표준어는 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너무 빨리 표준어 심의가 들어간 게 죄라면 죄이다. 1990년대 ‘먹거리’가 대중화 추세를 보이자 그때 국립국어연구원(현재 국립국어원)에서 표준어 심의를 하여 ‘볼거리, 읽을거리’ 등을 ‘보거리, 읽거리’로 하지 못하는 것에 원인을 두어 ‘먹거리’를 표준어로 삼지 않고 ‘먹을거리의 잘못’으로 정리했다.

이처럼 그동안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했으나 그것으로 비표준어의 사용을 막을 수 없었다. 한마디로 언중의 언어 사용을 홍보와 교육으로는 막을 수 없었다는 뜻이다. 그것의 결과로 언중이 많이 쓰는 말들을 비표준어로 두는 것은 많은 국민들을 비표준어 사용자로 만든 꼴이 되고 말았다.

조금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언중의 의견을 들어 생활 속에서 많이 쓰는 말을 표준어로 삼으니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일이다. 여기에 그치지 말고 국립국어원과 같은 책임 있는 기관에서는 앞으로 항상 언중이 사용하는 말을 유심히 보고 표준어보다 더 많이 쓰이는 비표준어를 수집하고 조사하여 표준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보다 장기적인 언어 정책을 세우는 일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겠다.

학교 현장에서도 표준어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은 사실이다. 물론 표준어 교육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사투리 교육 또한 지역 교육의 일환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여기서 이야기 하는 '표준어 교육'의 취지는 학생들의 바른 말 사용에 대한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절실하다는 것이다. 표준어 사용 교육과 표준어를 잘 정리하는 정책은 올바른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에 앞서 요사이 청소년들이 쓰는 언어를 보다 풍요롭고 교양 있게 하기 위한 정책들도 많이 나와야 한다. 이제라도 청소년 언어생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

## 방언과 복수 표준어

한성우 ·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전공 교수

---

### 1. 방언과 표준어의 애증 관계

방언과 표준어는 대립적인 관계로 파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준어가 ‘전 국민이 공통적으로 쓸 공용어의 자격을 부여받은 말’이라면 방언은 ‘한 언어가 사용 지역에 따라 분화된 말의 체계’로 취급받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사전적인 정의와는 별도로 통념상으로는 방언의 다른 말인 ‘사투리’가 ‘표준어’의 대립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표준어 사용자’가 ‘방언 사용자’와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방언이 학술적으로는 지역에 따라 분화된 말의 체계로 인정을 받을지라도 일반인의 통념상으로는 표준어보다 못한 것, 표준어의 사용을 방해하는 것, 표준어를 배우기 위해 버려야 할 것으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인식에서 한 걸음 벗어나 생각해 보면 방언과 표준어는 결코 대립적인 관계만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표준어가 곧 국어가 아니며, 특정 지역의 언어가 국어를 대표하는 것이 아닌 것을 고려한다면 국어의 모든 하위 언어는 방언일 수밖에 없다. 또한 표준어가 특정 지역의 언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특정 방언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 설사 방언과 표준어가 대립적

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어휘의 특성상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방언과 표준어는 훨씬 더 유기적이고도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방언과 표준어의 관계는 표준어를 정할 때부터 문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몇 번의 개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되었다. 1933년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총론에서 제시된 ‘표준말은 서울말로 한다.’라는 규정은 1988년의 표준어 규정의 총론에서는 ‘표준어는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규정으로 다소 완화되어 계승된다. 비록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서울말’을 기준으로 표준어를 정했다는 것은 ‘서울말이 아닌 말’, 즉 방언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그리고 세부 규정을 살펴봐도 방언과 표준어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인식이 보인다. 더욱이 2011년 8월의 부분 개정에서도 방언 어휘 일부가 복수 표준어로 포함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방언과 표준어의 관계를 되짚어 보고 앞으로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 2. 표준어의 뿌리

표준어는 궁극적으로 방언에 뿌리를 둘 수밖에 없다. 표준어 규정 제 1항의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규정은 표준어가 서울말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규정의 ‘서울말’은 결국 ‘서울 지역에서 쓰이는 말’, 즉 ‘서울 방언’으로 치환할 수 있다. 서울 방언은 표준어가 제정되기 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표준어와는 별개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표준어는 국어의 한 방언인 서울 방언에 기원을 두고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국어의 한 하위 방언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서울말의 어휘 공백 때문에 표준어는 서울 이외의 방언에 뿌리를 두기도 한다. 지역 방언은 그 지역의 자연적,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므로 서울말에는 서울 지역에 없는 자연물이나 문화에 해당되는 어휘나 표현은 없다. 그런데 표준어는 전국적으로 통용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어휘와 표현의 공백은 방언의 그것으로 메워야 하는 것이다. 비록 서울말을 바탕으로 하되 서울말에 없는 것은 방언으로부터 수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표준어의 뿌리는 서울 이외 지역의 방언까지 뻗어 있을 수밖에 없다.

### 3. 표준어의 방언 부정

그런데 표준어는 제정이 되는 순간부터 방언을 부정해야 한다. ‘서울말’로 표준어를 정했으면 서울말이 아닌 것은 모두 비표준어가 되므로 서울말과 다른 말을 사용하는 화자는 비표준어 화자가 되고 만다. 더욱이 표준어 규정 내에 ‘버려야 할 방언’이 적시되기도 하고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어휘는 모두 비표준어가 되어 버린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표준어 사용이 권장 혹은 강요되는 만큼 방언은 부정된다.

표준어의 방언 부정은 보급과 수용 과정에서도 이루어진다. 표준어는 전국적으로 동등한 비중으로 보급되어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서울말과 차이가 큰 지역에 집중적으로 보급이 된다. 이 과정에서 각 지역의 방언은 배제가 되거나 배척이 된다. 방언 사용자 또한 표준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방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된다. 표준어 사용이 교양과 교육의 척도가 되는 이상 가능한 한 자신의 방언을 감추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 4. 표준어의 방언 욕심

표준어는 방언을 부정하고 배제하면서도 방언에 대한 끊임없는 욕심을 보인다. 표준어 규정의 총론에서는 방언을 배제하고 있지만 표준어 규정과 목록이 부분적으로 개정될 때마다 방언이 표준어에 포함되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1988년의 표준어 규정에는 방언과 관련하여 제23항의 ‘방언이던 단어가 표준어보다 더 널리 쓰이게 된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와 제24항의 ‘방언이던 단어가 널리 쓰이게 됨에 따라 표준어이던 단어가 안 쓰이게 된 것은, 방언이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의 두 규정이 있다. 이러한 조항을 통하여 방언이 복수 표준어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기도 하고, 아예 기존의 표준어를 밀어내고 단수 표준어로서 기능을 하기도 한다.

부분적인 표준어 개정에서도 표준어는 점차 방언을 끌어들인다. 2011년 8월의 표준어 개정에서는 기존에 방언으로 취급되던 ‘남사스럽다, 복숭아뼈, 허접쓰레기, 토란대’ 등이 기존의 표준어와 함께 쓰일 수 있는 복수 표준어로 인정을 받았다. 또한 어미 ‘-길래, 내음, 뜨락, 손주’ 등은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을 받아 표준어 목록에 포함되었다. 표준어 규정의 부분적인 개정 작업을 통해 방언이 표준어의 일부로 편입되는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표준어 규정이 복수 표준어를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으며, 규정 자체에 대한 개정보다는 개별 어휘에 대해 유연성을 보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결국은 다양한 방언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국어의 어휘를 더 풍부하게 한다는 점에서 표준어는 적어도 어휘적인 면에서는 방언을 계속적으로 수용하게 될 것이다.

## 5. 복수 표준어와 방언

표준어가 방언에 대해 점차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그 결과 방언의 일부가 표준어 지위를 가지게 되었을지라도 방언 전체로 보았을 때 그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 이제까지 표준어로 수용된 것은 대부분 어휘였고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방언은 표준어와 관계 없이 완전히 독립된 살아 있는 언어이고, 각각의 방언이 독자적인 어휘, 문법, 음운 체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어휘 몇 개가 방언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표준어에 수용되었다고 해서 방언의 지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방언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필요한 요소는 방언에서 수용을 하고 있는 표준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방언과 대립적인 관계로 파악되는 상황에서는 복수 표준어가 늘어나는 것이 방언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크지 않다.

방언 사용자나 연구자의 입장에서 방언을 수용한 복수 표준어의 확대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표준어 규정 및 표준어라는 존재의 특성상 표준어라 정해진 것 이외에는 모두 비표준어 또는 방언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표준어에 수용된 극히 일부의 어휘를 빼면 나머지 모든 언어 요소를 사용하는 방언 화자는 여전히 비표준어 사용자로 취급을 받게 된다. 또한 방언을 수용한 복수 표준어의 확대를 계기로 '친방언적 표준어'로 위장해 방언을 더 위축시키는 상황이 된다면 방언 연구자로서도 결코 달가울 것이 없을 것이다.

## 6. 살아 있는 방언과 간혀 있는 표준어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방언이 '소멸'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방언 사용자나 연구자는 표준어의

보급으로 인해 방언의 위축 또는 소멸을 염려한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의 대상이 되는 방언은 ‘표준어와 다른 방언’이지 ‘특정 지역에서 쓰이는 언어’는 아니다. 비록 표준어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된 언어가 기존의 방언을 밀어낼지라도 그 지역의 언어가 표준어와 같아지는 일은 없다. 표준어는 이미 틀 속에 갇혀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살아 있는 언어 속에 침투가 되면 얼마든지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지역의 독자적인 언어 요소가 점차 사라지고 전국적으로 유사한 언어적 특징을 공유하게 될지라도 각 지역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여전히 살아 있는 방언으로 유지될 것이다.

따라서 방언과 표준어의 관계는 앞으로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비록 일반적인 인식 속에서는 대립적인 관계로 파악되더라도 표준어의 뿌리가 방언이고, 살아 있는 언어인 방언으로부터 새로운 자원을 공급 받아야만 더 생명력이 강해질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살아 있는 방언이 갇혀 있는 표준어에 활력을 더할 수 있는 것이라면 표준어가 방언에 대해 문을 더 크게 열 필요도 있다. 그 방법의 하나가 현재와 같은 복수 표준어로의 수용이라면 앞으로는 이러한 복수 표준어를 대폭 늘려 나가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

# 어문 규정 폐지를 통한 어문 규범의 현실화 정책을 펼 때

신지영 ·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 1. 복수 표준어 확대 정책을 환영하며

국립국어원은 2011년 8월 31일 ‘짜장면’을 포함한 모두 39개 항목을 기존의 표준 어형과 함께 복수 표준어로 인정했다. 국립국어원의 이날 조치에 대해 국민들은 그야말로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짜장면’이 표준어가 되었음을 알리는 뉴스가 여러 매체를 통해 하루 종일 보도되었음은 물론, ‘짜장면’은 이날 모 포털 사이트의 인기 검색어 9위에 오르기도 하였다. 또 일부 유명인들은 소위 ‘짜장면 인증샷’을 찍어 전하면서 ‘짜장면’이 드디어 ‘짜장면’으로 불릴 수 있게 되었음을 축하하였다. 혹자는 이날을 ‘짜장면 복권(復權)의 날’이라고 칭하기도 하였다.

‘짜장면’은 그간 비현실적인 어문 규범에 대한 저항과 조롱의 상징 역할을 해 왔다. 심지어 모 방송국에서는 ‘자장면’의 비현실성을 고발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방영하기까지 하였다. 아무도 ‘자장면’이라고 말하지 않는데 ‘자장면’이라고 적고 ‘자장면’이라고 발음해야만 규범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니, 규범에 대한 일반인들의 시선이 고을 수만은 없었다. 어문 규범은 현실과 괴리가 클수록 규범으로서의 힘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럼 ‘자장면’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도 ‘자장면’만이 그렇게 오랫동안 표준어로 인정되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왜 그렇게도 어문 규범의 비현실성을 줄이기가 어려운지를 알게 될 것이다.

## 2. ‘짜장면’이 그간 비표준어였던 이유

그동안 ‘자장면’만이 표준어로 인정되었던, 그래서 ‘자장면’이라고 쓰고 ‘자장면’이라고 말해야만 규범에 맞았던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문화된 ‘어문 규정’ 때문이었다. 이 단어는 중국어에서 온 외래어 ‘炸醬’에 한자어 ‘면(麵)’이 붙어서 된 말이다. 따라서 ‘면’ 앞에 있는 외래어 ‘炸醬’은 어문 규정 중에서 ‘외래어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 ‘炸醬’의 중국 발음은 [zhajiang]이므로, 이 단어는 외래어 표기법 제2장에 규정된 한어 병음 자모 대응 원칙에 따라서 ‘자장’으로 표기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렇게 표기된 ‘자장’은 또 다른 어문 규정인 ‘표준어 규정’ 제2부 표준 발음법에 따라서 [자장]으로 발음되어야 한다. 표준 발음법에는 한글로 ‘ㅈ’으로 적힌 단어의 발음은 표준 발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 무조건 [ㅈ]로 발음해야 한다고 설명되어 있다.

요약하면 ‘자장면’이 ‘자장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글(표기)의 규범과 말(발음)의 규범이 각각 ‘외래어 표기법’과 ‘표준 발음법’과 같은 성문화된 어문 규정에 근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장면’의 비현실성을 뺀히 알면서도 ‘짜장면’을 ‘자장면’으로 인정하기가 매우 곤란했던 것이다.

어문 규정이 존재하는 한, 어문 규범의 현실화를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하나는 규정을 바꾸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을 규정의 예외로 인정하는 것이다. 규정을 바꾸는 것도, 규정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도 규정의 권위

를 약화시키게 된다. 어문 규범이 성문화된 규정으로 존재하는 한, 규정의 권위는 곧 규범의 권위가 된다. 따라서 규정의 권위가 약화된다는 것은 그만큼 규범의 권위가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어문 규범을 여러 조항으로 구성된 ‘어문 규정’을 통해 세우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어문 규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북조선인민공화국, 딱 두 나라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3. 어문 규정을 갖게 된 배경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성문화된 어문 규정을 갖게 되었을까? 우리가 처음으로 성문화된 어문 규정을 갖게 된 것은 1933년의 일이다. 국어사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통일된 표기형이 필요했고, 통일된 표기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표기법의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표기법의 원칙을 정한 것이 바로 1933년 제정·공표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었다.

표기법의 원칙을 세우던 시기에는 철자법의 원칙을 적어 놓은 어문 규정이 필요했다. 철자법의 일반적인 원칙을 고안한 후에, 이를 규정으로 만들면 그 규정을 바탕으로 다른 단어들의 표기형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유추된 표기형은 사전을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표제어의 표기법을 정할 수 있게 해 주었고, 사전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표제어의 표기형을 유추하여 찾을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럼 표준 사전인 《표준국어대사전》이 간행된 1999년 이후의 상황은 어떤가? 우리에게 여전히 성문화된 어문 규범, 즉 어문 규정이 필요한가? 아니면 어문 규정은 유통 기한이 만료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야 할 때가 온 것인가?

표준화된 사전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동시에 표기법이나 발음법의 원

칙을 적어 둔 성문화된 어문 규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어문 규범은 사전을 중심으로 충분히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전을 찾아 사전에 나온 대로 표기하고 발음하는 것이 규범을 따르는 일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전 중심 방법은 우리에게 그리 낯선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영어를 배울 때 철자법의 원칙이나 발음법의 원칙을 규정을 통해 배우지 않고 사전을 통해 배웠다. 영어의 경우는 사전에 있는 대로 표기법과 발음법을 따르는 것이 어문 규범을 지키는 일이다.

#### 4. 바꿀 것인가, 없앨 것인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지금처럼 어문 규정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태에서 어문 규범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어문 규정을 개정하거나 해당 규정에 예외를 인정해야만 한다. 하지만 어문 규정이 규범으로서의 권위를 가지려면 자꾸 개정이 되어서도 안 되고,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예외를 너무 많이 인정해서도 안 된다.

결국 지금처럼 어문 규정을 어문 규범의 근거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문 규범을 현실화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어문 규정의 유통 기한이 만료된 만큼, 우리가 어문 규정을 계속 유지해야 할 이유는 없다. 말과 글의 규범을 성문화된 몇 개의 조항으로 모두 규정할 수 있다는 생각은 그 자체가 애초부터 비현실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문 규범의 현실화는 어문 규정을 바꿈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문 규정을 없앴으로써 이루어진다. 어문 규정이 없어지게 되면 어문 규범의 현실화가 사회적 합의를 이룬 표기형이나 발음형을 개별적으로 사전에 올리는 과정을 통해 단순히 얻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재 표기형과 발음형이 각각 '돈가스'와 [돈가스]인 단어

를 생각해 보자. 이 단어의 현실적인 발음은 [돈까쓰]이고, 사람들의 일반적인 표기형은 '돈까스'이다. 하지만 현재의 어문 규정이 존재하는 한, '돈까스' 이외의 표기형을 규범으로 정하기 어렵다. 또 '돈까스'를 표기 규범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돈까스]라는 발음 이외의 다른 발음을 규범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어문 규정이 존재하는 한,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표기형이나 발음형은 규범이 될 수 없다.

그럼 '짜장면'처럼 '돈까스' 혹은 '돈까쓰'도 복수 표준어로 인정하는 방법을 택하면 어떨까? 그런데 '돈까스' 혹은 '돈까쓰'를 복수 표준어로 인정하면 다른 외래어 '가스', '버스', '센터', '골' 등등 많은 외래어들도 복수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복수 표준어 인정은 한 단어의 표준 표기형을 복수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표준 표기법의 원칙에 어긋나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니다. 또한 이렇게 예외가 많다면 애초부터 왜 그러한 비현실적인 표기법을 만드는 규정이 필요한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규정의 개정을 자연스럽게 요구하게 된다.

## 5.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규정' 중심에서 '사전' 중심으로

국민들이 이번 '짜장면 조치'를 반가워하는 이유는 언어 사용자가 규범의 주인임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규범은 언어 사용자가 따라야 하는 기준이지만, 규범을 만드는 주체는 분명히 언어 사용자들이어야 한다. 규범이 변한다면 그것은 언어 사용자들의 언어 사용이 변화하기 때문이지,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물론 규정이 바뀌는 것도 변화하는 언어 사용 양상을 반영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규정의 개정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규정의 개정은 어휘

의 개별적인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규정의 대상이 되는 단어 중 일부는 그 규정을 따르고, 일부는 그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를 규정으로 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어문 규정을 없애고 어문 규범을 사전 중심으로 세운다면, 어문 규범의 현실화를 단어 개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앞에서 봤던 ‘돈까스’의 현실화는 현실적인 표기형 ‘돈까스’를 사전 표제어에 올리고, 이에 대해 [돈까쓰]라는 발음형을 올리는 것이다. 어문 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외래어에서 폐쇄음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경음을 쓰지 않는다는 외래어 표기법 규정을 의식할 필요도 없고, 글자대로 발음해야 한다는 표준 발음법 규정을 따를 필요도 없다.

언어 사용자들을 무시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어문 규범은 언어 사용자들에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언어 사용자들이 어문 규범을 지킬 수 있게 하려면 어문 규범이 언어 사용자의 언어 현실을 잘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어문 규범을 세우는 방향은 ‘관’이 규정을 만들고, 그 규정을 통해 ‘민’의 어문 규범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방향이 아니라, ‘민’의 언어 현실이 ‘관’에 의해 잘 정리되어 ‘민’이 따를 수 있는 어문 규범을 ‘관’이 정립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

자장면~짜장면, 만날~맨날:  
복수 표준어를 확대한 사정  
- 남기심 전 국어심의회 위원장을 찾아서 -

---



답변자: 남기심(전 국어심의회 위원장, 연세대학교 명예 교수)

질문자: 차익종(서울대학교 강사)

때: 2011. 11. 8. 오후 2시

장소: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안 연구실

국어 능력 측정 시험에 단골로 나올 법한 문제들이 있다.

〈다음 중 표준어 규정에 맞는 것을 고르시오〉

먹을거리~먹거리

만날~맨날

허섭스레기~허접쓰레기

복사빠~복숭아빠

괴발개발~개발새발

손자~손주

사전 찾는 버릇이 몸에 밴 사람이 아니면 한두 개 이상 틀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분들도 2011년 8월 31일부터는 고민을 한결 덜게 되었다. 모두 표준어로 허용된 덕택이다(이전까지는 ‘먹을거리’, ‘만날’, ‘허섭스레기’, ‘복사빠’, ‘괴발개발’, ‘손자’ 등이 표준어였다). 바로 그날 국립국어원이 국어심의회(위원장 남기심)에서 통과된 위의 예들을 비롯한 39개 항목을 복수 표준어로 확대 인정하는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 복수 표준어를 선정한 뜻을 찾아서

이전 표준어와 뜻이 같지만 다른 어형을 인정한 것 11개(간질이다~간지럽히다, 남우세스럽다~남사스럽다, 목물~등물, 복사빠~복숭아빠, 뫼자리~뫼자리 등), 현재의 표준어와 의미에 차이가 있고 쓰임이 다른 것 25개(‘-기에’의 구어적 표현인 ‘-길래’, ‘뜰’보다 추상적인 공간을 뜻하는 ‘뜨락’, 손자와 손녀를 모두 뜻하는 ‘손주’ 등), 그리고 의미와 말소리가 같으면서도 복수 표기를 인정한 것 3개(짜장면, 품새, 택견)들이 그것이다. 한동안 논란이 되었던 ‘짜장면’도 이제는 규정에 부합한 표기로 ‘자장면’과 함께 어엿한 대접을 받게 되었다(자세한 내용은 국립국어

원 인터넷 누리집에서 ‘알림 마당’, ‘국어원 소식’ 중 8월 31일 자 게시물을 보면 된다. 국어원에서 한글 문서를 첨부해 놓았다. 물론 《표준국어대사전》의 풀이도 심의 결과대로 고쳤다).

이 결과가 알려지자 주요 신문 방송마다 화젯거리로 보도했다. 어떤 직장인은 그날 점심을 ‘짜장면’으로 먹었다는 이야기를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물론 신문 교열을 담당하는 분들 중에는 국어심의회가 어문 규정을 너무 허투루 허물고 있다고 비판한 이도 있었다.

적지 않은 뒷이야기를 낳은 이번 결과에 대해 직접 듣고 싶은 마음에, 그 주역이라 알려진 남기심 전 국어심의회 위원장(연세대 명예 교수)을 찾았다. 연세대학교 교정을 용단처럼 덮은 은행잎을 밟으며 한참 들어가니 위당관이 나왔다. 그 건물 5층에 있는 연구실(이라기보다는 책상 하나로 마련된 작은 공간)에서 사전학을 전공한 젊은 연구자들에게 둘러싸여 차를 끓이고 있는 남 전 위원장을 만날 수 있었다. 남 전 위원장은 현 국립국어원의 전신인 국립국어연구원의 원장을 지낼 때부터 언어 현실을 중요시하는 입장을 지켰던 분답게 이번 복수 표준어 확대 과정은 물론 국어 정책이 나아갈 방향까지, 명쾌하게 때로는 쓴소리까지 아끼지 않고 답변해 주었다.

## 복수 표준어 확대는 언중의 소통을 위한 것일 뿐

**차익종:**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복수 표준어 확대 심의 결과가 큰 화제가 되었는데, 선생님께서도 여러 이야기를 들으셨겠습니다.

**남기심:** “잘되었다.”, “잘했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지요.

**차익종:** 그러셨겠습니다. 하루 종일 언론과 지인들한테서 문의 전화를 받느라 바빴다는 국어학자도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일간지에서는 비판적인 글을 싣기도 했답니다. ‘범’처럼 여기던 어문 규정을 그렇게 쉽게 풀면 앞으로 얼마나 더 바뀌게 될 것이냐며 근심을 털어놓더군요.

(실제로 '口 경제 신문'에 실렸던 편집국 교열 담당 기자의 시평을 두고 한 말이었다.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곳 이 사람'은 처음부터 진지해졌다.)

**남기심:** 표준어를 왜 정하는지, 언어 정책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부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표준어를 처음 정한 것이 언제인지 아시지요?

**차익종:** 1933년 조선어 학회에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당시 조선어학회에 서는 '마춤법'이라 표기하여 발표하였다.)'을 정하고 그에 따라 1936년에 표준어를 정해 발표했지요.

**남기심:** 네, 본래 1920년대부터 민족 고유어를 살려야겠다는 취지에서 사전 편찬 운동이 일어났는데, 조선어 학회가 그 실행을 맡았지요. 그런데 사전을 펴내는 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같은 뜻을 가지는 비슷한 변이형이 많다는 것이었어요. '똑바로'도 있고 '똑바루'도 있는가 하면, '옥수수'도 있고 '강냉이'도 있단 말이지요. 그만큼 방언이 많았죠. 서울에서도 마포 말, 왕십리 말, 밤섬골 말이 달랐을 정도입니다. 제가 1960년대에 대구 계명대학교에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계명대 인근 반촌(양반 마을)과 민촌(상민 마을)의 말이 달랐으니 일제 강점기 때에는 말할 것도 없겠지요. 이렇게 방언 차이가 컸을 때 언중의 소통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표준어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조선어 학회에서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을 발표하게 되었어요.

**차익종:**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표준어 규정을 덧붙이거나 고친 것은 1989년에야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왜 그렇게 늦어졌을까요?

**남기심:** 변하는 것이 말의 본래 모습이니, 시간이 지나면 현실과 맞지 않게 되는 법이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표준어를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옛날 어형을 버리고 새로운 어형을 표준어로 바꾸면, 바로 그 날부터 지금까지 표준어 대접을 받는 말이 모두 비표준어가 되어 버리니까요. 그때까지 표준어대로 말해 온 사람이 어느 날부터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비표준어를 쓰고 있는 현실이 생기는 것이지요.

**차익종:** 일종의 모순이군요.

**남기심:** 그러다 보니 표준어 규정을 바꾸거나 추가하는 데 그만큼 신중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복수 표준어를 지정하자는 방안이 바로 그래서 나온 것이지요.

그렇지만 당시에 복수 표준어를 지정했을 때에는 너무 떠들썩하게 알려 하지는 않았지요. 하나하나의 표준어 지정 결과만 잘 알리되, ‘복수 표준어’를 정한다는 식으로는 보이지 않으려 했지요.

**차익종:** 특별히 그러신 까닭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남 전 위원장은 빙그레 웃기만 한다.)

아무튼 이번의 경우에도 반론이 없지 않았는데요.

**남기심:** (여전히 빙그레) 저는 거기에 별로 신경을 안 쓰지요.

**차익종:** 그러고 보니 예전에 두음 법칙을 성씨 표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는 결정을 국립국어연구원에서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선생님께서 원장을 지내실 때 일입니다.

**남기심:** 그랬지요. ‘류’씨라고 표기해 온 성씨들에게 ‘유’씨라고 표기하라고 강요할 수 없으니까요. ‘류’로 쓰고 [유]라고 발음하도록 할 수 있으니까. 사실 성씨의 표기를 어문 규정이 다룬다는 것도 영역을 넘을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성씨가 그렇게 표기하겠다는데 국가가 왜 간섭하느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익종:** 결국 규정보다는 사용 현실이 중요할 수 있다는 취지이겠군요. 새로운 세대와 이전 세대의 사용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는 것, 특별히 그 말을 사용하는 집단이 있다면 그것도 존중해 줄 수 있다는 것 등으로 이번 복수 표준어 심의 취지를 이해하면 될까요?

**남기심:** 그렇지요. 가령 ‘태견’, ‘택견’ 같은 경우는 본래 ‘태견’만 인정했는데, 이 무예를 실제로 수련하고 보급하는 단체에서는 ‘택견’만 써 왔단 말이에요.

**차익종:** 심의회 위원 중 한 분이 언론 인터뷰에서 “옛날 자료를 찾아보니 ‘택견’이란 표기가 있더라. 역사적 근거도 있음으로 해서 이것도 인정했

다.”라고 말씀하셨더군요.

**남기심:** 그랬지요. 국어학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으면 더 좋을 테니까.

## 개발새발, 짜장면

**차익종:** 이번 심의 결과에 관해서 계속 더 살펴볼까요. 이번 복수 표준어 규정은 정말 어문 규정 시험 문제의 단골 문항을 골라 놓은 것 같습니다. ‘두루뭉술하다~두루뭉실하다’, ‘야멸치다~야멸차다’, ‘오순도순~오순도손’, ‘연방~연신’, ‘끼적거리다~끄적거리다’, ‘어수룩하다~어리숙하다’, ‘괴발개발~개발새발’, ‘냄새~내음’……. 이 경우는 의미가 조금씩 변했다고 인정해서 받아들여 준 것들이군요.

**남기심:** 그렇지요.

**차익종:** 그런데 ‘괴발개발~개발새발’은 본래 ‘고양이의 발과 개의 발처럼 아무렇게나 글씨를 써 놓은 모양’을 뜻한 ‘괴발개발’을 ‘개의 발, 새의 발’로 잘못 이해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원을 잘못 분석한 경우까지 인정한 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는 불만도 있을 텐데요.

**남기심:** 그렇게 엄격히 분석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잘못 전해지거나 잘못 분석했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현실의 언어생활과는 아주 멀어지는 법이지요. 한자도 그래요 우리가 배우는 기초적인 한자도 옛날 형태나 발음과 크게 달라진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원래와 달라졌다고 시비 거는 이는 없잖아요.

**차익종:** 그렇지요, 속자나 속음도 받아들여 쓰는 경우가 많지요.

**남기심:** 이번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내가 항상 드는 예인데, ‘옆질러 절 받기’라는 속담이 있지요? ‘엎드려 절 받기’라는 속담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옆질러 절 받기’라고 말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이것도 점점 굳어지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어느 시점에서는 인정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인터뷰를 끝내고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 실제로 ‘옆질러 절 받

기로 쓴 소설도 있었다). ‘괴발개발’ 대신 ‘개발새발’이 되면, 어원적 의미는 다르지만 속담으로서의 의미는 거의 같게 되겠지요.

## 실제 언어 현실을 고려해야

**차익종:** 언중의 오분석도 언어 현실이 될 때에는 대접해 주어야 한다는 말 씀이군요. 그래도 여전히 비판적인 분이 있을까 봐, 제가 짐짓 더 앞장서 볼까요? 이리다가 다음번에는 ‘예쁘다~이쁘다’, ‘김치찌개~김치찌개’, ‘소주~씨주’도 복수 표준어로 허용할 것이냐, 그러면 결국 표준어가 다 무슨 소용이냐, 등등 말이지요. 정말 ‘이쁘다’는 왜 인정하지 않으셨나요? 구어에서는 요즘 거의 ‘이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현실인데요.

**남기심:** 심의회 안건으로 안 올라왔으니까 그랬지요(웃음). 실제로 국어심 의회의 안건은 국어원에서 마련하고 있어요. 어떤 제안이나 건의가 나오 면 국어원에서 꽤 오래 조사를 해서 근거를 갖춘 후 심의회에 올리게 되 는 것이지요. 심의회는 그 안건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국어원 에서 조금 늦은 것이냐는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조사 과정에도 많은 시 간과 노력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표준어 규정이 변하면 출판물에 우선 큰 영향을 줍니다. 책은 물론 신문, 잡지까 지. 그리고 방송, 간판, 공문서에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겠지요.

**차익종:** ‘짜장면’ 이야기를 잠시라도 안 할 수 없겠습니다. 왜 진작 이렇게 정하지 않으셨나요? 이것도 안건 상정이 지금 되어서 그랬나요?(웃음)

**남기심:** ‘짜장면’ 문제는 외래어 표기법과 관련이 있어요. 외국에서 들어온 말을 원어 그대로 적자면 우리말 표기에서 된소리를 적지 않게 쓰게 됩니 다. 그러나 우리말에서는 된소리가 맞는 비중, 그러니까 기능 부담량이 적 잦아요? 외래어 표기에서 된소리 표기를 허용하게 되면 중국어는 물론 프 랑스어나 스페인어, 러시아어에서 온 외래어가 국어의 특성과 달라지는 결

과가 나옵니다. 국어의 특성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말의 음운 구조에 맞춰 적으려다 보니 ‘자장면’이 된 것이겠지요.

**차익종:** 외래어로 볼 경우 우리말 소리의 특성을 고려해서 된소리 표기를 기피하게 되었다는 말씀이군요.

**남기심:** 그래서 이번에는 ‘짜장면’을 외래어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주된 근거로 허용하게 되었지요.

**차익종:** 본래 ‘자장’이던 외국어가 우리말로 되면서 ‘짜장’으로 변했다고 인정하지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셨군요. 외래어 규정이 불필요하다는 논리로 돌파구를 찾았다고 할 수 있겠군요. 그런데 사실 ‘외래어’ 자체가 한국어의 일부로 자리 잡은 말 아닌가요? 외래어라고 했을 때에는 본래의 의미나 형태, 소리와 떨어진 것인데, 외래어를 원음대로 표기할 것이냐는 논란을 빚고 있던 말입니다. 외래어와 외국어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것인가요?

## 국어 정책의 반성

**남기심:** 과연 외래어란 무엇인가요? 외래어와 고유어의 경계는 어떻게 될까요? 더구나 말소리의 표기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아주 쓴소리를 해야겠는데, 우리 국어학계의 현실이 말입니다. 국어 정책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차익종:** ‘없다’기보다는 ‘적다’는 지적이시겠지요?

**남기심:** 없어요. 《국어 정책론》을 펴낸 분도 있었지만 국어학사에 가까웠지, 정말로 언어 정책을 주로 연구해 온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모두 순수 언어학 분야에만 매달리고 있고, 응용 분야 연구자가 설 자리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다 보니 국어의 현상을 보는 눈이 좁게 됩니다. ‘외래어란 무엇이냐’라는 정의라도 진작 해 봤으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지요. 사실 외래어 표기에 된소리를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과거에는 크게 고민하지 않았어요.

**차익종:** 왜 그런가요?

**남기심:**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외국어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외래어 표기 규정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영어·프랑스어·독일어 이외의 표기는 《웹스터 사전》의 발음을 참조한다.” 게다가 앞의 세 언어 이외의 발음을 알려면 그 나라 관련 전공자들에게 물어봐야 하는데, 이분들이 그 언어의 언어학을 전공한 것이 아니라 정치학이나 경제학을 전공한 경우가 많았던 말이지요. 언어학은 물론 조음 음성학도 이해가 안 된 경우가 많아서 곤란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베트남어, 말레이어, 타이어……. 이런 언어들을 그대로 접하게 되면서 외래어 표기 문제가 예전과 달라졌어요.

**차익종:** 이주민들도 많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그런 언어들의 발음도 직접 들을 수 있게 되었지요. 물론 언어 전공자도 늘어난 편이고요.

## 정확하고 품위 있는 언어생활로, 국어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해

**차익종:**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어 현실을 중요시하자면 결국 어문 규정이 가지는 힘이나 영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남기심:** 어문 규정이 언어 정책의 전부가 아니지요.

**차익종:** 발상을 바꿔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남기심:** 어문 규정은 언어 정책의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앞으로 ‘표준어’라는 것 자체가 과연 될 만한 것인지 의문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공통어’로 개념을 바꾸자는 주장도 나오는 형편이지요.

**차익종:** 예전에 국립국어연구원장으로 계실 때, “국가가 국민을 계몽하는 국어 정책을 가르치는 방식을 벗어나야 한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말도 어법에 맞지 않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터뷰하셨던 것을 기억합니

다. 국가나 국어학자가 규범의 감독자가 될 수는 없다는 인식인데요.  
**남기심:** 그렇지요. 그래서 당시 ‘가나다 전화’에서도 ‘어떤 표현이 맞다’는 식으로 안내하지는 말라고 당부했었지요.

**차익종:** 그렇다면 규범 이외의 다른 영역이 있다는 말씀인데요.

**남기심:** 정말로 중요한 것은 ‘교양 있는 말, 품위 있는 말’입니다. 표준어나 맞춤법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논문에서 ‘is not’ 대신 ‘isn’t’를 썼더니 지도 교수께서 빨간 펜으로 그 으며 이러십니다. “젤리그 해리스(Zellig Harris)처럼 유명한 교수라면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표현에 대한 판단은 문법이나 규정으로는 알 수가 없지요.

또 휴가철에 기숙사가 문을 닫아 일반 시민의 집에서 며칠 잔 일이 있었는데, 그 집 주방에 손때 묻은 대형 《웹스터사전》이 항상 거꾸로 꽂혀 있더군요. 그 집 가정주부가 편지 쓰기를 좋아했는데, 수시로 꺼내서 본다는 것이지요. 캐나다에 여행을 간 적도 있었는데 아름답기로 유명한 빙하 호수 주변에 안내판이 있습니다. 누가 쓴 것인지 모르지만, ‘바다에서 태어나, 바다로 돌아가다’라는 제목 아래 호수를 소개하는 내용이 아주 풍부하고 아름다웠어요. 이게 무엇을 말해 주겠어요? 그들의 일상 언어 생활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차익종:** 사전을 이용하는 문화나 관광지 안내판의 내용을 거론하자면 우리가 되돌아볼 점이 많겠군요.

**남기심:** 그렇습니다. 가령 산간 도로를 지나다보면 ‘낙석 주의’라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요? 돌이 떨어질지 모르니 빨리 지나가라는 것인가요, 돌이 떨어져 있으니 천천히 조심해서 지나가라는 것인가요? 지하철 안내 방송에서 ‘안전선 밖에 있어라’고 하는데, 뒤로 물러서라는 것인지 앞으로 나오라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차 안에서 방송하니까 자기 위치를 중심으로 생각해서 그렇겠지요. 명석하지 못한 사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언어생활 때문이지요.

앞으로는 국어 능력은 맞춤법, 표준어 점수가 아니라, 품위 있고 아름다운 말, 정확하고 명석한 사고, 어휘량, 독서 이해력, 표현력으로 평가해야겠어요. 이런 능력은 경제력을 키우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언어 능력이 더 좋은 노동자들이 더 높은 노동의 질을 발휘하는 것이니까. 물론 우리의 언어생활이 나아지려면 우선 존경받는 문필가, 학자, 교양 있는 정치인이 많아져야 합니다. 영국의 경우는 가장 우수한 학자들이 영문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가 일일이 간섭할 필요도 없지요.

### “이제 말 좀 잘해 보자”

**차익종:** 우리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 국어 정책에서 말을 일이 오히려 더 많아지겠습니다.

**남기심:** 그렇지요. 지금까지의 국어 정책이 어문 규정과 표준어 정도만 지켜 내려고 하는 방어적 정책이었다면, 앞으로는 방향을 바꿔서 더 공세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해야겠지요. 교양층을 형성하고, 문화적 열등감을 벗어나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나오도록 하고, 그것을 언어생활 차원에서 교육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죠.

**차익종:** 그런 마음에서 선생님께서 요즘 힘을 기울이시는 일이 있나요?

**남기심:** 《연세 한국어 사전》을 더 크게 편찬하는 일을 거두고 있지요. 사전은 한 사회의 문화적 역량을 결집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우수한 문장과 작가가 배출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수한 연구 역량이 힘을 다해서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아직 멀었습니다.

**차익종:** 《새국어생활》 독자들에게 특별히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겠지요?

**남기심:** “우리 이제는 말 좀 잘해 보자, 정확하게 하자.”며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국어학자나 교육자들에게도 다시 당부하고 싶네요. “문법은 이만하면 됐습니다. 앞으로는 소통 중심으로 바꾸자.”고 말이지요.

**차익종:** 오랫동안 시간을 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 외솔 최현배 선생의 ‘말씀들’

김석득 · 연세대학교 명예 교수

사람은 누구나 길고 짧은 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잊음의 뒤안길로 사라져 간다. 살아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쌓은 공덕과 얼일 것이다.

2011년 10월 19일(외솔 나신 날)에는, ‘외솔 기념관’(고향 울산 병영에 있는)에 ‘외솔 최현배 선생 동상’이 섰다. 선생이 지은 《나라 사랑의 길》(1958년)을 한 손에 든 모습의 동상이다. 외솔 선생이 쌓은 공덕과 얼을 길이 기리고 이를 뒷사람이 이어받는다라는 뜻에서 세운 것이다. 외솔 선생의 이러한 뜻의 표상은 이미 여러 군데 있다. 서울 장충단 공원에 세운 ‘외솔 최현배 선생 기념비(1971)’, 연세대 안의 ‘외솔 선생 얼굴상(1994)’과 ‘외솔관’, 외솔 선생을 모신 대전 국립 현충원, 그 밖의 여러 곳의 표상들이 그것이다.

외솔 선생을 이와 같이 표상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는, 외솔 선생은 우리 근현대사 과정에서 큰 학문을 이룩하고, 겨레 정신사 형성에 이바지한 드문 은인의 한 분이요, 본이 되는 스승이시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모두 잘 알고 있는 터라, 여기에서는 이를 자세히 밝혀 논하는 일은 피한다(혹 이를 다시 살펴보려는 이가 있다면 글쓴이의 《외솔 최현배 학문과 사상》(2000)을 보기 바란다). 다만 외솔 선생의 삶의 깊은 세계를 싸안고 있는 얼 상징의 말씀들(어록)을 적어 보려 한다. 이 상

징의 말씀들은, 글쓴이가 1954년 대학 3학년 때부터 대학원을 거치면서 그리고 그 뒤 직접 들은 것이나, 들은 것이 외솔 선생의 글 안에 녹아 있는 것이나, 또한 글 안에만 있는 것을 찾아 살핀 것들이다. 그러나 글쓴이가 이들을 알뜰히 다 챙기지 못하고, 다만 몇 가지만 캐어 소개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그러함에도 이 몇 개의 말씀으로도 외솔 선생의 삶의 철학을 짐작할 수 있으니, 그것은 뒷사람들이 두고두고 삶의 양식으로 삼을 만한 것이 되지 않을까 한다.

**세월이 하 수상하다 싶으면 되뇌는 말씀이 있다. : “사람이 사람이냐, 사람이어야 사람이다.”**

이것은 세상이 매우 어수선하여 참사람됨의 노릇을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부도덕성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속 깊은 뜻을 안고 있다. 나아가서 이는 자연인 사람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온갖 사리와 사물에 까지 폭넓게 미치는 사람됨의 근본 뜻을 함께 안고 있는 말씀(어록)이다. 이러한 절실한 뜻은 시대를 바라보는 외솔의 글에 잘 녹아 있다 (《민주주의와 국민 도덕》, 1953, 《나라 건지는 교육》, 1963). 말은 사람의 얼을 상징하고 또한 사람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힘(말의 힘)이 있음을 증명하듯, 외솔 선생의 한 삶은 참사람됨의 위 말씀의 논리에서 벗어나지를 아니했다. 위의 말씀은 강단 안팎에서 필요할 때마다 강조함으로써 후학들의 삶에 많은 반성의 영향을 주었다.

**외솔 선생은 청년들에게 진취적 ‘이상’을 강조한다. : “이상은 청년의 생명이다.”**

이것은 외솔 선생께서 역사적 현실 앞에서 부르짖으신 지론이기도 하다. 첫째, 외솔 선생은 겨레가 외세에 휘둘러 어려울 때 겨레를 다시 살리는 길을 청년의 이상의 힘에 호소한다. “청년아! 이미 살려는 뜻을

떨치었거든 모름지기 앞으로 살아 나갈 이상을 세워라. …… 사람의 행동은 목적을 가진 의식적 행동이다. 따라서 이상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에 노력 분투하는 외에 무슨 할 일이 있을까?(《조선 민족 갱생의 도》, 1926, 1930에서)” 둘째, 외솔 선생은 또한 나라 안이 어지러워지때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흔들리는 세상을 직관하면서는 겨레의 희망이요, ‘이상의 꿈이 있는 청년’에게 나라의 장래를 부탁·하소한다(《나라 사랑의 길》의 ‘청년에게 하소한다’ 쪽에서). 청년은 진취적 이상을 목숨으로 여기라는 것, 그리고 그 목숨과 같은 이상의 꿈을 품고 있는 청년에게 나라의 장래를 부탁한다는 것은, 오늘 그리고 영원한 내일의 청년들에게 거는 큰 뜻의 말씀으로 새겨진다.

**외솔 선생은 나라와 겨레의 세계화에 밝은 판단을 한다.: “제 나라를 구함으로 세계에 진출하라.”**

외솔 선생은 결코 좁은 국수주의자가 아니다. 나라의 발전을 세계사 발전의 테두리 안에서 인식한다. 다시 말하면, 외솔 선생은, 우리나라의 발전은 먼저 우리나라 안의 역사적 현실의 발전에 기본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요, 다음으로 발전된 우리나라를 세계로 펼쳐 나아가되 우리의 세계화와 아울러 세계 발전의 일원으로 이바지해야 한다고 인식한다. 일찍이 외솔은 “세계를 구하려는 청년은 모름지기 먼저 제 나라를 구하라. 제 나라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세계로 진출하라(《조선 민족 갱생의 도》에서).”라고 했다. 이것은 오늘과 내일의 일꾼인 청년들이 늘 밝게 판단해야 할 국가 발전관이요, 세계화의 눈이다.

**외솔 선생의 우리말 연구를 보는 눈은 겨레의 역사적 문화 창조의 언어관이다.: “한 겨레의 문화 창조의 활동은, 말로써 들어가며, 그 말로써 하여 가며, 그 말로써 남긴다(《우리말본》 머리말, 1937).”**

이는 겨레 문화의 역사다운 창조 활동은 실로 말이 있음으로써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기에 외솔 선생은, 외세의 의식적인 우리말에 대한 억압으로 말미암아 나라와 겨레의 목숨이 거센 바람 앞에 등불인 양 하늘거릴 때, 오히려 우리말의 연구와 우리말 지켜 펴기에 목숨 바침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한 외솔 선생이매, 외솔은 우리말의 연구와 강의에서, ‘연구는 다만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겨레 문화의 역사적 창조를 위한 연구’라는 언어관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연구관은 연구하는 이나 제자들의 마음에 속속들이 스며들었다. 물론 이러한 말 연구의 눈은 있을 법한 다른 눈보다도 훨씬 설득력 있는 객관성을 띤다. 외솔 선생을 영원히 기리는 표상에 이러한 언어관의 말씀을 밝힘글(명문)로 아로새김도 그 까닭이다.

**외솔의 말의 본질론은 ‘말의 힘’에서 비롯한다. : “말씨는 겨레의 표현이요, 또 그 생명이요, 힘이다(《우리말 존중의 근본 뜻》, 1951).”**

이것은 ‘말의 힘’의 본질을 밝힌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말씨가 움직이는 곳에 겨레가 움직이니, 말씨가 일어나는 곳에 겨레가 일어나고, 말씨가 시드는 곳에 겨레가 시든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오늘 우리는, 저 많은 누리 말들(5천~6천 사이)이 힘 있는 말에 밀려 점점 없어져 감으로써(2주일에 1개꼴) 그에 담긴 다양한 누리 문화가 나라와 함께 운명을 달리함을 ‘말의 힘’의 논리(긍정과 부정의 기능)로 이해한다. 여기에서 다양한 인류 문화의 이상은 점점 시들어가는 현상을 본다. 지난 날, 아니 오늘날까지도 겨레 다툼이 말씨 다툼으로 나타나는 사실을 우리는 눈 바로 뜨고 보아야 한다. 외솔 선생은, 일찍이 말의 본질 곧 말의 힘에 대하여 직접 강의나 글을 통하여 제자들뿐 아니라 그 밖의 많은 이들에게 큰 깨침을 주었다. ‘말의 힘’, 이것은 외솔에게서 깨치는 말 철학의 보편 진리이다.

외솔 선생은, 말의 힘 철학 아래 겨레말의 창조적 합리주의 순화론을 세운다: “사람이 말을 만들었음이 사실인 동시에 말이 도로 사람을 만듦도 또한 사실인 것 같이, 겨레가 겨레말을 만듦이 사실인 동시에 겨레말이 도로 겨레를 만듦이 또한 사실이다(《우리말 존중의 근본 뜻》, 1951).”

이것은 첫째, 외솔의 창조적 합리주의 철학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둘째, 이는 또한 말의 힘 철학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다. 창조와 말의 힘 사상은 외솔로 하여금 ‘국어 순화’의 실천으로 나타난다. 국어 순화는, 우리 역사의 과정에서 그릇되게 물든 말과, 현실 사회에서 제멋대로 들은말이나 바람직하지 못한 말의 잡초들을 쏙아 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을 심는 등 말을 깨끗하게 다듬질하는 것이다. 순화의 사상은, 말에 인위적인 손을 대어서는 안 되며 있는 그대로 두라는 말의 ‘자연주의’와는 대립하는 ‘창조주의’ 철학과 말의 힘의 드러냄이다. 다시 말하면, 말의 순화는 말의 힘을 전제로 하고, 그 힘이 올바른 얼 문화 창조 쪽으로 힘쓰도록, 사람에게 본디 주어진 새로움의 창의 능력을 발휘하는 언어관(홈볼트나 주시경 선생과 같은 언어관)의 실천이니, 그것은 이른바 ‘말 다듬기’이다. 외솔 선생의 말 다듬기는 그 이론적 근거와 실천 방법에 물샐틈없다(《우리말 존중의 근본 뜻》). 일찍이 말 다듬기의 한 보기로 글쓴이의 학교의 으뜸길 계단에 새긴 ‘겨레(민족)(1926)’를 들 수 있고, 흐름의 풀림으로 보면, 그것은 광복 뒤, 이 학교의 신문을 비롯한 모든 학교의 신문, 아니 오늘날 못 언론 매체를 포함한 모든 말글 살이에 도도히 흘러가고 있다.

외솔 선생은 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치를 깨우쳐 준다: “오른쪽으로 굽어진 나무는 왼쪽으로 한껏 굽혀 놓아야 바로 서는 법이다.”

그릇됨을 바로 고치는 데는, 이 ‘자연 현상의 원리’를 터득하라는 것

이다. 또한 “아편 중독환자를 고치는 방법은 아편을 조금씩 줄여 주는 것보다는 큰 고통이 얼마간 있더라도 그것을 곧바로 끊어야 한다.”는 ‘병리학의 원리’를 깨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새로움을 좇아 구하는 철저한 의식 변화의 필요성을 힘주어 말한 것이다. 역사와 현실이 분별 없이 안겨 준 말글의 습관에 젖은 중독 현상을 고치는 방법도 위의 두 원리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유고 《한글만 쓰기의 주장》, 1970). 위의 두 가지 원리의 적용에 뒤따르는 말글 고침의 베풀(시술)에서, 외솔은 늘 다음과 같은 말의 창조와 죽살이 현상을 깨우쳐 준다. “가령, 말글을 새롭게 다듬되 다섯 개를 다듬으면 두 개쯤은 죽더라도 세 개쯤은 살아남는다. 그러나 백 개를 다듬으면 여든 개쯤은 살아남고, 스무 개쯤은 죽는다.” 여기에는, 우리가 부리는 말을 창조하는 수의 생산 효과를 계량의 이치로 깨우쳐 주는 참뜻이 들어 있다.

**한글에 대한 외솔 선생의 인식은 우리에게 한글에 대한 긍지와 신념으로 영원히 기억된다. : “한글은 우리 배달겨레의 정신문화의 최대의 산물이며, 세계 온 인류의 공탑이다(《한글의 투쟁》, 1954, 머리말).”**

외솔 선생은 한글은 바로 우리의 목숨이라고도 인식한다. “한글이 목숨(아리랑 연합회가 2010년에 발견한 ‘옛 방명록’, 1932)”이라고 쓴 것은 이를 인식한 증거이다. 외솔 선생의 이와 같은 신념은 우리에게, 한글은 우리의 정신 무기요, 이를 사랑하고 부리는 데에만 우리의 생명이 뛰놀며, 희망이 솟아나며, 행복이 약속됨을 깨우쳐 준다. 목숨으로 상징되는 한글이 겨레 문화와 세계 문화에 끼칠 공헌을 일찌감치 내다본 듯, 외솔 선생은 혹독한 감옥 안에서 연구한 ‘한글 풀어쓰기의 육중 안’을 몰래 속옷에 간직하다가 광복을 맞이하자 그것을 《글자의 혁명》(1947)으로 펴냈다. 이는 사람의 몸의 구조와 움직임(두 눈의 자리 구조와 눈의 주된 움직임 방향)을 지배하는 과학적인 두뇌 활동과, ‘착각의 원리’(같은 길이라도 세로는 가로보다 7분의 1이 길게 보이는 착각)를 들어, 이에

합리적인 ‘가로 풀어쓰기’를 창안한 것이다. 한글의 ‘가로쓰기’와, 한글의 ‘기계화’와, 나아가서 우리의 세로 문화에서 ‘가로 문화 이룸’의 기틀은 이로부터 비롯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글의 과학화뿐 아니라 인류에게 이바지하는 보람의 가치를 펴 나가는 세계화의 이상을 미리 꿰뚫어 내다본 외솔 사상의 속뜻을 읽을 수 있다.

외솔 선생은 한글학회의 일을 보시던 때 ‘한글 기계화 연구소’를 만들고, 공병우 박사가 한글 타자기를 만들에, 이미 조사 연구한 ‘한글의 낱낱의 쓰이는 변수(《조선어문 연구》, 연희전문학교 문과 연구집 제1집, 1930)’를 비롯한 한글의 이치를 깨우쳐 주는 등, 이미 ‘인문·자연과학의 협동’의 길을 열어 놓기도 했다. 물론 외솔의 강의나 학문의 바탕에는 이미 연역법이나 귀납법의 방법을 두루 쓰면서 논증하는 과정에서, 철학이나, 논리학이나, 사회학이나, 심리학 등 다양한 이웃 분야를 동원함으로써 학문 간의 엄격한 경계를 허물고 서로 융합·협동하는 길을 열어 놓았다.

**외솔 선생은 “투쟁은 만물의 어머니”라고 한다.**

이는 인류 문화의 발전은 투쟁 가운데서 온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외솔 선생은 한글의 발전도 투쟁사의 하나로 본다. 그러므로 한글의 발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만나야 하는 외솔 선생의 《한글의 투쟁》은 늘 치밀한 논증으로 무장한다. 합리적 논증 없는 주장은 허공의 메아리로 사라진다는 것이다. 《한글의 투쟁》은 그것의 전형적인 논증의 결정체이다.

**외솔 선생의 교육 원리의 기본 핵은 ‘자유’이다. : “자유에서 직관의 힘과 창의의 힘이 열린다.”**

자유로움에서 개성이 자라고 창의의 문이 열린다고 보는 외솔 선생의 교육 철학의 원리는 첫째, 있는 곳이 바로 배움의 곳(마당)이라고

보는 것이다. 가령, 학교, 사회가 모두 교육의 마당이라고 본다. 그러기에 문과대학장 시절 외솔 선생은 등록금 연기 원서를 써 가지고 온 학생을 앞에 놓고, 연기 원서의 네모 종이 안에 글월이 자리 잡아야 할 균형에서 비롯하여 그 글 표현의 알맞음을 살폈고, 때로는 어느 것이 더 좋은 표현일까를 서로 상의도 하는 한편, 대화 과정에서 학생의 말 쓰임에 바르지 못함이 있으면 바로 고쳐 주기도 한다. 그러다가 많은 학생들이 연기 원서 내는 시간을 놓치면 직권으로 연기 원서를 내는 날을 늦춰 주는 일도 생긴다. 외솔 선생의 교육 철학 원리의 둘째는, 인식의 근원은 자아이니, 사람은 제 스스로의 소산이며, 영원성의 자기 창조의 있음(존재)이라는 것이다. 곧 외솔 선생은 교육의 원리를 ‘자발성’에 둔다. 강의 시간에는 짐짓 외솔 선생 자신의 주장에 대해 학생으로 하여금 반론을 펴 보라고 한다. 또한 자유로운 야외 학습도 마다하지 않는다. 모두 학생들의 창의와 합리적인 논리의 힘과 자발성을 이끌어 내는 ‘직관의 힘’을 키우려는 것이다. 외솔 선생은 부총장 일을 볼 때 신입생의 무시험 제도를 만들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이고, 자유와 개성을 존중하고 창의성을 개발하려는 외솔 교육 철학의 실현이다. 위와 같은 교육 원리는 페스탈로치의 교육 사상과 일치하는 바가 있다(외솔의 논문 <페스탈로치의 교육 사상>, 1927).

**외솔 선생의 온 삶의 핵은 나라 사랑이다.:** “나라의 이익은 곧 개인의 이익이 된다.’는 참이지만, 거꾸로 ‘개인의 이익은 곧 나라의 이익이 된다.’는 반드시 참은 아니다(《나라 사랑의 길》, 1958).”

이는, 나라의 이익은 필연적으로 개인의 이익에 연결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개인의 이익은 나라의 이익으로 반드시 연결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이치에서 나라 사랑은 먼저 나라의 이익에서 싹튼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외솔 선생은 ‘나라 사랑’의 개념에 대하여 말한다. “나라 사랑이란, 어려울 때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일이요, 보통 때는 신변의 작은 일, 작은 사물에 대한 사랑, 자기가 있는 곳의 일에 충실함, 바로 그것이다(《나라 사랑의 길》, 《나라 건지는 교육》들에 녹아 있음).”라고.

생각건대, 외솔 선생의 모든 금과 같은 말씀과 그 실천은 모두 나라 사랑의 핵에서 생성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외솔 선생의 모든 금과 같은 말씀과 그 실천은 모두 마침내는 ‘나라 사랑’의 사상으로 돌아가는(귀결되는) 것이다.

외솔 선생의 ‘외솔’은, ‘온 천지가 흰 눈으로 문혔을 때도 홀로 푸른 소나무가 되리라(백설이 만견곤할 제 독야청청하리라)’에서 따온 뜻 깊은 상징의 아호이다. 외솔 상징의 뜻을 깊이 품고 있는 ‘외솔 최현배’ 선생은 진리의 석학이요, 정의에 불타는 올곧은 나라 사랑의 선각자이다. 외솔 선생은 공과 사가 분명하여, 문교부 편수국 행정이나 학교 행정이나 교수 생활에 이르기까지 종이 한 장도 공과 사사로움을 가리어 쓰셨으니, 그 나머지 일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한편 외솔 선생은 다정한 스승이시기도 하셨다. 제자들의 건강까지도 챙기시고, 그들의 앞길을 열어 줌에 정성을 쏟으셨다. 그리고 모든 청년에게는 다음과 같이 일러 당부하신다. “불은 어두움을 쫓고, 소금은 썩음을 막느니, 그대들은 불과 소금이 되어 …… 이 나라를 밝히고, …… 이 나라를 깨끗이 하라. 오늘의 한배나라는 촛불로 타는 청년을 부르며, 소금으로 짠 젊은이를 기다린다(《나라 사랑의 길》에서).”



---

## ‘탐정’과 ‘탐정 소설 취미’의 탄생

김지영 · 대구가톨릭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

### 1

탐정 소설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것이 사립 탐정이다. 셜록 홈스, 엘르퀼 푸아로, 미스 마플, 제시카 플레처, 소년 탐정 김전일 등등 우리는 소설, 영화, 만화, 드라마에서 명탐정으로 이름난 인물들을 자주 접한다. 그러나 그 많은 이름 가운데 한국인은 떠오르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의 감각으론 한국에서 탐정 소설은 상대적으로 미발달된 장르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현대의 예상과 달리 식민지 시대 대중문화 시장에서 탐정 소설은 적지 않은 인기를 끌었다. 1920년대에 이미 아르센 뤼팽, 셜록 홈스 이야기가 앞다투어 번역되었고, 염상섭, 채만식 등 이름난 작가들이 탐정 소설을 번역, 창작했으며, 김내성과 같은 전문 탐정 소설 작가가 활발히 활동했다. 조선 시대까지도 ‘정탐/탐정’이란 말이 남의 뒤를 캐는 일, 정치적 스파이 활동과 같은 부정적 의미로 쓰였던 사정을 고려한다면 탐정 소설의 유행은 자못 커다란 변화임에 틀림없다. 한국에서 ‘탐정’이라는 말은 언제부터 지금과 같은 전문 수사자를 가리키는 의미로 쓰이기 시작했을까. 또 남의 뒤를 엿탐하는 일을 가리켰던 ‘정탐’ 행위가 대중적 취미 문화로 성장한 것은 어떤 연유에

서였을까. ‘정탐’, ‘탐정’이라는 말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자.

## 2

‘점치다, 묻다, 몰래 살피고 헤아리다’라는 의미의 한자 ‘偵(정)’과 ‘찾다, 구하다’라는 의미의 한자 ‘探(탐)’을 결합한 어휘 ‘정탐’, ‘탐정’은 ‘몰래 살피다, 비밀스럽게 조사하다’라는 의미로 오래전부터 사용되었다. 조선 시대의 기록들에서 ‘정탐’, ‘탐정’은 “왜선의 정향과 왜인의 동향을 정탐하다(《일성록》, 정조 즉위년 10월).”, “적군이 최영의 명성을 정탐해 알아내고 최영의 군대만 부수면 서울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조선왕조실록》, 태조 총서).”라는 식으로 정치·군사적 활동과 관련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았으며, ‘탐정’보다는 ‘정탐’이 압도적으로 자주 쓰였다. 그러나 19세기 말에 발간된 어휘 사전 《한불자전》(1880), 《한영자전》(1897)에는 ‘탐정’도, ‘정탐’도 수록되지 않았으며, 《독립신문》, 개화기 잡지, 신소설 등에서도 ‘정탐/탐정’보다는 ‘탐지’, ‘탐문’이 많이 쓰였다. 대중 미디어나 개인사적 저작보다 실록과 관청의 역사 기록 및 관직 수행의 기록에서 그 용례가 자주 발견된다는 것은 ‘정탐’과 ‘탐정’이 관청의 권위와 자주 연계되어 쓰였음을 의미한다.

‘정탐/탐정’이라는 말이 공권력과 연계되고 정치·군사적 성격으로 쓰이는 일은 1920년대까지도 계속된다. ‘열국 탐정술의 발달(1921. 7. 22.)’, ‘정치 탐정 수감(1926. 1. 11.)’, ‘중국 정탐국 비밀문서 제시(1928. 2. 4.)’, ‘모국인과 연락한 군사 정탐을 체포(1928. 3. 22.)’, ‘밀탐정을 살해한 정의부원의 공판(1928. 11. 10.)’, ‘나남사에서 군사 탐정 피착(1929. 10. 21.)’ 등등의 《조선일보》 머리기사에서 보듯 ‘정탐’, ‘탐정’이라는 말은 스파이, 밀사, 군대 정찰병 등을 지칭하는 데 주로 쓰였고, 국가적·

군사적 기밀을 캐는 행위와 행위자를 지칭하는 데 쓰였던 만큼 윤리적  
으로 좋은 어감을 주는 말이 아니었다.

이처럼 정치, 군사, 치안 행정 등 국가적 차원의 문제를 보도하는 데  
사용되던 ‘탐정/정탐’이라는 용어가 개인 생활의 영역에도 나타나기 시  
작한 것은 1920년대 중·후반이다. 그 수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때  
부터 신문에 사설탐정 기관에 대한 기사가 나타나고, ‘기괴한 사설 정  
탐 일반 피해 대대(多大), 부호 자제와 과부 위협, 조선의 처음인 정탐  
범죄(《조선일보》, 1929. 3. 13.)’ 등의 머리기사에서와 같이 사적인 ‘정  
탐/탐정’의 문제를 다루는 기사가 실리게 되는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사적인 문제나 일반 대중의 삶과 관련된 문제를 다룬  
신문 기사가 머리기사에서 ‘탐정’이라는 어휘를 채택한 경우는 대부분  
‘탐정 소설 같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탐정 소설 가튼 고  
녀(雇女) 교살 사건(《동아일보》, 1931. 8. 4.)’, ‘은행가 애녀의 참살 시  
의 두족! (중략) 탐정 소설 같은 범죄 사실(《조선일보》, 1929. 3. 13.)’  
등의 기사에서처럼 ‘탐정 소설 같은’이라는 말로 벌어진 일의 선정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머리기사는 1920년대 후반부터 등장하여 1930년대 신  
문에서는 상당히 보편화된다. 이는 이 시기 처음 등장했던 ‘탐정 소설’  
이 개인 생활을 ‘탐정/정탐’ 행위와 접촉하여 사유하는 사고를 일반화  
시키고, ‘탐정/정탐’이라는 어휘를 교묘하고 충격적인 범죄에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는 기호로 환치시키고 있었음을 알려 준다.

실제로 ‘탐정 소설’이라는 말은 1918년 《태서문예신보》에 ‘탐정 괴담’  
이라는 표제로 코넨 도일의 소설 〈충복〉이 번역된 이래, 정탐 소설 《박  
취우산》(1920), 기괴 탐정 소설 《813》(1921), 탐정 소설 《귀신탐》(1924  
~1925), 탐정 소설 《최후의 승리》(1928) 등이 신문에 연재되면서 점점  
일반화된다. 1930년대에 이르러 ‘탐정’이라는 어휘가 ‘탐정적 흥미’, ‘탐  
정 취미’와 같이 재미를 찾는 대중의 기호를 이끌어 내는 표현이 되는  
것은 이처럼 탐정 소설이 유행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탐정 소설’은

‘탐정/정탐’을 일상적인 흥미의 대상으로 전환시키는 동시에, 그 자체가 끊임없는 자극과 재미를 요구하는 대중에게 새로운 ‘취미’를 제공하는 취미 기호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 3

탐정 소설이라는 장르가 등장하면서 쓰이게 된 ‘탐정’이라는 말은 이전의 ‘정탐/탐정’과 확실히 달랐다. 서구 탐정 소설의 도입 이전에도 《쌍옥적》, 《도리원》, 《과도상선》 등 ‘정탐 소설’로 명명되었던 신소설이 존재했다. 그러나 이 소설들에서 ‘정탐’이란 명칭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경찰이 탐사 행위를 위해 고용하는 하수인’이었으며, 이들의 정탐 행위란 엿듣기, 뒤쫓기, 육감으로 짐작하기에 지나지 않았다. 탐정 소설의 ‘탐정’이 정탐 소설의 ‘정탐’과 다른 것은 무엇보다도 신체와 감각에 의존하는 ‘정탐’ 행위와 뚜렷이 구분되는 과학적 조사와 논리적 추리 때문이었다. ‘탐정’이라는 명칭을 최초로 장르명에 앞세웠던 <충북>의 탐정 듀뢰장은 전문 사설 수사관으로 한국 소설사에서 전문적인 과학 수사의 탄생을 보여 주는 인물이다. 이 소설에서 듀뢰장이 해결하는 사건은 살인이나 치안 사건과 같이 공권력이 동원되는 사건이 아니라 학교의 시험지 도난이라는 사적인 사건이다. 사건의 성격이 사소한 만큼 이 소설은 모험적 탐사보다 주인공 탐정의 과학적 조사 방식과 논리적 추리에 초점을 맞춘다. 듀뢰장 탐정은 도난 사건이 발생한 현장의 검증을 통해 범인의 특징을 파악하고, 용의자인 세 학생의 용모, 성격, 태도를 조사한 후 양자의 연관 관계를 이론적으로 추론함으로써 범인을 찾아낸다. 행동보다는 추론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해석하는 듀뢰장의 조사 방식은 육감과 우연, 모험적 추적 행위로 구성되는 ‘정탐 소설’의 조사 방식과 뚜렷이 구분된다. 정탐 소설의 조사 방식이 신체적, 감각적

인 것이었다면, <충북>의 조사 방식은 다분히 논리적이고 과학적이다. 듀뢰장과 같은 근대적 '명탐정'의 등장은 이처럼 '탐정'이 내포하는 수사 방식의 획기적 전환 속에서 이루어졌다. <충북>의 장르 표제로 제시된 '탐정'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추론을 바탕으로 한 조사 행위를 가리키는 동시에, 그와 같은 조사 행위의 주체인 근대적 '탐정'의 등장을 알리는 어휘였던 것이다.

#### 4

그렇다면 이 근대적 수사 주체 '탐정'은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1910년대의 《지환당》, 《도리원》에서부터 1920~1930년대의 《박쥐우산》(1920), <검은 그림자>(1920), <혈가사>(1926), 《겉쇠》(1929~1930), <사형수>(1931), <배암 먹는 살인마>(1934), 《수평선을 넘어서》(1934) 등에 이르기까지 식민지 시대 탐정(정탐) 소설의 수사 주체는 경무국에 소속되어 있는 형사, 순사, 서장, 순사보들이다. 특히 1920년대까지의 작품들은 대체로 이들 경무국 소속 경찰들을 직접 '탐정/정탐'으로 표기하면서 서사를 진행한다. 《염마》, <질투하는 악마> 등 개인 탐정을 내세운 소수의 소설들에서도 주인공 탐정이 경찰과 대립하기보다는 조력하는 입장에서 있다. 본질적으로 식민지 조선에서 근대적 조사 행위의 주체인 '탐정'은 설록 홈스나 엘르퀼 푸아로와 같이 공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탐사 주체가 아니었다. 탐정 행위의 본원적인 자격은 일차적으로 '전문 수사자'로서 식민지 경찰에 주어져 있었다. 그렇다는 것은 '탐정 소설 취미'가 대중적 유행어로 등장한 식민지 중반에도 행위나 행위자로서의 '탐정'의 의미가 '첩보, 치안'의 의미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수사 행위와 일체 공권력의 관련성은 식민지 시대 '탐정'이라는 어휘 안에 내재한 근본적 딜레마의 하나였다.

탐정과 공권력의 밀착 관계라는 딜레마에도 불구하고 탐정 소설이 식민지 한국에서 쉽게 인기를 끌었던 것은 이 시대의 지배적 이념이었던 계몽의 논리와 무관하지 않다. 정밀한 생각과 날카로운 관찰로 일반인들이 간과하기 쉬운 미세한 사실로부터 진실을 파악해 내는 과학적 태도는 근대 계몽기부터 끊임없이 강조되어 왔던 계몽 운동의 한 지표였다.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동시에 심리적’<sup>1)</sup>인 장르로서 탐정 소설은 ‘교수, 정치가, 과학자, 문인 등등 타 종류의 통속 소설을 읽는 것을 큰 수치로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매력을 느끼’<sup>2)</sup>는 고급 장르였다. ‘탐정 소설을 쓰려면 심리학, 법의학, 범죄학 등은 물론 철학, 과학, 사학, 천문학, 정치, 예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방면에 어느 정도의 수련이 있어야’<sup>3)</sup> 한다는 생각은 지식에 대한 욕망을 자극하는 유혹적인 기제였다. 풍부한 과학적 지식의 습득과 이 지식의 합리적인 실천이라는 계몽 이념의 토대 위에서 탐정 소설 취미는 저급 통속 독물과 구별되는 고급한 근대 취향을 뚜렷이 표방하고 있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시의 과학 지식수준은 이 같은 탐정 소설 취미를 충분히 뒷받침해 주기 어려웠다는 사실이다. 식민지 조선의 과학 지식수준은 그리 높지 못했다. 일제의 우민화 정책에 의해 보통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실생활에 필요한 만큼의 매우 기초적인 과학 지식만 교육했고, 경성제국대학, 보성전문학교 등 대학과 전문학교에서도 자연 과학 분야의 전공 학부는 드물었다. 직접적인 실험을 통해 과학적 원리들을 논리적, 실증적으로 익힐 수 있는 교육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

1) 김영석(1931), 《포오와 탐정 문학》, 조성면 편(1997), 《한국 근대 대중 소설 비평론》, 태학사, 120.

2) 안희남, 탐정 소설론, 《조선일보》 1937년 7월 13일 자.

3) 안희남, 탐정 소설론, 《조선일보》 1937년 7월 14일 자.

에서 과학적 지식들은 ‘과정’이 생략된 채 ‘결과’로만 전달되었고, 그런 만큼 과학의 이름에 값히는 논리적 구조를 통해 이해되기보다는 진기한 이야기로 소비되는 경향이 강했다. 빛, 열, 화학 원소, 전기, 에너지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존재를 전제하고 그것들의 상호 작용과 역학 관계를 다루는 과학이란 그 과정이 증명되고 실험되고 이해되기 이전에는 차라리 미술에 가까웠다.

이처럼 현실 과학의 수준이 현저히 낮은 상태에서 최첨단 과학 수사를 추구할 때, 탐정 소설은 합리적인 추리 과정의 전개에 성공하기 어려웠다. 일례로 당시 창작 탐정 소설 게재에 앞장섰던 인기 잡지 《별건곤》의 작품들에서 사건 해결의 단서는 대부분 논리적 추론보다는 우연에 의거하는 경우가 많았다.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가 이발소에서 청년들이 중얼거리는 말을 ‘엿듣고’ 범인을 알아내게 된다거나(《순아 참살 사건》), 살인 혐의를 받는 누님의 구명 운동에 애쓰던 청년이 명확한 조사나 추리 과정 없이 갑자기 자신이 캐낸 사건의 전말을 편지로 담아 경찰서에 보낸다는 이야기(《질투하는 악마》)에서 우리는 합리적인 추리 과정을 확인할 수 없다. 살인 사건이 있고 사건의 해결이 있지만, 그 과정에 주어져야 할 추리는 생략되거나 비약적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이 시기 탐정 소설에서 과학성은 논리적 수사나 추리보다는 사건(혹은 해결)의 진기성을 도드라지게 부각시키는 이야기 재료의 차원에서 동원되었다. 주입 후 2시간 후에야 독성이 발효되는 독물 ‘크라노테’(《질투하는 악마》), 사체의 동공에서 마지막 본 자의 인상을 찍어 내는 사진술(《K박사의 명안》), 의수·의족 제조 기술(《기차에서 만난 사람》), 지문 감식법(《누가 죽였느냐!》, 《염마》), 사체 검시법(《질투하는 악마》), 기차의 운행 시간과 커브를 틀어 화물을 떨어뜨리는 지점에 대한 사전 검증(《약혼녀의 악마성》), 이중인격(《미모와 날조》), 변장술(《염마》) 등 식민지 시기 창작 추리 소설에 동원된 의학, 과학 기술은 여간 화려한 게 아니다. 창작에 동원된 과학 기술 가운데는 인간

의 동공에 비친 영상을 사진으로 현상하는 사진술이나, 지문이 찍힌 순서 감별, 짚 인형 실험을 통한 시체 처리 방법 추적 등 합리성을 위반하는 요소들도 적지 않았으나 그런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이 화려한 기술들이 사건의 재미를 증폭시키는 소재로서, 합리적 추리의 단서가 되거나 아니거나 간에, 이야기의 묘미를 살리는 요소로 쓰인다는 사실이었다. 때문에 진기한 사건의 전모와 교묘한 속임수들은 논리적 추리를 통해 형상적으로 그려지지 못하고 인물의 생각이나 길고 긴 고백을 통해 설명적으로 전달되곤 했다.

추리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부각되었던 것은 처참하고 끔찍한 살인의 결과, 희생자의 무구한 육체, 범인의 잔인무도하고 악마적인 성격 등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소재들이었다. <질투하는 악마>(최유범, 1933), <약혼녀의 악마성>(최유범, 1934), <배암 먹는 살인마>(양유신, 1934), <염마>(채만식, 1934), <악마의 루>(세창서관, 1936) 등의 제목에서 드러나는 것과 같이 태동기 한국 탐정 소설들은 범인의 잔인하고 악마적인 성격을 표제로 앞세웠다. 살인자의 파괴적이고 마성적 성격은 냉혹하고 방약무인한 태도(<염마>, <마인>), 태연자약한 살인 행위(<K박사의 명안>, <염마>), 이중성격과 같은 광기 어린 사고방식(<미모와 날조>, <염마>, <광상 시인>, <백사도>), 교묘한 범행 계획(<연애와 복수>, <질투하는 악마>, <약혼녀의 악마성>) 등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에 의해 살해된 희생자의 시체는 잔혹할 만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그려졌다.

그리하여 식민지 시기 한국 탐정 소설은 과학 수사와 논리적 추리라는 '탐정'의 새로운 의미를 앞세우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잔혹하고 끔찍한 대상이나 광적이고 악마적인 심리, 섬뜩하고 신비한 분위기를 저변으로 하는 '괴기'적 성격으로 치닫는다. 과학적 추리와 비과학적 괴기의 결합은 식민지 시기 한국 탐정 소설이 다른 어떤 장르와도 또렷이 구분되는 변별적인 특징이다. 과학적 '탐정'과 충분히 과학적일 수 없었던 '탐

정 소설 취미'의 이율배반적 접속은 한국 탐정 소설의 특징이자, '탐정'이라는 말의 역사가 함축하고 있는 독특한 한국적 기억의 하나일 것이다.

## 참고 문헌

김지영(2011), '탐정', '기괴' 개념을 통해 본 탐정 소설의 형성 과정, 《대중 서사 장르의 모든 것 3: 추리물》, 이론과 실천.



---

## 한없이 여린 사랑

유준 · 문학 평론가, 서울예술대학 강사

---

'한없이 여린'을 찾고 있다  
폭염과 혹한 그 너머에 있는  
'한없이 여린'을 찾고 있다

살은 밀랍, 팔뚝은  
자동 쇠파닥인 현대,  
기이하게 눈을 깜박거리며 미소 짓는 현대,  
현대라는 이 모조 인형 앞에서,

무수한 화폐들과 깃발들 그 너머에서  
어떤 '한없이 여린'을 찾고 있다

먼, 너무도 먼, 너무도 멀어  
맥이 닿지도 않는  
어떤 始源으로부터 나오는  
'한없이 여린'을

- 최승자, 〈한없이 여린〉<sup>1)</sup>

---

1) 최승자(2011), 《물 위에 찍어진》, 천년의 시각, 48.

요즘 누가 시를 읽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해 본다. 궁금해서가 아니라 의아해서.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하자면 ‘도대체’ 요즘 누가 시(라는 아무 짝에도 쓸 데가 없는 것)를 읽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는 것이다. 시를 읽고, 그것에 대해 비평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기까지 하는 입장에서 내가 언제부터, 도대체 왜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하는지는 나 역시 명확히 알 수 없다.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알 수 없는 상태로 주어지는 질문이기에,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알 수 있는 상태로 답변하는 게 애초에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명확히 알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그 질문은 항상 슬픔의 형태로 주어진다는 것이다. 그런 질문을 던진다는 게 애처롭고 슬프다.

가령 요즘 누가 돈을 벌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누가 ‘잘’, ‘많이’ 벌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 사람들이야 많겠지만. 그럼 돈벌이에 대한 질문과 시 읽기에 대한 질문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의 대양이 펼쳐져 있는 것일까? 돈을 버는 이유는 먹고 살아 가며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돈 버는 사람들이 먹고 살아 가고 생활에 불편함이 전혀 없음에도 끝없이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아마도 자신의 존재의 긍정성을 인정받고, 바로 그 긍정적 존재로서의 자신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이기도 할 것이다. 사치품의 역사가 상처받은 내면의 기록이라고 누군가가 적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상처받은 존재들이 그 상처에 바르는 연고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사치품이나 돈 같은 것들이 말이다. 시를 읽는 사람들의 심리도 크게 다르진 않으리라. 그들이 시를 읽으면서 하고 있는 말은, ‘나 여기 있어요!’인지도 모른다. 살아가면서 패고, 차이고, 덧난 존재들이 찾는 상비약 같은 거라고나 할까. 내면의 공허와 슬픔을 달래기 위해 한쪽은 백화점을 찾고, 한쪽은 서점을 찾는 차이가 있을 뿐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결정적 차이 역시 존재하는데, 백화점을 찾는 자들이 강함의 동참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외치려

한다면, 서점을 찾고 시집을 펼쳐 드는 자들, 누추한 불빛 아래서 여백 가득한 종이 위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고 있는 자들은 약함의 영접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나지막이 긍정한다는 점이 바로 그 차이리라. 체제가 껌빡한 자들, 체제를 껌빡하고픈 자들의 성전 같은 것 아닐까, 시가 말이다. 시 쓰기와 시 읽기가 말이다.

시인, 연인, 광인을 한통속으로 묶은 것은 세익스피어였다. 500년 전의 이 말은 아직도 유효한데, 그들은 체제의 요구로부터 두어 걸음쯤 비켜서 있다는 점에서도 한통속이다. 합리적 이해득실은 그들을 전혀 움직이지 못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공간을 채우지도 못하고, 공간을 가득 채운 자들의 공동체로부터도 업신여김을 당하지만, 그들은 그 업신여김을 업신여김으로써 그들만의 윤리를 새로 쓴다.

세상은 늘 '폭염'이거나 '혹한'이다. 그것은 '화폐들' 때문이기도 하고, '깃발들' 때문이기도 하다. 즉 '한없이 션' 것들 때문이기도 하고, 그것들을 거느린 '한없이 션' 자들 때문이기도 하며, 그 구조의 세고 강함 때문이기도 하다. 션(강함)이 존중하는 것은 '더 션(강함)'이다. 그들은 여림(약함)의 주머니를 털어 더 강함에게 경배하며 헌화(獻貨)한다. 이 과정에서 여리고 약한 것들, 여리고 약한 자들, 여리고 약함의 시간들은 송두리째 무시된다. 그(것)들이 유용한 착취와 지배의 대상으로 떠오를 때만 제외하고 말이다. 적자생존에서의 적자는 오로지 세고 강한 자라고 저들은 말한다. 약하고 여린 자는 도태되어야 하고, 도태되어야만 한다고도 말한다. 이러한 논리가 정치적으로 극단화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를 여기 다시 적는 일은 사족이 될 터이다. 그런데 그런 일은 시공간을 막론하고 편재(遍在)한다.

시를 쓰고, 시를 읽는 일, 그것은 이 편재에 균열을 내는 흐느낌일 수 있다. 시인이 "'한없이 여린'을 찾고 있다/폭염과 혹한 그 너머에 있는/한없이 여린'을 찾고 있다"라고 적을 때, 그는 이 흐느낌을 적고 있는 것이다. 폭염과 혹한이 열사(熱死)시키고 동사(凍死)시켜 버린 어떤

인간적 온화함 같은 것들을 찾고 있는 것이다. 도무지 인간미라고는 발견할 수 없는 ‘모조’의 세계, ‘밀랍’과 ‘쇠팔뚝’으로 무장한 채 ‘기이하게 눈을 깜박거리며 미소 짓는’ 비인간적 모조의 세계에 가장 잘 적응하는 자들은 당연히 ‘모조 인형’ 같은 자들이다. 그곳에서는 오히려 진짜 인간의 살과 피를 갖고 있고, 인간의 웃음을 짓는 자들이 ‘모조’로 치부된다. ‘모조 인형’들이 ‘진짜 인간(적인 것)’을 오히려 ‘모조’라고 하며 하대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화폐’와 ‘깃발들’이 있기 때문이다. 화폐와 깃발의 공통점은 그 아래 사람들이 모인다는 데에 있다. 이 모임에서 강함은 추종되고, 약함은 축출되며, 집단의 열기 앞에서 개체의 온기는 식어 버리고 만다. 그런 점에서 화폐와 깃발은 경제 권력과 정치권력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좀 더 너른 맥락에서 개인의 내밀한 인간적 가치의 보존을 허락하지 않는 집단적이고 추상적인 이데올로기의 체계들이라고 보아도 좋겠다. 이런 점에서 체코 출신의 소설가 밀란 쿤데라가 “예술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의 비개인성에 대한 복수”라고 한 말은 더없이 적절하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과정에서 경제·정치 권력의 전횡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흐리멍덩해져서는 안 될 일이다. 그것은 그것대로 인식하되, 좀 더 너른 맥락에서의 고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교환을 통해 부를 획득하는 시스템은 타자의 희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부도덕하다고 말했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나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들도 같은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그들은 교환이라는 시스템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했고, 또 한쪽은 그 긍정적 가치까지 인정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타자의 희생을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흔히 시장주의자들이 전가의 보도로 활용해 먹는 애덤 스미스도 같은 자리에 서 있다. 그는 《국부론》의 저자이기도 하지만, 《도덕 감정론》의 저자이기도 하다. 전자는 한 번 쓰고 말았지만, 후자는 죽을 때까지 내내 수정, 증보를 거듭했다. 그는 부에 대한

승상이 지나치면 덕에 대한 존중을 앞지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회 윤리가 손상된다고 말했다. 바로 이것, 즉 덕보다 부를 앞세우는 것이 《도덕 감정론》을 읽지 않고 《국부론》만을 읽은 자들의 오류이며, 그마저도 제대로 읽지 않은 자들의 오류이다. 애덤 스미스는 세상의 존경과 감탄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크게 두 가지로 보았다. 하나는 ‘미덕에 이르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재산에 이르는 길’이다. 스미스가 이들 중 어디에 가치를 두었는지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전자는 시장을 호혜의 장소로 이해하고, 후자는 오로지 경쟁의 장소로만 이해한다. 세상이 폭염과 혹한으로 가득 차고 모조품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은 미덕 대신 재산을, 호혜 대신 경쟁을 삶의 유일한 원리로 삼는 방식을 우리가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부 대신 미덕에 이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무엇일까?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selfish)인 존재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천성 속에는 명백히 이와 다른 몇 가지 특성들이 존재한다. 이 천성으로 인하여 인간은 타인의 운명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단지 그것을 바라보는 즐거움 외에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행복을 바란다. 연민(pity)과 동정심(compassion)이 바로 이런 종류의 천성에 속하는 감정으로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거나 또는 그것을 아주 생생하게 느낄 때 우리가 인지하게 되는 그런 종류의 감정이다.<sup>2)</sup>

연민과 동정심이야말로 스미스식 도덕 감정의 근원이다. 그것은 이기심을 제어하게 하고 타자를 발견하게 한다. 애덤 스미스에게 시장이 중요했던 것은 그것이 부를 낳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시장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장소라는 점에 있었다. 우리는 시장에서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

---

2) Smith, Adam(2009),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London: Penguin Books, 13.

할 수 있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이것은 강탈이나 강탈에 가까운 경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상호 동감과 호혜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자기 이익의 무조건적 옹호라는 관점에서 스미스에 열광하는 자들이 스미스를 꼼꼼히 읽어 보기만 한다면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할 것이다. 자신의 견해를 수정 하든가, 또 다른 오독을 통해 자신의 지원군을 찾아 나서든가.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시로 돌아가서 다시 한 번 묻자. 왜 ‘화폐’와 ‘깃발’인가? 왜 사람들은 그것에 열광하고, ‘한없이 여린’을 찾는 화자와는 다르게 ‘한없이 센(강한)’을 찾아 헤매는가? 그것은 아마도 화폐와 깃발이 또 다른 화폐와 깃발을 낳는 마법을 발휘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 축적된 화폐와 깃발의 축복 속에서 우리는 외롭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추구의 과정에서 이미 우리는 없다. 주체가 소거 되었기 때문에 주체가 느끼는 외로움이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자기’가 없기 때문에, ‘자기 소외’조차 겪을 수 없는 소외의 극단인 것이다. 이것은 외로움이나 소외의 부재가 아니라 주체의 부재이다. 주체가 공백인 자리에 유령이 들어섰는데 주체가 주체적으로 무엇인들 느낄 수 있겠는가? 이 논리를 ‘한없이 여린’에 대입해 보면 화자가 찾고 있고,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 어찌면 흠스식의 만인 전쟁 사회에서 잃어버린 존재일지도 모른다. 하이데거가 ‘망각’이란 꼬리표를 붙이기 이전의 존재. 그리고 존재들, 이 존재들이 상호 호혜의 원칙하에 서로의 약함과 여립을 영접하는 어떤 시원. 그 시원(‘어떤 始源으로부터 나오는’)적 존재, 그 존재들의 어깨동무. 화폐와 깃발 아래서가 아니라, 화폐도 깃발도 없는 적막한, 그러나 삭막하진 않은 그런 어떤 곳에서 나누는 온기, 서로 부딪는 어깨. 그것을 두고 사랑이라 일러도 지나친 말은 아니리라.

화폐를 상전으로 떠받들며 등가의 교환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사회 속에서 사랑의 가치를 설파한 것은 다름 아닌 마르크스였다.

화폐는 성실함을 성실하지 않음으로, 사랑을 미움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덕을 악덕으로, 악덕을 덕으로, 노예를 주인으로, 주인을 노예로, 우둔함을 총명함으로, 총명함을 우둔함으로 전환시킨다.

현존하며 활동하고 있는 가치의 개념으로서 화폐는 만물을 혼란케 하고 전도시키기 때문에, 그것은 만물의 보편적 혼란이요 전도이며, 따라서 전도된 세계요, 모든 자연적·인간적 성질들의 혼용이요 전도이다.

용감함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은 그가 비겁하다 해도 용감한 사람이다. 화폐는 특정한 성질, 특정한 사물, 특정한 인간적 본질력과 교환되지 않고 인간적·자연적·대상적 세계 전체와 교환되기 때문에, 화폐는 (그 소유자의 시각에서 보면) 모든 속성을 모든 속성과 (그 속성과 모순되는 속성과 대상까지도) 교환한다. 화폐는 불가능한 일들을 친숙한 것으로 만들며, 자신과 모순되는 것들에게 자신과 입 맞추도록 강요한다.

인간을 인간으로서, 세계에 대한 인간의 관계를 인간적 관계라고 전제한다면 그대는 사랑을 사랑과만, 신뢰를 신뢰와만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sup>3)</sup>

인용문을 한 문장으로 옮기면 사랑을 화폐와 교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이를 우리의 문맥에 맞게 다시 옮겨 보면, ‘여립과 약함을 셈과 강함에 종속시켜서는 안 된다.’ 정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다시 종합하여 번역하면 이런 문장이 가능하다.

상대가 약함을 내보여도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아도르노)

시인이 같은 시집의 다른 시에서 “오늘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가

---

3) 칼 마르크스, 강유원 역(2009), 《1844년의 경제학 - 철학 수고》, 이론과 실천, 180~181.

장 불쌍한 사람이 있었다면/그를 神이라 불러다오”(〈神할아버지가 말하길〉, 39)라고 적을 때, 그는 약함에 신성을 부여함으로써 아도르노식 사랑의 의미를 일깨우고 있다.

그리하여 최승자의 〈한없이 여린〉을, 난 이렇게 다시 읽는다.

‘한 없이 여린 사랑’을 찾고 있다  
폭염과 혹한 그 너머에 있는  
‘한없이 여린 사랑’을 찾고 있다

살은 밀랍, 팔뚝은  
자동 쇠파닥인 현대,  
기이하게 눈을 깜박거리며 미소 짓는 현대,  
현대라는 이 모조 인형 앞에서,

무수한 화폐들과 깃발들 그 너머에서  
어떤 ‘한없이 여린 사랑’을 찾고 있다

먼, 너무도 먼, 너무도 멀어  
맥이 닿지도 않는  
어떤 始源으로부터 나오는  
‘한없이 여린 사랑’을

---

## 내 인생의 국어 - 그 쓰라림과 달콤함 -

임재춘 · 한국TC협회 명예 회장(TC: Technical Communication)

---

### 내 인생에서 쓰라린 국어

나는 학창 시절에 어학을 가장 싫어했다. 계산하는 것을 좋아해 수학과 과학은 재미가 있는데 국어는 내 적성에 맞지 않았다. 영어도 못해 대학은 자연스럽게 이공계를 지원하였다. 기계를 전공하면서 골치 아픈 국어와 영어는 기분 좋게 결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세상은 싫은 것을 피해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기술 고시에 합격(1973년)하고, 과학기술처 원자력국에서 근무를 시작할 때 동료가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원자력 안전 자문관이었다. 영어가 급해 카세트 교재를 죽어라고 6개월 들었더니 귀가 열렸다. 이로써 영어는 해결이 되었으나 국어 문제는 좀 더 뒤에 왔다. 사무관이나 과장으로 근무할 때에는 내가 글을 잘못 써도 상사가 마지막에 고쳐 주지만 중앙 부처 국장쯤 되면 사정은 달라진다.

문제의 글은 방사성 폐기물 부지 공고문이었다. 나는 공고 문안을 유명 작가에게 의뢰한 후 주요 일간지 1면들을 잡아 두었다. 신문에 실기

로 한 날은 다가오는데 원고는 더디기만 했고 독촉 끝에 받아 본 문안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었다. 시간이 없었던 나는 밤새워 공고 문안을 다시 만들어 새벽에 장관에게 보냈다. 문장에 주어도 없고 비문투성이인 공고 문안을 받아 본 언론계 출신 장관은 크게 화를 내었고, 그날 오전에 나는 원자력국장의 보직에서 물러났다.

그날 이후 나는 글쓰기에 관심을 가졌다. 대학 작문 교재, 논술 길잡이, 문장론, 보고서 작성법들을 닥치는 대로 읽어 보았으나 결과는 불만스러웠다. 내용이 지루하고 알아야 할 사항이 너무 많아 목차만 봐도 질렸다. 그러다 실용 글쓰기가 글쓰기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실용적인 글은 약도 그리듯이

글은 문학적인 글과 실용적인 글이 있는데 우리는 학교에서 문학적인 글만을 배웠다. 그러니 글쓰기를 할 때 글은 아름다워야 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학적인 글은 잘 그린 그림처럼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 마치 김정호가 대동여지도를 그리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발로 걸어 다니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글쓰기 교육은 마냥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라'고 3다(多)를 가르친다. 문제는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데에 있다. 이러니 글쓰기 공부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글쓰기에 소질도 없고 관심도 없는 이공계 출신 기술자나 과학자에게는 더하다.

그러나 그림 대신 약도를 그린다면 약도는 누구나 쉽게 그릴 수 있다. 실용적인 글쓰기는 약도 그리듯이 하면 된다. 사무적으로 쓰는 글은 감정에 호소하여 느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요 사실을 알기 쉽고 간결하게' 기술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실용 글쓰기다.

이런 사실을 알고부터 글을 쓸 때에는 약도 그리듯이 하니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 글의 전체적인 틀과 형식을 해결하였기 때문이다. 그래도 또 하나의 문제가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한글 문장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극복하는 것이었다. 한글 문장은 주어와 생략할 수 있고, 또 핵심 정보를 전하는 서술어가 가장 뒤에 제시된다.

## 주어와 단문만 제대로 써도 좋은 문장

말을 할 때는 주어를 생략해도 얼굴 표정이나 몸짓으로 추가적인 의사소통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글을 쓸 때 주어를 생략하면, 읽는 사람이 앞뒤 문맥이나 상황을 일일이 고려해야만 문장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말은 영어와는 달리 주어를 생략해도 문장이 되기 때문에 주어 없는 문장이 많다. 그러나 주어가 없으면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 몰라 읽는 사람이 헛갈리게 된다. 쉬운 내용이나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은 아무렇게나 쓰인 글로도 이해가 쉬우나, 복잡하거나 새로운 내용은 주어가 있어야 의미가 보다 분명해진다. 문장에 주어가 없으면 의미가 모호해져서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하다 보면 글자의 양이 많아져서 긴 문장이 된다.

문장에 주어가 있어도 사물이 주어인 경우에는 주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지이다. 이런 문장은 수동태가 되어 ‘누가’ 한지를 알 수 없게 된다. 또 주어가 있어도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을 하지 않으면 주어가 없는 것과 같다. 이것도 누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의미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문장에 주어 넣기를 권장한다. 문학적인 글은 주어가 반복해서 나오면 읽기에 곁스럽겠지만 실용적인 글은 유리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글을 쓸 때 주어만 제대로 찾아 써도 글쓰기 문제의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학생이나 직장인에게 문장에서 주

어 찾는 연습을 시키는데, 이들은 대부분 주어를 정확하게 찾아내지 못하고 보어와 헷갈려 한다. 참고로 이 글 말미에 간단한 문장 6개를 시험한다. 여러분도 한번 해 보기 바란다.

우리글이 가진 또 하나의 문제는 서술어가 핵심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가자', '먹자', '놀자', '그만두자' 등 서술어만 써도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이다. 이런 서술어의 중요성으로 인해 우리말은 끝나 봐야 한다. 이런 폐단을 최대한 줄이는 길은 서술어가 빨리 등장하도록 단문을 쓰는 것이다. 중요한 정보일수록 단문이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다.

## 내 인생의 달콤한 국어

“글의 형태를 약도 그리듯이 하면서, 주어를 챙기고 단문을 쓰자.”를 책으로 엮어 《한국의 이공계는 글쓰기가 두렵다》(2003, 마이넨)를 내었다. 이 책은 큰 호응을 얻어 나를 단번에 유명 강사로 만들었다.

국어를 제대로 쓰다 보니 영어 작문까지 해결하는 방법을 발견하였다. 사실 영어는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겪는 골칫덩어리다. 토익 점수를 죽어라 따라가도 말하기가 더 중요하다고 한다. 어학연수를 다녀와서 말하기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려놓아도 앞으로는 쓰기가 필수라고 한다. 쓰기는 기본적으로 어렵고 영어는 더 어렵다. 그래서 영어 쓰기는 두려움의 대상이다.

이런 어려움을 한 번에 해결하는 도구가 구글(Google)이다. 구글의 번역과 검색 기능을 동원하면 한글로 문장을 쓰되 주어를 넣고 단문으로 하기만 하면 영작이 되고, 원어민 수준의 용법까지 해결할 수 있다. 이 기법을 정리해서 《한국의 이공계는 영어쓰기가 두렵다》(2011, 북코리아)까지 출판했다. 국어가 내게 준 최고의 선물이었다.

## 별첨: 우리 문장 실력 검사

### 예문(O/X로 표시하기)

다음 예문을 보고 맞는 문장인지 틀린 문장인지 골라 보자.

예제1: 토끼는 꼬리가 짧다.

예제2: 원자력은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탄산가스의 배출이 없다.

예제3: 나는 그가 좋다.

예제4: 나는 영화가 보고 싶다.

예제5: 한국은 울산이 살기가 제일 좋다.

예제6: 나는 기술은 가지고 있다.

몇 개가 맞는가? 답은 전부 맞다. 한 개 맞추었다고 자탄할 필요는 없다. 우리나라 대학생과 직장인의 평균 실력은 하나 정도이다. 문장에 주어와 서술어를 넣는 연습은 주어와 서술어를 호응시키는 것인데 대학생과 직장인이 몰라도 너무 모른다. 영어는 문장에 5형식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한국어 문장에 몇 형식이 있는지 모른다.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학생이 무엇을 배웠는지 신기할 따름이다. 우리글은 3형식이 있다.<sup>1)</sup> 3분이면 배울 수 있다. 다음은 우리글의 기본 형식이다.

### 우리글의 기본 형식

1형식: 나는 학생이다.

바람이 분다.

하늘은 푸르다. (주어+서술어)

2형식: 나는 운동을 좋아한다. (주어+목적어+서술어)

3형식: 나는 어른이 된다.

나는 선생이 아니다.

1) 한국어의 기본 문형은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설정하기도 한다. 3형식에서 12형식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는 철수를 양자로 삼았다. (주어+보어+서술어)

1, 2형식은 우리가 익히 아는 것인데 문제는 3형식이다. '어른이', '선생님이'는 외형상으로는 주어로 보이나 실제로는 보어다. 주어를 보완해 주는 주격 보어다. '되다'와 '아니다'는 완전 보어로 보고 '하고 싶다'와 '좋다' 등의 느낌 동사는 불완전 보어로 본다. 보어는 목적격으로도 쓰이는데 '양자로'는 '철수'라는 목적어를 보완해 주는 목적격 보어이다.

'이 책은 재미가 있다.'라고 하면 '이 책'은 주어이고 '재미가 있다'는 서술절이다. 여기서 '재미가'는 서술절에서 주어이다.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는 보다 간편하게 이중 주어문으로 해석한다. 즉 문장에 주어가 두 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들은 보어도 이중 주어문으로 해석한다. '나는 어른이 된다.', '나는 선생이 아니다.'에서 '어른이'와 '선생이'를 또 다른 주어로 본다.

다시 앞의 '우리 문장 실력 검사'로 돌아가자. 이제 이들 예제가 왜 맞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예제 1과 2는 '주어+서술절'의 형태이다. 이중 주어로도 해석된다. 예제 3과 4의 '그가'와 '영화가'가 느낌 동사를 대동하는 보어이다. 예제 5는 삼중 주어이다. 이중 주어에 있으면 삼중 주어도 있다. 예제 6에서 '기술은'은 조사가 '은'이라 외형상으로 주어로 보이나 '은'은 대조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그는 돈이 많다.'와 '그는 돈은 많다.'를 보면 차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국어를 정확하게 알고 쓰면 구글 자동 번역도 상당히 정확하게 된다. 다음은 구글 번역이 보여 주는 영작이다.

### 구글 자동 번역

1. Rabbits have short tails.
2. Nuclear power (that cause global warming), there is no emission of carbon dioxide.
3. I like him.
4. I would like to see the movie.
5. Ulsan, Korea has to live is best.
6. I have skills.

# 슬로베니아의 언어 정책

이용 · 슬로베니아 국립류블라나대학교 교수

## 1. 슬로베니아의 언어 현황과 과제

슬로베니아(Republika Slovenija(슬), Republic of Slovenia(영))의 언어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략하게나마 슬로베니아와 슬로베니아어의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슬로베니아는 오랫동안 로마 제국, 합스부르크 왕가,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중 제국, 유고슬라비아 등의 일원으로 있다가 1991년에 비로소 유고슬라비아 연방에서 독립한 신생 국가이다. 인구는 약 200만 명이고 면적은 20,273km<sup>2</sup>로 우리나라의 전라남·북도를 합한 정도이다. 중앙 유럽과 남유럽에 걸쳐 있는 이 나라는 알프스 산맥 끝 부분과 지중해에 접하고 있다. 서쪽으로는 이탈리아, 서남쪽과 남동쪽으로는 크로아티아, 북동쪽으로는 헝가리, 북쪽으로는 오스트리아와 각각 국경을 맞대고 있다. 수도는 류블라나다. 작은 나라이기는 하지만 1991년 독립 이전에도 오랫동안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다. 독립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2004년에 유럽 연합(EU)에 가입하였다.

슬로베니아어(Slovene 또는 Slovenian)는 슬라브 어족의 남슬라브 어군에 속하는 언어이다. 세계적으로 약 250만 명 정도의 사용 인구가 있

다. 사용 인구 중에 185만 명 정도가 슬로베니아에 있고 나머지는 이탈리아, 헝가리,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아르헨티나 등에 있다. 유럽 연합(EU)의 23개 공식어 중 하나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민족과 어울려 살면서 독일어, 로만스어, 핀·우그리아어의 영향을 받았다.

한편 슬로베니아는 1991년 독립 이후에 처음으로 다수 언어 사용자 국가가 되었다. 지금이 슬로베니아어 사용자가 가장 많은 시기라고 한다. 그렇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슬로베니아어의 사용에 대해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런 위기의식은 슬로베니아어가 비교적 적은 언어 사용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일상생활에서 외국어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데서 기인한다.

이제까지 본 슬로베니아와 슬로베니아어의 현황에 대한 간략한 파악은 슬로베니아가 취하고 있는 언어 정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언어 정책의 주요 골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슬로베니아의 언어 정책과 관련해서 다음의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이해를 시작한다면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지금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언어·민족적 정체성을 이어갈 수 있느냐는 것이다.<sup>1)</sup> 이것은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국가가 어떻게 국가 정체성을 확립할 것인가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둘째, 큰 언어 공동체를 가지지 않은 많은 국가들이 그렇듯이 생존을 위해서는 모어 이외에도 외국어에 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이들이 자국 내에 사는 소수 언어 사용자들에 대해 매우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소수 언어 사용자들의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자국인들이 다른 나라에서 소수 언어 사용자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인식과도 관련이 있다. 한편으로 독립 이전에

---

1) 이와 관련해서 250만 명의 언어 사용자가 적은 것인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세계 언어 중 95%는 현재 200만 명 이상의 언어 사용자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는 자기들의 언어가 국가 내에서 한 번도 다수인 적이 없었던 사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지적인 문제는 첫 번째로 지적한 문제와 별개의 것이 아니기도 하다. 자국어의 보호를 위해서는 국외에서 살고 있는 슬로베니아어 사용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2. 언어 정책의 수립과 집행

### 2.1. 슬로베니아어의 보호와 발전 정책

슬로베니아 정부는 슬로베니아어의 보호와 발전이 국가의 정체성 확립과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sup>2)</sup> 슬로베니아 정부는 슬로베니아어의 발전과 보호를 위한 법적인 근거로서 2004년에 ‘슬로베니아어의 공공 사용에 관한 법안(Act on Public Use of the Slovene Language)’을 마련하였다. 이 법안은 총 7개의 조목(provision)과 38개의 항목(article)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법적으로 슬로베니아 공화국에서 공식어는 슬로베니아어이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언어생활은 공식어인 슬로베니아어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언어와 관련된 정책의 집행과 계획에 대한 업무의 총괄은 문화부의 슬로베니아어 분과(Služba za slovenski jezik)에서 이루어짐을 밝히고 있다.

이 법안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슬로베니아어의 보호와 발전에

---

2) 이와 관련하여 문화부에서 나온 ‘문화를 위한 국가 프로그램(Nacionalnem programu za kulturo(NPK)2008~2011)’을 보면, 세계화와 통합의 물결 아래 작은 국가의 언어가 소멸하는 현실적 위험 속에서 슬로베니아어의 보호는 문화 정책에서 우선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문화는 국가 정체성의 중심에 있고 또 문화의 중심에는 슬로베니아어가 있으므로 슬로베니아어의 보호는 문화 정책에서 가장 우선한다는 사실을 또한 밝히고 있다. 정부에서 발행한 ‘슬로베니아의 국가 발전 전략(Strategiji razvoja Slovenije (SRS))’에 보면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슬로베니아어의 보호와 발전을 통해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관한 것이다. 유럽 연합 내에서 약 200만 명이라는 많지 않은 인구를 가진 슬로베니아의 입장에서는 특히 슬로베니아어의 보호가 시급한 문제가 된다. 이를 반영하듯 많은 조항들은 슬로베니아어의 보호와 관련되어 있다. 교육, 웹사이트, 무역 업무, 미디어, 신문, 광고 등 여러 분야에서 슬로베니아어의 사용을 강제하거나 보장하고 있다.<sup>3)</sup> 지면 관계상 미디어와 관련된 조항(제1조 제22항)만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슬로베니아 공화국에 등록된 미디어에서는 슬로베니아어가 사용되어야 한다.
- (2) 라디오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외국어는 모두 슬로베니아어로 통·번역되어야 한다.
- (3) 외국어로 이루어진 전언이 미디어에서 통용된다면 슬로베니아어로 된 전언보다 더 눈에 잘 띄게 제시되어서는 안 된다.
- (4) 특집 프로그램이나 이 항목의 (1)번과 (2)번의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예외적 상황일 때는 문화부의 법률에 따라 규정되어야 한다.

겉으로 보기에 위의 조항은 지극히 명확한 것들이라 논의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문제는 여기에 존재한다. 법률로 정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법률로 정해서 통제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많은 조항들도 이와 비슷한 면을 지니고 있다. 이는 슬로베니아에 외국어가 깊이 침투해 있고 이것이 슬로베니아 정부에게도 심각한 문제임을 잘 보여 준다. 그러나 외국어를 금지하는 조항을 제정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언어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의 고충이 잘 드러난다.<sup>4)</sup>

---

3) 많은 과학과 학문 분야에서 영어가 주류를 이루는 전 세계적 현상은 비단 슬로베니아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하여 학문을 할 수 없다는 것은 학문의 발전에서 크나큰 장벽이 아닐 수 없다. 작은 나라일수록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문화를 위한 국가 프로그램'에 이 문제와 관련된 언급이 있다.

‘슬로베니아어의 공공 사용에 관한 법안’이 슬로베니아어를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근거라고 한다면 2006년에 발행된 ‘언어 정책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에 관한 해결책(2007~2011)(Nacionalni program za jezikovno politiko, Resolution on National Programme for Language Policy)’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 문서는 문화부 언어 정책국에서 발행한 것으로 언어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사업의 주체, 담당 기관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다.<sup>5)</sup> 또한 말미에는 구체적인 예산을 밝히고 있다. 이제 2012년이 되면 이제까지의 언어 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언어 정책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에 관한 해결책(2012~2016)’을 마련하여 언어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 2.2. 외국어 관련 정책

외국어와 관련하여 슬로베니아 교육체육부에서는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외국어의 습득은 생존을 위한 수단이 되었고 유럽 연합에서 추진하는 다문화주의와 다언어주의를 권장하는 정책에도 협조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한 결과이다. 외국어 교육의 기본이 되는 학교에서의 교육을 보면, 학생들은 제1 외국어는 초등학교 9년 과정 중 4학년부턴 필수 과목으

---

4) 이러한 고충은 외국어의 금지는 유럽 연합의 ‘다문화주의’나 ‘다언어주의’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세계화의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을 정부도 충분히 이해하기에 생기는 것이다.

5) 언어 정책국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슬로베니아어 사용에 관한 법적 준비를 시행하지 않는 단체에 대한 권고
- ② 국가 프로그램에서 언어 정책의 포함에 대한 모니터
- ③ 슬로베니아어를 공식어로 사용하는 시민들로부터 지적과 불만의 접수
- ④ 슬로베니아어를 확대, 증진, 발달시키는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 용자
- ⑤ 표준 슬로베니아어에 대한 정보적 설명 제시
- ⑥ 유사한 기관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기관과의 공동 작업

로 배우고 제2 외국어(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헝가리어, 스페인어 등)는 7학년부터 필수 선택 과목으로 배우고 있다. 초등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 4년 과정에 올라가게 되면 일반적인 경우라면 제2 외국어 역시 필수로 선택하게 되어 있다. 실제 선택되는 언어를 보면 제1 외국어, 제2 외국어를 막론하고 영어가 90% 정도, 독일어가 60% 정도에 이른다. 교육체육부의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어 교육을 제3 외국어까지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인구 200만 명의 작은 나라가 생존하기 위해서 외국어의 습득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듯 이 나라에는 외국어에 능숙한 사람들이 많다. 서너 개의 외국어를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어렵지 않다. 또한 슬로베니아인들은 오랫동안 다른 민족과 섞여서 살았고 외국어에 대해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다. '언어 정책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에 관한 해결책(2007~2011)'에 보면, 슬로베니아가 모어 이외에도 외국어 지식이 큰 역할을 하는 사회임을 인정하고 있다. 동시에 유럽 연합의 다언어주의 정책의 원칙과 요구에도 따라야 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외국어에 대해 열린 자세는 독립한 지 얼마 안 되는 슬로베니아가 국가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는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도 있을 수 있다. 외국어의 습득과 자국어의 보호라는 모순적인 상황은 유럽 연합에 들어간 작은 나라의 숙명이라고 볼 수 있다.

### 2.3. 소수 언어 사용자에 대한 배려

앞에서 슬로베니아의 공식어는 슬로베니아어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실은 이는 부족한 설명이다. 그것은 법에 따라 슬로베니아와 이탈리아의 국경 지대인 프리모레(Primorje)에서는 이탈리아어가, 슬로베니아와 헝가리의 국경 지대인 프레크무레(Prekmurje)에서는 헝가리어가 공식어로 인정을 받기 때문이다. 국경 지대의 이탈리아인과 헝가리

인들은 자신의 언어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인정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교육받을 권리, 출판할 수 있는 권리, 미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권리 등을 가진다. 슬로베니아에서 이탈리아와 헝가리 지역의 소수 집단 언어 사용자들에게 관심을 보인 것은 유고슬라비아에 속해 있을 때부터다. 이러한 관심은 소수 집단 언어 사용자들의 인권에 대한 배려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배려는 유고슬라비아 지역 내에서 소수였던 자신들의 경험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sup>6)</sup> 이와 더불어 지나칠 수 없는 것은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국경 지대에 있는 자국민의 언어에 대한 보호이다. 국가 간의 관계가 철저히 주고받는 관계에 충실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다른 국가의 국경 지대에 있는 자국민의 언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쪽에서도 상대국의 국민에게 언어에 대한 권리를 주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소수 집단 언어와 관련하여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그룹들이 있다. 그것은 과거 같은 유고슬라비아에 속했던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등에서 온 언어 그룹이다. 이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초등학교에서는 비슬로베니아어 화자인 어린이들을 위해 슬로베니아어 관련 보충 수업을 실시하고 이 어린이들의 부모를 도울 자원봉사자를 뽑아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슬로베니아 정부에서는 이들 뿐만 아니라 제2 언어, 외국어로 슬로베니아어를 배우는 사람들과 이민자, 이주 노동자, 망명자들에게 슬로베니아어를 향상시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문화를 위한 국가 프로그램 2008~2011(National Programme for Culture 2008~2011)'에 나와 있다.

---

6) 슬로베니아의 인구는 유고슬라비아 인구의 8%에 지나지 않았다.

### 3. 슬로베니아어의 근대화와 표준어 정책

슬로베니아어의 근대화와 표준화는 이민족의 지배 아래에서 진행되고 확립되었다. 슬로베니아어 표준화에 대한 시도의 연원은 종교 개혁 시기인 16세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때 슬로베니아는 게르만 족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 슬로베니아에서 인쇄된 최고의 책은 프리모주 트루바르(Primož Trubar, 1508~1586)의 《Catechismus》(1550년, 교리 문답서)이다. 트루바르는 당시에 이미 방언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태어난 곳의 방언을 바탕으로 슬로베니아어를 표기하였다. 유리이 달마틴(Jurij Dalmatin, 1547~1598)은 성서를 번역하여 이 표기법을 발전시키고 확산하는 데 기여하였다. 17세기에 들어서는 반종교 개혁의 시대가 오면서 표준어를 만들기 위한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 그러나 18세기에 들어 슬로베니아어의 근대화를 향한 활동이 매우 활발히 진행되었다. 슬로베니아의 표준어<sup>7)</sup>는 결국 18세기에 슬로베니아 중부 방언을 토대로 만들어지기 시작하였고 19세기와 20세기를 거치면서 확립되었다. 이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 사람들로는 언어학자인 예르네이 코피타르(Jernej Kopitar, 1780~1844)와 문학가인 프란체 프레세렌(France Preseren, 1800~1849)<sup>8)</sup>을 들 수 있다. 코피타르로부터 시작된 표준어

- 
- 7) 슬로베니아의 표준어는 우리가 가진 표준어 개념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슬로베니아의 표준어는 인공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슬로베니아에서는 우리처럼 어느 한 지방의 말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 표준어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휘와 문법 구조 등에 있어서 선택된 방언 요소와 역사적인 어문 전통을 토대로 하여 표준어가 만들어졌다. 표준어의 슬로베니아어인 'knjižni jezik'을 우리말로 옮기면 '문학어'나 '문어' 정도로 옮길 수 있는데 '문어'로서 표준어는 텔레비전, 교재, 학교 수업 등 제한된 환경에서만 쓰인다. '문어'로서 표준어가 구어로 실현된 것이 '구어 표준어'이다. 따라서 '구어 표준어'도 인공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문어로서 표준어가 방언에 따라서 구어로서 표준어로 다르게 실현되기 때문에 표준어도 방언에 따른 변이형을 지니게 된다.
- 8) 프레세렌은 지금까지도 슬로베니아에서 슬로베니아 '문학어'의 전범을 보인 국민 시인으로 추앙을 받고 있다.

는 프레세렌의 작품을 통해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코 피타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슬로베니아어에 들어 있는 독일어적 요소로부터 탈피였다.<sup>9)</sup> 정서법과 관련해서 보면, 정서법은 막스 플레테르슈니크(Maks Pleteršnik)의 슬로베니아-독일어 사전에서 집대성되었다. 이렇게 마련된 슬로베니아어의 근대화는 유고슬라비아의 체제 아래에서 세르보·크로아트어와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착되었다.<sup>10)</sup>

이런 과정을 거쳐 확립된 슬로베니아어의 표준어와 관련한 업무를 맡고 있는 곳은 슬로베니아 과학예술 학술원(Slovenska akademija znanosti in umetnosti, SAZU)이다. SAZU에는 철자 위원회와 프란 라모브시 슬로베니아어 연구소(Fran Ramovš Institute of Slovenian Language)가 있는데 이곳에서 슬로베니아어 철자와 문법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SAZU에서 펴내는 《Slovenski pravopis》(슬로베니아어 철자법)는 슬로베니아 철자법의 지침이 된다. 이 책과 관련하여 최근판의 출간은 2001년에 있었고 이에 대한 재인쇄가 2003년에 이루어진 바가 있다. 여기에는 130,000항목의 어휘에 대한 철자법 안내가 있다. 슬로베니아어에 대한 공식적인 사전 역시도 SAZU에서 편찬하였다. 이것은 《Slovar slovenskega knjižnega jezika》(표준 슬로베니아어 사전)로 불리는데 처음에 DZS(Državna založba Slovenije) 출판사에서 1970년에서 1991년 사이에 5권으로 출판되었다. 이 사전은 100,000항목 이상의 어휘로 이루어져 있다. 1990년대 들어서 이 사전은 전자화되었고 온라인을 통해서 검색이 가능해졌다.

방언은 표준어와 더불어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슬로베니아

---

9) 이것은 한국어가 근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일본어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던 것과 유사한 점이 있다.

10) 유고슬라비아 시절에 슬로베니아어는 유고슬라비아 공식어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유고슬라비아에서 슬로베니아어를 쓰는 인구는 8%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중앙 정부에서는 유고슬라비아의 언어를 세르보·크로아트어로 단일화하려고 하였다.

의 방언은 8개의 대방언권과 48개의 소방언권으로 나뉜다. 이들 중 몇몇 방언은 표준어와 확연히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sup>11)</sup> 방언에 대한 연구도 또한 프란 라모브시 슬로베니아어 연구소에서 이루어지는데 비교적 잘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를 받는다. 그런데 방언들이 지금 당장 소멸 위기에 처한 것은 아니지만 소멸의 길을 걷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듯하다. 이와 관련하여 슬로베니아 당국에서 특별히 표준어를 장려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sup>12)</sup>

#### 4. 맺는말

슬로베니아가 처해 있는 언어적 상황은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이 처해 있는 언어적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는 고립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독립한 지 얼마 안 되는 슬로베니아의 입장에서 언어적 정체성의 확립은 국가의 정체성 확립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대목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면 자국 내에서 보이는 소수 언어 사용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어찌면 자신들을 향한 것일지도 모른다.

현재 슬로베니아 정부가 취하고 있는 언어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슬

---

11) 방언 중에서 표준어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프레크무레(Prekmurje) 지방의 방언이다. 이 지역은 역사적·문화적으로 슬로베니아의 다른 지역과 이질적인 면이 많다.

12) 이와 관련하여 슬로베니아어의 표준어와 비표준어가 지닌 양층 언어(diglossia)적 상황을 언급하는 것은 중요하다. 표준어가 인공적인 성격을 지니다 보니 문어와 구어 간에 간극이 생기고 계층에 따라 언어가 갈리는 상황이 벌어진다.

로베니아인들이 역사적으로 외국어와 외국 문화에 대해 열린 자세를 보였으면서도 슬로베니아어를 굳건하게 지켜 올 수 있었다는 사실은 기억해 둘 만하다. 이민족의 지배 아래에서 슬로베니아어의 근대화와 표준화의 토대를 확립하고 오늘날의 슬로베니아어를 만든 이들의 저력 또한 무시할 수 없다.

## 참고 문헌

- Bajec, A. Kolarič, R. & Rupel M.(1964), *Slovenska slovnica*, Ljubljana: DZS.
- Herrity, Peter(2000), *Slovene : A Comprehensive Grammar*,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Greenberg, Marc L.(2008), *A Short Reference Grammar of Slovene*, Munich: LINCOM.
- SAZU ed(1995), *Slovar slovenskega knjižnega jezika*, Ljubljana: DZS.
- Toporišič, Jože(1992), *Enciklopedija slovenskega jezika*, Ljubljana: Mladinska knjiga.
- Toporišič, Jože(2000), *Slovenska slovnica*, Maribor: Založba Obzorja.

## 관련 누리집

- [http://www.culture.si/en/Fran\\_Ramov%C5%A1\\_Institute\\_of\\_the\\_Slovenian\\_Language](http://www.culture.si/en/Fran_Ramov%C5%A1_Institute_of_the_Slovenian_Language)(프란 라모브시 슬로베니아어 연구소)
- <http://www2.ku.edu/~slavic/sj-sls/2009/index.shtml>(캔자스대학교 슬로베니아어학과)
- [http://www.mk.gov.si/si/zakonodaja\\_in\\_dokumenti/veljavni\\_predpisi/slovenski\\_jezik/](http://www.mk.gov.si/si/zakonodaja_in_dokumenti/veljavni_predpisi/slovenski_jezik/)(슬로베니아 문화부)

<http://www.culturalpolicies.net>(Compendium of cultural policies and trends in  
Europe 유럽의 문화 정책과 경향에 대한 개요)

## 프랑스의 언어 정책 기관

정희원(국립국어원 어문연구팀장) · 위진(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 1. 머리말

세계화의 물결이 지구촌의 구석구석을 휩쓸면서, 국제어로 인정받고 있는 몇몇 언어를 제외한 전 세계의 언어는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어도 예외는 아니다. 권재일 국립국어원 원장은 2011년 1월 21일 기자 간담회에서 “지구상의 6,700여 개 언어 중에 21세기 안에 대다수가 소멸하고,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정도만 살아남고, 경제 대국인 일본어와 독일어 정도가 간신히 명맥을 유지할 것”이라는 미래 학자들의 예상을 인용하면서, “한국어도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더라도 집에서만 쓰는 비공식 언어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한국어의 위기를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언어 소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유네스코(UNESCO) 및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등은 언어 다양성 보존을 위한 홍보 및 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한 세계 여러 나라들도 자국의 언어를 보호하여 다음 세대에게 전승하고, 새로운 사용자에게 자국어 사용을 보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언어 다양성을 기반으로 자국의 언어를 보존·보급하는 정책을 펼치는 국가로는 프랑스를 주목할 만하다.

이에 국립국어원에서는 프랑스의 언어 정책 기관을 방문하여 프랑스의

언어 정책을 파악하고, 국립국어원과의 교류 가능성을 모색해 보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국립국어원 어문연구팀의 정희원 팀장과 위진 학예연구사가 2011년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문화소통부(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의 소속 기관인 ‘프랑스어와 프랑스 언어들 총국’(Délégation générale à la langue française et aux langues de France), 외무부(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et européennes)의 ‘언어 다양성과 프랑스어 교육 협력부’(Diversité linguistique et du français, responsable de la coopération éducative), 교육부(Ministère de l’Education nationale)의 ‘문해 교육부’(Education nationale dans le groupe des Lettres), ‘프랑스 학술원’(Académie française), ‘국가 비문해 퇴치원’(Agence nationale de lutte contre l’illettrisme), ‘프랑스어권 국제기구’(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 la Francophonie) 등을 방문하였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언어 정책인 ‘프랑스어 사용법’(1995. 3. 5. 공포, 일명 투봉법)에 관한 내용은 국내에 여러 번 소개된 적이 있지만, 프랑스의 언어 정책 기관을 전체적으로 조망한 글은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내적으로는 국민의 국어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적으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확대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 프랑스의 언어 정책을 기관별로 살핀 이 글이 우리나라 언어 상황에 시사하는 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2. 프랑스의 언어 정책 기관

프랑스는 언어 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가 따로 없고, 문화소통부, 교육부, 외무부에서 업무 내용에 따라 나누어 담당한다. 문화소통부는 소속 기관인 프랑스어와 프랑스 언어들 총국을 중심으로 프랑스의 언어 정책의 중심 기능을 수행한다. 프랑스어를 보급하고, 프랑스어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부와 공·사 기관의 활동을 촉진하고, 프랑스어 사용법을 적용하고 시행하는 등의 언어 정책을 펼친다. 교육부는 문해 교육부를 중심으로 프랑스어 교육 정책을 담당하며, 특히 프랑스 내의 외국인 청소년을 위해 프랑스어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등 이민 가정 출신 청소년의 프랑스어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외무부는 언어 다양성과 프랑스어 교육 협력부를 중심으로 외국에서의 프랑스어 보급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이 외에도 프랑스어와 관련한 언어 기관으로는 학술 연구 기관인 프랑스 학술원, 국내외 프랑스어 사용자의 비문해 퇴치를 위해 설립된 국가 비문해 퇴치원, 프랑스어를 국제어로 활성화시키고, 전 세계적 차원에서 문화 및 언어의 다양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발족된 프랑스어권 국제기구 등이 있다.

## 2.1. 프랑스어와 프랑스 언어들 총국(Délégation générale à la langue française et aux langues de France)

### 2.1.1. 발자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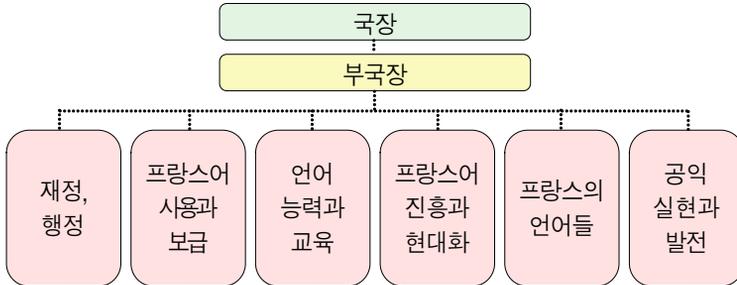
프랑스어와 프랑스 언어들 총국은 1966년 고위위원회(Haut Comité)의 발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고위위원회는 프랑스어 수호와 보급을 위해 국무총리 직속으로 발족되었다가 1984년에 폐지되고, 그에 대응하는 기관으로 프랑스어 자문위(Comité consultatif)와 프랑스어 사무국(Commissariat général)이 설립된다. 프랑스어 자문위는 프랑스어의 사용과 보급, 프랑스어권(Francophonie), 프랑스의 언어들, 프랑스의 외국어 정책에 관련되는 문제를 연구하고, 프랑스어 사무소는 프랑스어 보급과 수호에 협력하는 행정부, 공·사실 기관의 활동을 독려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1989년에는 다시 프랑스어 고등 평의회(Conseil supérieur)와 프랑스어 총괄국(Délégation générale)으로 개편된다. 그리고 1996년에는 프랑스어 고등평

의회는 국무총리 직속 기관으로 두고, 프랑스어 총괄국만 문화부 장관 직속 기관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프랑스어의 사용과 어휘 다양화’에 관한 권한은 국무총리가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로 프랑스어 총괄국을 관장하는 문화부 장관은 국무총리의 위임을 받아서 권한을 행사한다.(송기형 1998: 94~103) 프랑스어 총괄국은 2001년에 다시 프랑스어와 프랑스 언어들 총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프랑스어와 프랑스 언어들 총국은 현재 문화소통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만, 문화소통부 장관의 권한이 국무총리의 위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매년 9월에 ‘프랑스어 이용에 관한 보고서’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다.

### 2.1.2. 조직과 업무

프랑스어와 프랑스 언어들 총국은 다음과 같은 6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sup>1)</sup>



‘프랑스어 사용과 보급부(Mission emploi et diffusion de la langue française)’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프랑스어 사용과 보급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이들은 ‘프랑스어 사용법<sup>2)</sup>’을 근거로 학술 대회 등의

1) 재정·행정 부서의 업무는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기로 한다.  
 2) ‘프랑스어 사용법’은 소비, 직업, 교육, 학문, 방송 매체, 행정 분야에서 프랑스어 사용을 의무화하여서 프랑스어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

공공장소, 상품 사용 설명서 등의 생활 정보에서 프랑스어 사용을 감시한다. 또한 특정 상황이나 문제에 ‘프랑스어 사용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일을 한다.

최근에 프랑스에서 가장 큰 언어적 쟁점은 사회 각 분야에서 영어 사용과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학과 같은 고등 교육 기관에서 영어 강의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어의 위축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입장은 간명하다. 영어화는 개인적으로는 자기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국가적으로는 문화 접촉의 기회를 줄이고, 사회 전체의 쇠락을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어 교육만을 고집하지 않고, 유네스코의 언어 다양성 사업을 지지한다. 모든 어린이들에게 프랑스어를 제외한 2개 언어를 교육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sup>3)</sup>

‘언어 능력과 교육부(Mission maîtrise de la langue et action territoriale)’는 프랑스어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부·법무부·청소년부 등의 행정부 및 공·시설 기관에서의 프랑스어 교육 활동을 독려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프랑스어 교육의 초점은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해 교육에 있다. 프랑스어 구사 능력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주요 필수 능력으로 작용하므로 프랑스 정부는 국민의 모어 사용 능력 증진을 언어 정책의 최상위 목표로 정해 놓고 있다. 이에 학교에서의 프랑스어 교육도 이전에는 지식

---

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장 프랑수아 발디(2012: 187~189), 송기형·장천현(1999)을 참고하기 바란다.

3) 이는 영어가 지나치게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게 됨에 따라 언어의 다양성이 훼손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유럽 연합(EU)에서 각 회원국에 권장하는 방침이다. 프랑스는 이러한 정책이 실현되면 유럽 연합의 회원국들이 모어 외에 제1 외국어로 영어를 선택하더라도 제2 외국어로는 프랑스어를 많이 선택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언어 교육 정책을 실행하는 나라들은 유럽 연합 회원국들 중에도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습득이 주 목적이었으나 지금은 지식 습득을 위한 언어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16세까지 청소년이 배워야 하는 ‘프랑스어 습득에 관한 교육 기준’을 마련하였다. 2006년에는 청소년 교육 과정 내용을 재정의하면서 교육 방향을 지식 습득에서 언어 능력 향상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교육 대상별로 담당하는 부서를 달리한다. 청소년의 문해 교육은 주로 교육부가 담당한다. 교육부는 국방부의 협조를 얻어 매년 ‘군인 예비 선발일’에 17세 모든 청소년 남녀를 대상으로 문해력 조사를 실시하여 프랑스 내의 문식성 정도를 측정하고, 이를 근거로 문해 교육을 실시한다. 청소년부에서는 청소년의 독서 지원과 같은 청소년의 프랑스어 학습 활동을 지원하고, 법무부는 교도소에 수감된 청소년에게 적합한 교육 과정을 개발하여 적용한다. 프랑스 정부는 특히 수감된 청소년에 대한 프랑스어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이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문식성이 크게 떨어지므로 그들에 대한 교육이 그만큼 프랑스 전체의 문식성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들에 대한 교육은 출소 후 안정된 직업을 얻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사회 통합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성인의 문해 교육은 산업부와 경제부에서 담당한다. 비전문직종 취업자의 문제점이 프랑스어 구사 능력이 뒤떨어지는 데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법무부는 교도소 수감자의 절반이 무학자임을 고려하여, 쓰기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문해 교육 기관으로는 국가 비문해 퇴치원(ANLCI) 등이 있다.

프랑스어와 프랑스 언어들 총국의 ‘언어 능력과 교육부’는 위에서 언급한 행정부 및 여러 기관과 업무 협정을 맺어 문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한다. 비문해자가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다시 글을 배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프랑스어 진흥과 현대화부(Mission développement et modernisation de la langue française)’는 전문 분야의 신어를 수집하여 순화하는 일을 한다.

주로 영어로부터 들어온 단어를 적당한 프랑스어로 대체하는 일이다. 신어의 순화에는 정부의 여러 기관이 참여한다. 먼저 행정부 18개 부처에 '전문 용어 위원회'를 구성하여, 순화해야 할 전문 분야의 신어를 조사하고 그에 대응하는 순화어를 모색한다. 그리고 '프랑스어 진흥과 현대화부'에서는 각 부처의 '전문 용어 위원회'에서 작성한 목록을 토대로 신어를 순화한다. 이 과정에서 어원, 조어법 등 언어학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전문 분야의 개념을 정확히 지시하면서도 프랑스어의 문법에 어긋나지 않는 말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한다. 프랑스 학술원에서는 순화된 신어를 최종 심의하여,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국무총리는 프랑스 정부의 관보(Journal Officiel)에 결정된 용어를 게재한다. 이 외에도 신어 순화에는 프랑스어 표준화 협회, 과학 학술원, 국립 과학 연구 센터(CNRS), 프랑스어권 국가들 등의 기관이 참여한다.



### 〈신어 순화에 참여하는 기관〉

프랑스어의 신어 순화는 몇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명목상이지만 국무총리가 순화의 전 과정을 감독하고 발표한다. 이처럼 국무총리가 전문

용어 순화를 감독하는 까닭은 전문 분야의 신어가 프랑스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순화의 결과를 프랑스 정부의 관보에 게재한다.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행정부를 비롯한 공공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용어를 쓰도록 제안·권고한다. 셋째, 순화의 결과가 상당 부분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 순화어가 정착한 예로는 ‘이메일(email) → 쿠리엘(courriel)’, ‘네트(net) → 필레(filet)’ 등이 있다. 이처럼 순화어가 정착하는 데에 성공한 까닭은 언어적 원인이 아닌, 친밀감을 유도하는 등의 심리적 원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순화 실무자는 설명하였다.

‘프랑스의 언어들부(Mission langues de France)’는 프랑스의 언어들<sup>4)</sup>에 대한 사회 언어학적 연구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연구 결과를 취합하여 필요한 기관에 제공하며, 기관지 《언어와 도시(Langue et Cité)》(1년 3회) 및 부정기적 간행물을 통해 국민에게 전파한다.

그리고 1961년 이후에 수집된 구술 자료를 취합·디지털화하여 보존하고, 인터넷 사이트(www.corpusdelap parole.fr)를 통해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일도 한다. 그들은 교육부, 법무부와 연계하여 구술 자료 조사·정리 지침서인 《구술 자료집(CORPUS ORAUX)》을 발간하여, 구어 자료 채취 방법 및 제보자 신상 자료 취급 방법 등에 대한 구술 자료의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공익 실현과 발전부(Mission sensibilisation et développement des publics)’는 2011년 3월에 신설된 부서로, 디지털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언어 정책 및 프랑스어와 프랑스 언어들 총국의 사업을 홍보하는 일을 한다. 또한 인터넷상의 프랑스어 사용 실태를 관찰하여, 행정부 부처 18개의 전문 용어 위원회에 그 결과를 전달하고(2011년 9월 중순에 시작), 인터넷의 언어 양태를 연구한다.

---

4) 여기서 말하는 프랑스의 언어들이란 프랑스 내의 75개 지방 방언(브르타뉴어, 알자스어, 바스크어 등)은 물론 이주자들이 사용하는 언어까지 포함된다.

## 2.2. 교육부의 문해 교육부

교육부는 프랑스 청소년의 교육을 전담한다. 부속 부서인 문해 교육부에서는 교육 기관을 평가하고, 프랑스 문학과 어학 관련 문교 정책을 수립하는 일을 담당한다. 최근에는 외국인 청소년의 입국이 꾸준히 증가하여, 이들을 위한 교육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매년 프랑스 학교에는 4만 명 정도의 외국 학생이 입학한다. 전체 학생의 3%(초등학생의 2.9%, 중·고등학교 3%)에 해당하며, 이들은 주로 북아프리카, 동유럽, 중국 출신의 이민 가정 자녀들이다.

프랑스 정부는 1965년부터 외국인 청소년을 위한 '특수 학급'을 설치하였다. 외국인 학생으로 구성된 특수 학급을 설치하여, 교사가 프랑스어를 지도하였다. 그러나 '특수 학급' 내에서의 고립된 활동이 학교생활 및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2005년에 '학생별 특성화 교육'으로 전환된다. '학생별 특성화 교육'은 외국인 학생을 일반 교실에 두고, 특별 관리 교사와 튜터(tutor)를 지정하는 방식이다. 튜터는 프랑스인의 우수한 선배로 선정하는데, 특별 관리 교사와 함께 외국인 학생이 일반 학급 내에서 급우들과 관계를 맺고, 프랑스어 수업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곧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도움을 주어, 졸업 후 사회생활에도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

또한 교원 양성 과정별로 교육 내용을 FLE(Le français langue étrangère), FLSco(Français langue de scolarisation), CASNAV(Centre académique pour la scolarisation des nouveaux arrivants et des enfants du voyage)로 구성하여 교육한다.

FLE는 프랑스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외국인 학생을 가르치기 위한 교사 양성 과정이다. 프랑스어를 제2 언어로 배우는 과정인 FLS(Français langue seconde)와 구분되며, 이 과정에서는 프랑스 문화와 시민 의식에 대한 내용보다는 기초적인 생활이 가능한 프랑스어를 중점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내용을 교육한다.

FLSco는 외국인 학생을 위한 학습 프랑스어를 교육하기 위한 교사 양성 과정이다. 같은 단어라도 과목에 따라 용법과 의미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역사와 생물 시간에 사용되는 ‘이야기’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역사에서는 ‘증언’을, 생물에서는 ‘보고’를 의미하는데, 이런 차이를 알지 못하는 외국인 학생들은 수업 내용이나 교사의 지시 사항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FLSco 교육 과정에서는 학교생활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프랑스어를 교육한다. 그리고 교사가 과제를 제시할 때에 사용하는 프랑스어나 시험의 점수나 학교의 규칙 등을 알려 주는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프랑스어를 눈높이에 맞추어 가르치는 방법을 배운다.

CASNAV는 교육청에 설치된 교육 센터로, 이민 가정을 위한 교육 과정을 안내한다. 이민 가정은 프랑스에 정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외국인 학생과는 다른 교육 과정을 적용한다. CASNAV의 행정 직원은 이민 가정 자녀를 환영하고, 학교에 등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교사는 이민 가정 출신의 자녀에게 제2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를 교육하는데, 프랑스어의 빠른 습득을 위해서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까지 마련하고 있다. 현재 유아 교육을 위한 특별 수업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고조되어 정책을 수립 중이다.

## 2.3. 외무부의 언어 다양성과 프랑스어 교육 협력부

외무부의 ‘언어 다양성과 프랑스어 교육 협력부’는 외국에서의 프랑스어 보급 정책을 담당한다.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교육은 19세기 식민지에 프랑스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시작된다. 1909년 사무국을 발족하고, 대외 프랑스 문화 정책을 관장한다. 그리고 1981년 외무부에 ‘언어 다양성과 프랑스어 교육 협력부’가 설치되면서,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교육을 전담하게 된다.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교육 기관으로는 국내의 본부와 국외의 외부 기관이 있다. 국내의 본부는 ‘언어 다양성과 프랑스어 교육 협력부’이며, 문화·교육 분야에서의 프랑스어 홍보 방안을 기획하고, 외부 기관을 관리한다. 국외의 외부 기관으로는 프랑스 학교(2011년 현재 485개)와 프랑스 문화원(Institut français) 등이 있다.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교육 기관은 주로 외국의 프랑스어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프랑스어를 홍보하고, 전파한다. 외국 기관과 협력하여 프랑스어 과목을 강의하거나, 프랑스어가 아닌 과목을 프랑스어로 교육하기도 한다. 특히 알리앙스 프랑세즈(Alliance française)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한 교육 목표 및 교육 과정을 구성한다.

프랑스어 홍보는 다양한 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은 프랑스어가 배우기 어렵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여러 활동을 하며, 《프랑스어를 쉽게 배우자》(2012년 발간 예정) 등의 책을 편찬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 입학 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Baccalauréat)를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등의 국가와 공동으로 인정함으로써 제2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사용자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프랑스어가 문학적, 낭만적 언어가 아닌 과학적, 현대적 언어임을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프랑스 정부가 실시하는 프랑스어 능력 시험의 자격 취득자에게 이득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구상하고 있다.

## 2.4. 그 외의 프랑스 언어 기관

### 2.4.1. 프랑스 학술원(Académie française)

프랑스 학술원은 이탈리아 학술원을 모델로 삼아 1635년 리슐리외 추기경에 의해 설립되었다.<sup>5)</sup> 프랑스 학술원은 프랑스어에 필요한 규칙을 제공

5) 프랑스 학술원과 이탈리아 학술원은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인다.

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여 프랑스어를 순화하고, 프랑스어로 예술과 과학을 연구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인 목적 이면에는 프랑스어로 국가를 통합하여 왕정을 통해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래서 현재 프랑스 학술원은 프랑스 왕정의 전통을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초에 치러지는 의례 및 특별 회의에서는 회원들이 왕정의 기사 복장을 하고 왕정의 의례 형식을 그대로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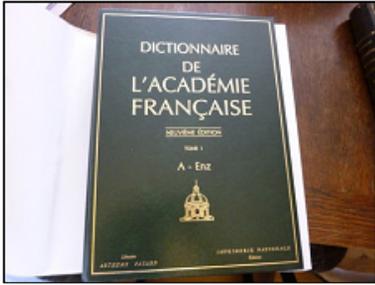
현재 정회원은 36명(정원 40명)이며, 회원은 종신제이다. 국적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프랑스어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이면 누구나 회원 자격을 갖는다. 프랑스 학술원의 최초 여성 회원인 유르스나르(Marguerite Yourcenar)는 벨기에 태생의 소설가로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

프랑스 학술원은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프랑스 학술원 사전(Dictionnaire de L'Académie française)》을 발간하고, 사전 발간의 기초 단계로 전문 분야 신어의 순화어를 심의한다.

《프랑스 학술원 사전》은 대다수의 프랑스인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용어를 등재 기준으로 삼아, 방언이나 예술·과학 등의 전문어, 직업어 등은 등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전에 등재되는 모든 표제어는 프랑스 정부의 관보(Journal Officiel)에 발표한다. 설립된 지 60년 만인 1694년에 초판이 발간되었으며, 1935년에는 출판 300주년을 기념한 8판이 발간되었다. 현재

	이탈리아 학술원 (Accademie della Crusca)	프랑스 학술원 (Académie française)
설립 연도	1530년경	1635년
설립자	피렌체의 인문학자들 ※ 플라톤의 '지식의 성전(idea 학당)'을 모델로 시작	리슐리의 추기경
설립 목적	당시 이탈리아에서 실제로 사용된 200여 개의 방언을 사전으로 편찬하기 위해서	프랑스어의 순화와 프랑스어의 진흥을 위해 사전을 편찬하기 위해서
기관 형식	민간 기관	국가 기관

는 9권이 발간 중인데, 2권까지는 출판이 완료되었으며, 3권은 2012년에,



〈프랑스 학술원 사전 8판〉

최종권인 4권은 2016년에 출판될 예정이다.

특히 9권은 8권에 비해 여러 가지 혁신적인 특징을 지닌다. 근본적인 변화는 사전 편찬의 관점 변화이다. 과거에는 프랑스어의 규칙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현재는 신어에 관심을 가져 전문 분야의 신어를

제공하는 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형식적인 면에서도 변화가 나타난다. 첫째, 등재 어휘 수가 32,000단어에서 57,000단어로 증가하여 권수가 2권에서 4권으로 늘어났다. 둘째, 3,000권의 책뿐만 아니라 인터넷판으로도 배포할 계획이다.<sup>6)</sup> 셋째, 2011년 10월 1일부터 인터넷 문의 사이트를 개설하여, 전 세계 프랑스어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2.4.2. 국가 비문해 퇴치원(Agence nationale de lutte contre l'illettrisme, ANLCI)

국가 비문해 퇴치원은 프랑스 내에 비문해자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비문해 퇴치를 위해 2000년에 설립되었다. 1970년대 이전의 프랑스 정부는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이 실시되는 까닭에 국내에 비문해자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외국인 3~4%만을 비문해자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 민간단체에서 학교 교육을 받은 비문해자가 존재함을 주장하고 나섰으며, 1984년에는 프랑스 정부가 대학 연구소에 프랑스 내 비문해자에 관한 조사를 의뢰하여 비문해자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노동부 산하에 비문해 퇴치를 위한 기관이 발족되었다. 그 후 1998년

6) 프랑스 학술원에서는 《프랑스 학술원 사전》을 3,000부만 발간하지만, 일반 출판사에서는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고판으로 제작하여 별도로 판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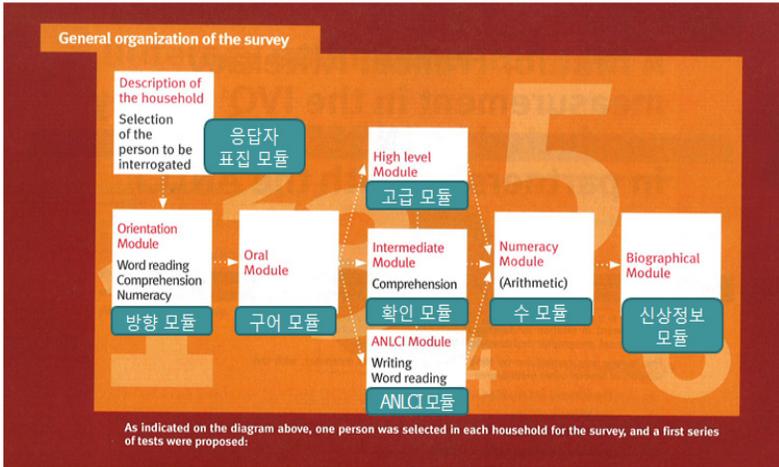
에는 리옹 지역의 시의원이 비문해 퇴치를 위한 전문 기구 창설을 주장하면서, 국가 비문해 퇴치원 설립의 발판이 되었다.

국가 비문해 퇴치원은 주로 프랑스 국민의 문해력을 조사하기 위해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실제로 조사하여 통계 결과를 평가한다. 또한 비문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여러 도구를 개발한다.

사실 프랑스의 문해력 조사는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다. 1980년에는 이전 통계 조사 내용 중 문해력과 관련한 문항의 결과를 이용하여 문해율을 간접적으로 조사하였으며, 1994년에 OECD에서 실시하는 '국제적 성인 비문해도 조사'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중간 조사 결과 비문해율이 42%로 집계되고, 조사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어 중도에 포기하게 되었다. 그리고 4년 뒤인 1998년 재조사에는 불참을 선언하였다. 프랑스 정부는 2000년 발족된 국가 비문해 퇴치원을 중심으로 실제적인 문해력 조사를 독자적으로 실시하였다. 2002년에는 프랑스 10개 지역의 2,100명을 대상으로 문해력을 조사하였으며, 조사 대상 중 880명을 선택하여 1994년 OECD 조사 내용과 동일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외국인을 포함한 비문해율은 15%로 집계되었다. 2005년에는 해외 지역의 문해력을 조사하였으며, 2011년에는 프랑스 내 문해력을 재조사할 방침이다.

이 원에서 실시하는 문해력 조사는 OECD에서 실시하는 국제적 성인 비문해도 조사 방법과는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첫째, OECD의 조사는 국가별 비문해율을 횡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국제적 통계 조사인 반면 국가 비문해 퇴치원의 조사는 프랑스 국내의 조사로 국한된다. 그들은 언어권마다 각자의 문화가 있고, 사고방식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국제적 조사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둘째, OECD의 조사는 문해력을 평가하여 0점에서 100점 사이의 절대 점수를 부여하는 반면 국가 비문해 퇴치원의 조사는 비문해의 기준을 정하고 도달과 미달로 평가한다. 그들은 비문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국민을 대상으로 비문해 퇴치 활동을 펼친다.

또한 문해력을 조사하기 위한 평가 도구를 다음과 같이 개발하였다.



여기에 제시된 모듈의 기능과 구성은 다음과 같다.(허준 외 2010: 83~84)

모듈명	기능	모듈 구성
방향 모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모듈에서 얻은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의 모듈로 안내하는 역할</li> <li>이 모듈의 결과에 따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제없는 부류(대상자의 80%) ⇨ 고급 모듈 안내</li> <li>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부류(대상자의 20%) ⇨ ANLCI 모듈 안내</li> <li>두 부류 사이에 있는 부류 ⇨ 확인 모듈로 안내. 검사 계속</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어 읽기</li> <li>간단한 텍스트(TV 프로그램)의 이해를 묻는 질문</li> <li>간단한 계산 문제</li> </ul>
구어 모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어 메시지를 이해하는 능력 측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 안전, 일기 예보를 녹음한 메시지를 듣고 이해 능력 측정</li> </ul>
고급 수준 모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급 수준 조사 대상자의 문해력 측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텍스트 이해 수준 측정</li> </ul>

확인 모듈	- 텍스트 이해 능력을 측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고급 모듈과 ANLCI 모듈로 안내	- 텍스트 이해 수준 측정
ANLCI 모듈	- 낮은 수준의 조사 대상자의 문해력 측정	- 단어 받아쓰기 (시장 보기 목록) - 단어 읽기(CD 커버와 곡명)
수 모듈	- 산술 능력 측정	- 일상생활에 필요한 산술 문제 예) 역에서 X명의 사람이 타고, Y 명의 사람이 내렸다. 여행자의 증감은?
신상 정보 모듈	- 응답자의 신상 정보 파악을 위한 모듈	

국가 비문해 퇴치원은 이처럼 비문해 퇴치를 위한 도구를 개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활동하는 비문해 퇴치 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감시·조정하는 일도 한다. 프랑스 국내와 해외 영토를 28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그 지역의 비문해 퇴치 단체의 활동에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또한 활동 결과를 통해 그들의 활동을 조정하기도 한다.

#### 2.4.3. 프랑스어권 국제기구(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 la Francophonie)

프랑스어권 국제기구는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70개 회원국과 프랑스 정부 사이의 적극적 연대를 구축하기 위해 1970년에 설립되었다. 이들은 프랑스어권 대학생 기구(Agency University Francophonie)나 프랑스어 사용 국가의 단체와 협력하여 프랑스어를 국제어로 활성화시키고, 전 세계적인 문화와 언어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여러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외에도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에 민주화 절차를 도입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이 국제기구는 프랑스어를 제1 언어나 제2 언어로 사용하는 국가에 프랑스어로 교육을 실시하여 프랑스어를 진흥시키는 일을 한다. 그래서 매년 프랑스어 사용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데, 국가별 상황에 따라 여러

방식을 적용한다. 인구 조사 질문지에 설문 내용을 삽입하기도 하고(캐나다 퀘벡 등을 포함한 20개 국가에서 시행), 교육 과정을 프랑스로 구성된 국가의 취학을 통계를 인용하기도 하며(아프리카 국가의 경우), 실태 조사를 직접 실시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매년 세계의 프랑어 현황에 대한 보고서로 작성한다. 가장 최근에는 2010년 10월에 《La langue française dans le monde 2010》가 발간되었다.

또한 프랑어와 프랑스 언어들 총국(DGLF)과 함께 ‘프랑어 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프랑어 주간’ 행사는 1988년 3월 20일에 지정된 ‘세계 프랑어권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1996년부터 매년 3월 20일 즈음에 세계 각국에서 개최된다. 주로 프랑어와 관련한 기념행사를 하는데, 이 중에서 흥미로운 행사가 ‘10개 단어로 말해요’이다. 매년 프랑어를 사용하는 5개국 위원회에서 10개 단어<sup>7)</sup>를 선정하고, 단어마다 시인, 작가 등의 멘토를 지정한다. 멘토들은 10일 동안 자신의 단어에 대해 청중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다. 이 외에도 이 10개의 단어를 주제로 글짓기, 말하기 대회 등이 실시된다.



〈10개의 단어로 말해요〉

7) 2010년에는 ‘영혼, 다르다, 성격, 집, 부탁해요, 역사, 자연, 경향, 꿈, 교통’을 선정하였다.

### 3. 맺음말

지금까지 프랑스의 언어 정책 기관과 언어 정책 현황을 살펴보았다. 프랑스의 사례를 살펴보면, 언어 정책을 전담하는 기관의 소속 및 업무가 우리나라와 유사함을 알게 되었다. 프랑스의 언어 정책 기관인 프랑스어와 프랑스 언어들 총국과 우리나라의 국립국어원은 문화부(문화소통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 기관으로 문화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다. 부서의 구성 및 업무 또한 유사하여 대칭을 이룰 정도이다. ‘프랑스어 사용과 보급부·프랑스의 언어들부 대 어문연구팀’, ‘언어 능력과 교육부 대 국어 능력 발전과’, ‘프랑스어 진흥과 현대화부 대 공공언어지원단’, ‘공익 실현과 발전부 대 언어정보팀’. 다만 프랑스에서는 문해 교육과 외국에서의 프랑스어 보급을 교육부와 외무부가 담당하고, 사전 편찬을 프랑스 학술원이 담당하지만, 국립국어원은 이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언어 정책에서도 공통분보를 가지고 있었다. 첫째, 영어화가 거세지면서 자국어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법률적 틀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는 ‘프랑스어 사용법’을 통해 프랑스어 사용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어 기본법’을 통해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둘째, 전문 분야의 신어가 꾸준히 유입됨에 따라 신어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순화어로 대체하는 일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전문 용어 순화 및 표준화를 위한 절차도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다. 프랑스는 행정부 18개 부처의 전문 용어 위원회와 프랑스어와 프랑스 언어들 총국의 ‘프랑스어 진흥과 현대화부’, 프랑스 학술원 등이 협력하여 신어를 순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어 기본법에 따라 각 중앙 행정 기관에 설치된 전문 용어 표준화 협의회와 국립국어원의 공공언어지원단, 순화 위원회 등이 협력하여 전문 용어를 순화하고 있다. 다만 프랑스에서는 신어의 순화 과정 전체를 명목상이지만 국무총리가 감독한다는 점에서 차

이를 보였다.

또한 프랑스의 언어 정책은 몇 가지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프랑스는 세계적인 문화와 언어의 다양성을 기반으로 프랑스어를 보급한다. 국내에서는 프랑스어를 제외한 2개 언어 교육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외에서는 언어 다양성 유지를 프랑스어 국외 보급을 위한 철학적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체계적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 철학적 기반을 다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언어 정책을 수립할 시기가 되었다.

둘째, 프랑스는 프랑스어 교육 과정을 대상에 따라 다르게 마련하고 있다. 프랑스어를 제2 언어로 배우는 외국인 학생을 위해서는 FLE 과정을, 학습 프랑스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서는 FLSco 과정을, 이민 가정을 위해서는 CASNAV 과정을 적용하고 있었다.

셋째, 프랑스어와 프랑스 언어들 총국과 프랑스어권 국제기구가 개최하는 '프랑스 주간'의 행사 내용이 다양하고 유익하다.

마지막으로 이번 출장의 목적이기도 한 국립국어원이 국외 언어 정책 기관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우리나라의 언어 정책을 내실화하고 다각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첫째, 언어 정책을 연구하고 수립하는 기관과의 국제 교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번 방문 기관인 프랑스 언어 정책 기관을 비롯하여 세계 언어 정책 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해야 할 것이다. 일차적으로는 해당국의 연간 보고서를 공유하고, 세계 대표 언어 정책 기관에서 개최하는 국제 학술 대회 등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가 간 언어 정책 추진 현황을 교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국립국어원은 2010년에 개원 20주년 기념으로 개최했던 국제 학술 대회를 정례회하여 2년마다 국제 학술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둘째, 기관 간 정책·주요 사업을 공유하는 데에서 나아가 유사 사업의 공동 추진으로 언어 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순화어 사용 실태 조

사, 국어 능력 조사, 언어 의식 조사 등을 공동으로 실시하여 비교할 수 있으며, 모어 능력 향상을 위한 공동 사업을 기획·추진하거나 영어의 침투나 소수어의 보존, 나아가 소수 민족의 언어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김현권(2003), 프랑스 모국어 보호 정책과 법제, 《새국어생활》 제13권 제2호.
- 송기형(1998), 인터넷을 통한 프랑스의 언어 정책 연구 -불어 총괄국의 설립 과정, 《한국프랑스학논집》 제25집.
- 송기형(2000), 프랑스의 언어 정책, 《역사비평》 제52호.
- 송기형(2005), 국어 기본법과 프랑스어 사용법의 비교 연구, 《한글》 제269호.
- 송기형·장천현(1999), 프랑스 언어 정책과 불어 사용법, 《한국프랑스학논집》 제27집.
- 이충현(2007), 《세계 언어 정책 기관 조사》, 국립국어원.
- 허준 외(2010), 《성인 문해 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 사업 성과 분석 연구》, 평생교육진흥원.
- 장 프랑수아 발디(2011), 프랑스의 언어 정책, 《세계 언어 정책의 현황과 과제》, 국립국어원.

## 관련 누리집

- 국가 비문해 퇴치원 <http://www.anlci.gouv.fr/>
- 프랑스 정부 관보 <http://www.journal-officiel.gouv.fr/>
- 프랑스 학술원 <http://www.academie-francaise.fr/>
- 프랑스어권 국제기구 <http://www.francophonie.org/>
- 프랑스어와 프랑스 언어들 총국 <http://www.culture.gouv.fr/culture/dglf/>



---

# 국립국어원 소식

---

## I . 국립국어원 주요 행사

### 1.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국제 학술 대회 개최

- 분단과 통합을 경험한 나라의 다양한 정책 사례 발표 -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은 남북 언어 통합의 나아갈 길을 살펴보기 위해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험을 한 나라의 언어 정책 전문가 7명을 초청하여 '체제 통합과 언어 문제'라는 주제로 11월 23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남북 언어 통합 국제 학술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 대회는 체제 분단과 통합을 경험한 나라들의 언어 통합 관련 사례를 살펴 남북한 언어 통합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행사 명: '체제 통합과 언어 문제' 국제 학술 대회</li><li>· 주최·주관: 국립국어원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li><li>· 행사 일: 2011년 11월 23일(수)</li><li>· 장 소: 서울 국립고궁박물관</li><li>· 참가 인원: 국내외 남북 언어 관련 전문가 100여 명</li></ul> |
|--|

이번 국제 학술 대회의 발표자로는 중국, 마카오, 타이완, 베트남, 미국의 언어 정책 관련 전문가 5명을 초청하였고, 연세대학교의 김하수

교수가 기조연설을 맡았다. 한국의 남북 언어와 관련한 주제에 대해서는 국립국어원 조남호 어문연구실장이 발표하였다.

국립국어원은 그동안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해 왔고, 남북 공동 학술 대회를 7차에 걸쳐 개최하였다. 최근에는 제3국에서 재외 동포 언어 전반을 주제로 학술 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체제의 분단과 통합이라는 유사한 경험을 한 나라들이 이 과정에서 발생한 언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남과 북의 언어 통합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2. 표준 화법 보안을 위한 토론회 개최

- 그동안 인정받지 못한 ‘매제’, ‘제부’, ‘엄마’ 등 논의 -

국립국어원에서는 표준 화법 보안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11년 11월 2일(수) 오후 3시 한글회관 열말글교육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강재형 MBC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았으며, 한재영 한신대 교수가 표준 화법 보안안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강성곤 KBS 아나운서, 리의도 춘천교대 교수, 정미경 소설가, 채완 동덕여대 교수가 이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성장 후에도 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거나 가리킬 수 있다는 안에 대하여 ‘성장 후’라는 기준에 대한 세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엄마’를 허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반하여 현실적으로 ‘엄마’가 많이 쓰이고 있으므로 포용성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반론이 있었다.

여동생의 남편을 ‘제부’, ‘매제’라고 부르거나 가리킬 수 있다는 안에 대해서는 이미 언중들이 널리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관계를 나타내기 에 적절하므로 수용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남편을 ‘신랑’으로 가리킬

수 있다는 안을 두고 국민들의 사용 빈도가 높더라도 격식에 맞지 않는 말이므로 표준 화법으로 권장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지난 4월부터 10차례에 걸쳐 열린 자문 위원회에서 표준 화법 보완안을 마련하였으며, 국립국어원은 보완된 표준 화법안에 대한 국민 각계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자 한다.

국립국어원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각계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표준 화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를 앞으로 국어심의회에 부칠 계획이다.



### 3. 한국어는 내가 최고! '제2회 외국인 한국어 겨루기' 개최

- 2010년~2011년 각종 한국어 말하기 대회 수상자들이 모여서 최고를 가리는 대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이 주최하고 KBS 한국어진흥원이 주관한 '제2회 외국인 한국어 겨루기' 대회가 9월

23일(금)에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개최되었다.

작년에 이어 2번째인 이번 대회는 2010년~2011년에 개최된 각종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수상자들이 모여 최고를 가리는 '왕중왕전'으로 기획되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한국어 학습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유학생뿐만 아니라 결혼 이주 여성과 외국인 노동자도 참여하여 더욱 더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16개국 40명의 외국인이 참가하여 조별 토론, 개인 발표, 한국 문화 퀴즈 등 단계별 경연 과정을 통해 한국어 실력을 겨루었다. 그 외에도 전통 놀이 체험, 한지 공예 등을 통하여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었다.

이번 대회의 수상자 5명은 한글날을 기념하여 10월 10일에 방송된 KBS '우리말 겨루기' 특집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다시 한 번 실력을 겨루었다.

#### 4. 2011 국어 정보 처리 시스템 경진 대회 후기

##### - 국어 말뭉치 및 사전 활용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정보과학회 언어공학연구회(위원장 이근배)가 개최한 '2011 국어 정보 처리 시스템 경진 대회'(조직위원장 이재성)가 10월 7일 서울 교육문화회관 별관 2층 금강 A홀에서 열렸다.

2009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경진 대회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국어 정보화 사업의 결과물을 활용하여 다양한 국어 정보 처리 시스템의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통하여 국어 정보 처리 관련 인력을 양성하고자 개최되었다.

응모작 중 예심을 거친 9개의 작품이 본선에서 승부를 겨루었는데

대상은 울산대학교 신준철 팀이 제출한 'U Tagger: 한국어 문장에 대한 품사 및 동형 이의어 태깅 시스템'이 차지했다. 'U Tagger'는 21세기 세종 계획 말뭉치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말의 형태와 의미 분석 정보를 제공하는데, 사용자가 직접 형태 분석 사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이다.

금상은 개인 개발자 최시영의 '세종 시맨틱 검색'이 차지했는데, 이 작품은 세종 전자사전의 정보를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검색해 볼 수 있게 한 시스템이다. 은상은 연세대 김용목의 '〈날개셋〉 한글 입력기'와 건국대 김현수 팀의 '도전! 우리말'이 차지했다.

이번 경진 대회에는 'SKA(Sogang Korean Dependency Analyzer)', '학습 기능 품사 부착 도구', '너랑 나랑은(단어 연관 관계 조사 프로그램)' 등 21세기 세종 계획 말뭉치를 활용한 실용적인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출품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에서는 앞으로도 한국어 정보 처리 분야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이번 대회의 본선 진출 작품은 올해 말 완료 예정인 '언어 정보 자원 공유 시스템'(가칭)을 통해 모두 공개하여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진 1〉 발표



〈사진 2〉 대상 수상



〈사진 3〉 본상 수상자와 함께

## 5. 국어 교과서를 통해 살펴보는 한민족 100년의 역사

- 국립국어원 ‘디지털 한글박물관’

〈한민족 일깨우다! 국어 교과서 한 세기 특별전〉 개최 -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은 565돌 한글날을 맞이하여 여섯 번째로 디지털 한글박물관 특별 기획전(<http://www.hangeulmuseum.org>)을 열었다. 이번 전시회는 국어 교과서의 과거와 현재를 아울러 살펴볼 수 있도록 〈한민족 일깨우다! 국어 교과서 한 세기 특별전〉으로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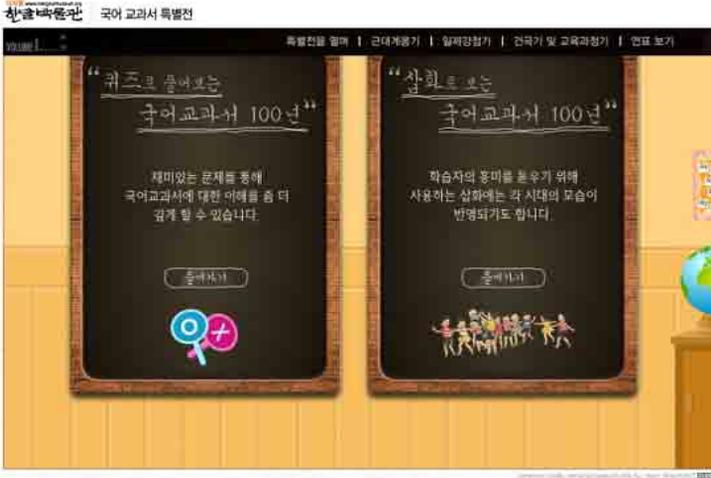
이번에 개최하게 된 디지털 한글박물관 〈한민족 일깨우다! 국어 교과서 한 세기 특별전〉에서는 근대 이후 우리의 말과 글을 교육하는 데 쓰였던 대표적인 국어 교과서 66종을 근대 계몽기, 일제 강점기, 건국기 및 교육 과정기의 세 시기로 나누어 전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 교육 기관인 '육영공원'의 학습용 교재로 쓰이며 근대 교재의 효시로 불리는 《사민필지(士民必知)》부터, 학부(學部)에서 편찬한 최초의 국정 국어 교과서 《국민소학독본(國民小學讀本)》, 《신정심상소학(新訂尋常小學)》 등 근대 계몽기의 국어 교과서가 이번 기획전에 전시되어 있다.

또한 1910년 강제 병합의 결과 우리말을 빼앗기고 '조선어(朝鮮語)' 또는 '조선어급한문(朝鮮語及漢文)' 교과로서 배워야 했던 일제 강점기의 여러 《조선어독본(朝鮮語讀本)》·《조선어급한문독본(朝鮮語及漢文讀本)》 교재들, 해방 이후 본격적인 교육 과정기가 열리면서 편찬된 건국기 및 교육 과정기의 국어 교과서들까지 이번 전시회에 소개되어 있어 국어 교과서를 한 세기의 흐름에 따라 살펴볼 수 있다.

별도로 마련한 기획관에서는 각 시대별 교과서에 쓰였던 삽화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삽화의 시대적 배경과 그 속에 숨어 있는 교육적 의미를 찾아볼 수 있도록 삽화와 함께 그 의미를 쉽게 풀이한 설명문을 수록하였다. 또한 각 시대별 전시 내용을 담은 문제(퀴즈)를 마련하여 방문객들이 관람한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그림 3〉 기획관



〈그림 4〉 기획관 삽화 특집

시대가 바뀌면서 다양한 시칭각 교재와 교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서야말로 가장 오랫동안 우리 교실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한

대표적인 교육 자료이자 교구이며, 세기를 거듭하며 발견한 인간의 모든 지식과 지혜, 경험들을 담고 있는 진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근대적인 의미에서 한 세기를 이룬 국어 교과서의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도록 시기와 주제별로 전시관을 구성하였다.

매년 10월 5일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교과서가 만들어진 날을 기념하기 위한 ‘교과서의 날’이다. 이번 특별 기획전 <한민족 일깨우다! 국어 교과서 한 세기 특별전>은 이러한 의미를 되새기고자 ‘교과서의 날’에 맞추어 시작하였다. 10월 5일부터 언제든지 디지털 한글박물관 누리집(<http://www.hangeulmuseum.org>)을 방문하여 이번 특별 기획전을 관람할 수 있다.

## II. 국립국어원 주요 활동

### 1. 행정 기관 보도 자료, 국어 사용에 많은 문제점 드러나

- ‘개서(開署)’, ‘팽윤(膨潤)’, 탄키 공사, UEP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이 공공 기관의 국어 사용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40개 중앙 행정 기관과 16개 광역 지방 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기관에서 생산된 보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정 오류가 반복적으로 나타나 국어 사용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국어원은 2011년 1월에서 4월 사이에 56개 행정 기관에서 생산한 보도 자료 3건씩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국어 사용 실태를 진단하였다.

이번 진단은 2010년도에 국립국어원이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민현식 교수 연구진에 의뢰하여 개발한 ‘공공 언어 진단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실시하였다. 이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은 15개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이를 활용하면 ‘정확성’ 400점, ‘소통성’ 600점의 1,000점 만점

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다. 특히 이번 진단 기준은 기존의 공공 기관 언어 평가가 정확한 국어 사용에만 초점을 두었던 것을 극복하고자 소통성을 진단하기 위한 방법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또한 생산된 공공 기관 언어의 분량에 따라 진단 결과가 좌우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통계적 처리 절차를 구안하였다.

‘소통성’ 항목에서는 ‘한눈에 쏘옥’, ‘생생(生生) 사업’처럼 구어체를 쓰거나 부적합한 한자어를 만들어 공공 언어의 품격에 맞지 않는 표현이나 ‘장애인들 사이에서 결혼을 하려면 맞선 대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으로 인식된다.’와 같은 차별적 표현 사례가 지적되었다. 또한 하나의 보도 자료 안에서 ‘-습니다’와 ‘-다’의 종결 어미를 통일하여 쓰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문단 전환이 명료하지 않아 의미 파악을 어렵게 하거나 문단이 바뀔 때마다 불필요한 번호를 붙이는 관행에 져어 있는 기관 등도 있었다. 또한 문장이 지나치게 긴 경우가 많아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어휘상으로는 ‘개서(開署)’, ‘팽윤(膨潤)’과 같은 어려운 한자어를 쓰는 경우, 부가 설명 없이 ‘턴키 공사, UEP’와 같은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타깃, 글로벌, 피니시’처럼 불필요한 외래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지적되었다. 팽윤(膨潤)은 의학 분야에서 쓰이는 전문 용어로 디스크가 부어오르는 과정이다. 팽윤(膨潤)이 더 많이 진행된다면 ‘허리 디스크’로 까지 가게 된다. 따라서 보도 자료 본문에 ‘팽윤’에 대한 설명을 넣는 것이 필요하다.

개선 대상 용어	개선한 용어	구분
개서(開署)	개설 또는 신설	한자어
팽윤(膨潤)	(디스크) 붓기	한자어
턴키 공사(Turn key-)	일괄 수급 공사	외국어
UEP(Uranium Enrichment Program)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UEP)	외국어 문자
글로벌(Global)	국제	외국어
피니시(Finish)	끝	외국어
T/F팀(Task Force Team)	특별팀	외국어
인프라(Infra)	기반	외국어

다음으로 ‘정확성’ 항목에서는 4대 어문 규범인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을 지키지 않은 표현이 나타났다. 이러한 사례로는 ‘걸맞은 → 걸맞은’, ‘컨텐츠 → 콘텐츠’, ‘캡쳐 → 캡처’, ‘자연스런 → 자연스러운’, ‘(이해와 관심을) 확산시킴으로서 → 확산시킴으로써’ 등과 같은 예들이 지적되었다. 또한 ‘학교, 군부대 등 순회 전시 및 사이버 전시 등’의 표현처럼 ‘등’의 불필요한 반복으로 의미 파악에 모호함을 주어 정확성을 생명으로 하는 공공 언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경우나 ‘238천 원’의 표현처럼 우리말답지 않은 표현들도 다수 지적되었다.

진단 결과, 정확성과 소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각종 오류를 줄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 행정 기관 40곳과 광역 지방 자치 단체 16곳의 3개 보도 자료에 대한 평균 점수를 환산하여 ‘우수, 보통, 미흡’으로 등급화하였다. 이 등급화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 평가를 한 것인데 ‘우수, 보통, 미흡’의 등급 사이의 점수 차이는 큰 편차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이나 ‘미흡’으로 진단된 기관들은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중앙 행정 기관보다 지방 자치 단체의 보도 자료에 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앞으로 지방 자치 단체의 보도 자료 개선이 더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 국립국어원은 공공 기관이 생산하는 보도 자료의 정확성과 소통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우선, 보도 자료 작성 지침서를 올 연말에 발간해서 중앙 행정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에 배포하여 보도 자료 작성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각 기관을 상대로 보도 자료 작성에 담당할 실무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미 2011년 상반기에 국어단체 연합 국어문화원과 서울시에서 공동으로 실시한 서울시 소속 공무원 대상 ‘맞춤형 보도 자료 바로 쓰기’ 교육에 국립국어원 연구직이 강의에 참여한 바 있다.) 나아가 국립국어원은 이번 진단 결과를 각 공공 기관에 통보한 뒤,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1년 10월 말에 한 차례의 진단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 기관 및 공공 기관은 해당 기관에서 배포하는 보도 자료가 국민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한층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초부터 대변인실에 계약직 국어 전문가를 채용해서 보도 자료가 배포되기 전에 문장을 다듬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기관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 2. 추석 특집 오락 프로그램 저품격 언어 사용 심각

### - 국립국어원, 예능 프로그램 언어 조사 결과 및 대안 발표 -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은 방송 3사 추석 특집 오락 프로그램의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저품격 언어 표현이 다수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추석 특집으로 방송된 지상파 방송 3사의 추석 특집 오락 프로그램(KBS-2TV **얕은 꼴 스타 총출동 -나는 가짜다, 코미디 한일전**, MBC-TV **아나운서 대격돌 최고의 며느릿감을 찾아라, 아이돌 스타 육상 선수권 대회**, SBS-TV **스타 커플 최강전, 한류 올림픽**)에서 나타나는 저품격 언어를 분석한 결과, 총 150건 이상의 저품격 방송 언어 사용 사례가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주로 지적한 것은 저품격 방송 언어 표현으로,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비속어, 은어, 비표준어 등을 대분류로 삼았다. 조사 결과,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사용이 가장 많이 드러났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이나 각종 은어들이 방송을 통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온 가족이 모여 시청하게 되는 명절 특집 방송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이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유형	사례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살림을 어떻게 개떡같이 하면은. <span style="float: right;">〈아나운서 대격돌〉</span> 결승점에서 애타게 손 흔드는 애완견(?) 소리 <span style="float: right;">〈아이돌 스타 육상 선수권 대회〉</span> 근데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span style="float: right;">〈스타 커플 최강전〉</span>
은어	깨알 같은 코믹연기까지~ <span style="float: right;">〈아나운서 대격돌〉</span> 사실 2AM은 조권 씨의 짹짹이잖아요, 짹을 한번 살짝 보시겠어요? <span style="float: right;">〈한류 올림픽〉</span> 개그계의 짐승남이시죠. <span style="float: right;">〈스타 커플 최강전〉</span>

명절 연휴,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대에 방송되는 명절 특집 오락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의 내용은 물론, 바르고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바른말 사용의 중요성에 대한 진행자와 제

작진의 각성이 필요하다. 또한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은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불필요한 외래어 및 외국어, 은어의 사용도 가능하면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 3.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 3.1. ‘트라우마(trauma)’는 ‘사고후유(정신)장애’로

국립국어원의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에서는 ‘트라우마(trauma)’의 다듬은 말로 ‘사고후유(정신)장애’를 최종 선정하였다. ‘트라우마’는 ‘과거 충격적인 사건의 경험이 현재까지 정신적 고통과 상처로 남아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국립국어원은 ‘트라우마’를 갈음할 우리말을 확정하기 위하여 누리꾼이 제안한 414건 가운데, 원래 의미를 잘 살리면서 우리말의 단어 구성에 맞는 ‘사고후유장애’, ‘충격장애’, ‘충격후유장애’, ‘충격후유증’을 후보로 하여 투표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모두 1,448명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사고후유장애’는 665명(45%), ‘충격장애’는 230명(15%), ‘충격후유장애’는 289명(19%), ‘충격후유증’은 264명(18%)이 지지하였다. 따라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사고후유장애’가 ‘트라우마’의 다듬은 말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번 ‘트라우마’의 다듬은 말로 결정된 ‘사고후유장애’는 ‘사고로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신경이 손상되는 등의 신체적인 후유 장애’를 지칭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정신적 상처임을 분명히 보일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고후유정신장애’로 쓸 수 있도록 다듬은 말을 ‘사고후유장애’ 또는 ‘사고후유정신장애’로 정하였다. 이에 ‘트라우마’의 다듬은 말로 ‘사고후유(정신)장애’를 최종 선정하였다.

#### 3.2. ‘커밍아웃(coming-out)’의 다듬은 말은 말은 선정하기 않기로

국립국어원의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에서는 ‘커밍아웃

웃(coming out, 동성애자가 가족, 직장, 학교, 일반 사회를 대상으로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의 다듬은 말을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국립국어원은 '커밍아웃'을 갈음할 우리말을 확정하기 위하여 누리꾼이 제안한 354건 가운데, '공개 고백', '동성애 선언', '동성애자 선언', '성 정체성 공개'를 후보로 하여 투표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모두 1,593명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공개 고백'은 253명(15%), '동성애 선언'은 311명(19%), '동성애자 선언'은 342명(21%), '성 정체성 공개'는 687명(43%)이 지지하였다.

그러나 이번 '커밍아웃'의 다듬은 말 후보 중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성 정체성 공개'는 알기 쉽고 부르기 쉬운 말이 아니어서 널리 사용되리라 보기 어렵다. 이에 국립국어원에서는 '커밍아웃'의 다듬은 말을 선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 3.3. '팜 파탈(femme fatale)'은 '매력악녀'로

국립국어원의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에서는 '팜 파탈(femme fatale)'의 다듬은 말로 '매력악녀'를 최종 선정하였다. '팜 파탈'은 '남성을 치명적이거나 파멸적인 상황으로 이끄는 매력적인 여자를 이르는 말이다.

'팜 파탈'을 갈음할 우리말을 확정하기 위하여 누리꾼이 제안한 373건 가운데, '가시미인', '매력악녀', '매혹악녀', '매혹요부'를 후보로 하여 투표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모두 1,285명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586명(45%)이 지지한 '매력악녀'가 '팜 파탈'의 다듬은 말로 결정되었다.

### 3.4. '싱크로율(synchro率)'은 '일치율'로

국립국어원의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에서는 '싱크로율(synchro率)'의 다듬은 말로 '일치율'을 최종 선정하였다. '싱크로율'은

어떤 요소와 요소가 합쳐지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완성도’ 또는 ‘정확도’와 비슷한 말로 쓰인다.

‘싱크로울’을 갈음할 우리말을 확정하기 위하여 누리꾼이 제안한 290건 가운데, ‘일치울’, ‘합치울’, ‘동화울’, ‘닳음비’를 후보로 하여 투표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모두 1,427명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969명(67%)이 지지한 ‘일치울’이 ‘싱크로울’의 다듬은 말로 결정되었다.

### 3.5. ‘인저리 타임(injury time)’은 ‘추가시간’으로

국립국어원의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에서는 ‘인저리 타임(injury time)’의 다듬은 말로 ‘추가시간’을 최종 선정하였다. ‘인저리 타임’은 축구 경기에서 전·후반 각 45분의 정규 시간 이후 주심이 재량에 따라 추가로 허용하는 시간을 이르는 말이다.

‘인저리 타임’을 갈음할 우리말을 확정하기 위하여 누리꾼이 제안한 296건 가운데, ‘덤시간’, ‘보충시간’, ‘추가시간’, ‘추가허용시간’을 후보로 하여 투표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모두 1,291명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855명(66%)이 지지한 ‘추가시간’이 ‘인저리 타임’의 다듬은 말로 결정되었다.

## 4. 2011년 제4회 원내 토론회 후기

국립국어원에서는 2011년 제4회 원내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다.

주 제	국어사전의 역할과 어문 규범 정책 프랑스 언어 정책 기관 탐방 보고
발표자	이승재 언어정보팀장 정희원 어문연구팀장, 위진 학예연구사
일 시	2011년 10월 18일(화)
장 소	국립국어원 2층 대회의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먼저 이승재 언어정보팀장이 다음과 같은 주제로

발표하였다.

- 1) 국어사전의 역할과 표준국어대사전
- 2)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과 국어사전
- 3) 어문 규범 정책과 남은 문제들

발표자는 사전이 종이 사전, 디지털화된 사전, 기계 처리용 전자사전, 전자사전(언어 지식 사전)의 네 단계로 진화한다는 점을 보여 주고, 각각의 단계에 맞는 국가 기관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표준국어대사전》의 모호한 성격이 중점적으로 지적되었는데, 특히 ‘규범 사전’으로서의 위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비표준어, 특정 지역 방언 등이 《표준국어대사전》에 들어가는 것이 적합한가 하는 문제에서부터 북한어 수록 문제까지가 쟁점이 되었다.

《표준국어대사전》의 여러 가지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립국어원에서는 현재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을 구축하고 있다. 이 사전은 실생활 언어 정보를 보완하고 확장하기에 유리하며 국제적이고 표준적인 사전 구조에 따라 설계하여 범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개별 뜻풀이를 사전 항목의 최소 관리 단위로 설정하여 최소 관리 단위를 동음이의어가 아닌 다의어 수준으로 설정한다. 이로써 국내외 자료와의 연계, 말뭉치 분석, 어휘 의미망 구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쉬운 뜻풀이’를 지향하며 어려운 한자어의 순환 풀이 등 뜻풀이와 관련하여 지적된 문제점을 수정한다. 그리고 신어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의 가장 큰 특징은 사용자가 직접 사전 편집에 참여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와 같은 방식의 사전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한국어 학습용 다국어 사전〉도 구축하여 몽골어, 베트남어, 타이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사용자들이 한국어 학습에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은 현재 사전의 기본 구조를 구축하는 1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에 규범 사전과 구어 사전을 구축

하고 수요자 맞춤형 언어 정보 활용 시스템을 구축하며 다국어 사전도 15개 언어 사전을 추가로 구축하는 등의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그런데 사전 편찬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어문 규범’ 문제로서, 언어 현실과 규범의 괴리를 어떻게 좁힐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부터 성문화된 규범에 대한 용례를 제공하는 문제, 표준어의 범주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문제 등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힌다.

토론 과정에서는 언어 현실과 규범의 괴리 문제와 이를 사전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이승재 언어정보팀장에 이어 정회원 어문연구팀장과 위진 학예연구사가 지난 9월 말에 다녀온 프랑스의 언어 정책 기관을 소개하고 방문 성과를 발표하였다.

먼저 국립국어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프랑스어와 프랑스 언어들 총국에서 프랑스어 보급, 프랑스어 실태 조사, 전문 용어 순화, 공익 실현 등을 어떻게 추진하는지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외무부에서 프랑스 문화원, 프랑스 학술원 등 외국의 프랑스어 교육 기관과 어떻게 협력하는지를 알아보았다. 1635년에 설립한 프랑스 학술원은 프랑스어 진흥 기관으로서 현재 대다수의 프랑스인이 사용하는 공통 프랑스어 사전을 편찬하고 있다. 현재 출판 중인 9판은 인터넷 판을 발간하고 사전에 등재하기 전에 정부 기관지에 발표하는 등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의 프랑스어 교육을 담당하는 곳은 교육부로서, 전체 학생의 3%를 차지하는 4만 명 상당의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 학생별 특성화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을 받았다.

프랑스에는 문해력 향상 사업을 주관하는 국가 비문해 퇴치원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주기적으로 프랑스 국민의 문해력을 조사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언어 정책의 역사가 긴 프랑스의 상황을 둘러본 것은 우리나라의 언어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점에 참석자들이 공감하였다.

## 5. 2011년 제5회 원내 토론회 후기

국립국어원에서는 2011년 제5회 원내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다.

주 제	1980년~1990년대 어문 규정 회고
발표자	정준섭(전 문교부 국어 편수관)
일 시	2011년 11월 3일(목)
장 소	국립국어원 2층 대회의실

이번 토론회에서는 1980년대 후반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을 개정하는 데에 실무를 담당하셨던 정준섭 선생님이 ‘1980년~1990년대 어문 규정 회고’란 주제로 발표하였다.

### 5.1. 어문 규정의 출발

어문 규정은 세종대왕 때에도 표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나 문서로 전해진 바는 아직까지 없다. 문서로 나타난 것은 1912년 조선 총독부의 ‘언문 철자법’이 처음이다. 그리고 1930년대에 이르러 개정 철자법이 발표되고, 이는 다시 1933년에 제정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바탕이 된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표의주의 표기를 표음주의 표기로 개선한 표기법이다. 그 후 해방 전까지 한글학회에서 어문 규정을 여러 차례 수정하였으며, 해방 이후에는 어문 규정 관련 사업이 문교부로 이관된다. 그러나 해방 직후의 어수선한 상황에서 어문 규정과 관련한 사업은 진행되기 어려웠다. 군

정청 법령 제4호(1945. 9. 29.) 제6조 “교훈 용어는 조선어로 한다.”라는 정도의 내용만 남아 있다. 그러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다. 이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이 우리나라 어문 정책의 법률적 출발이 된다.

## 5.2. 어문 규정 개정 과정

박정희 대통령은 1968년 ‘한글 전용 정책’을 시행하고, 그해 10월 문교부에 ‘알기 쉬운 표기법’ 연구 계획을 지시한다. 이로써 어문 규정 개정 작업이 시작되고, 그 업무는 문교부 편수국이 담당한다. 당시 문교부 편수관으로는 이병호 편수관과 정진권 편수관이 있었으며, 그들을 보좌하기 위해 최현섭 선생이 있었다. 그들은 어문 표기법(당시에는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을 통틀어 어문 표기법이라 부름.)의 개정 방향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국어조사연구위원회를 조직하고, 1970년에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1972년부터 실제로 개정 작업에 돌입하여, 1978년 완성한다. 완성된 후에는 국어심의회 위원, 문교부 장·차관, 실·국장, 일간지 편집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어심의회에서 문교부에 공식 보고하고, 대국민 설문 조사, 신문지상을 통한 의견 수렴, 시도별 공청회 등을 통해 광범위한 여론 조사를 실시한다. 1979년 7월에 어문 표기법 개정안을 완성하고, 당시 국어심의회 위원장인 허웅 선생님이 그 결과를 발표한다. 1979년 8월에 공개 답신회(학술원이 어문 표기법 개정안을 문교부에 공개 보고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1979년 12월에 문교부 최종 시안을 마련하였으나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발생하면서 민심 혼란을 우려하여 어문 규정 확정은 보류된다.

1980년 제5 공화국이 출범하고, 어문 규정을 담당했던 실무관들이 떠나면서 어문 정책은 표류하게 된다. 당시 문교부 장관은 학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추진하고, 어문 규정의 대외적 권위 제고, 국어 정책·교

육의 합리화를 피하기 위해 어문 정책 사업을 학술원에 이관한다. 그러나 학술원에는 법률 제정 및 공포권이 없어서 다시 문교부로 돌아온다.

이처럼 어문 규정 개정 사업이 표류하는 중에, 외국 유학과 출신의 청와대 비서관들이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의 시급함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매쿰-라이샤워 표기법에 따라 개정할 것을 주장하고, 정부는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학술원에 어문연구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어문연구위원회는 학술원의 인문 분과 회원이 주축이 되었으며,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담당하는 3개의 위원회로 구성되었다.

### 5.3. 어문 규정의 고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개정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어, 문교부는 1984년 1월에 개정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확정 고시한다. 그리고 학술원은 1984년 8월에 나머지 3개 표기법을 완성하고, 문교부에 보고한다. 그러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제외한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의 개정 고시는 난관에 부딪힌다. 한글 맞춤법 개정 내용에 찬성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이 팽팽하여, 당시의 문교부 장관들이 고시를 유보하였기 때문이다.

문교부는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1984년 국어연구소를 설립한다. 국어연구소는 1986년 개최된 아시안 게임의 선수 명칭 등의 외래어를 정확히 표기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1986년 1월에 외래어 표기법을 고시한다. 그리고 1988년 1월에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을 고시한다. 당시 문교부 편수국과 국어연구소에서는 신문 기자들이 개정된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에 대해 기사화하기 쉽도록 미리 기사문을 작성하고 배포하였다. 그러한 노력 덕택에 발표 당일 6대 신문에 1면 머리 기사를 차지하게 된다.

그리고 1988년 1월 중앙일보 사설에서는 어문 규정 개정 사업을 '모

범적인 정책 결정의 사례'로 꼽고, 문교부가 15년간 연구하고, 여론을 수렴한 모범적인 정책 결정의 사례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어문 규정 개정에 대해 당시에도 비판하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원내 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정준섭 선생님은 권재일 국립국어원장을 만나 1988년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이 완성되기까지의 국어심의회 회의 녹취 자료를 국립국어원에 기증하였다. 그리고 현재 어문 규정에 관한 일을 수행하는 국립국어원이 이 자료를 잘 활용할 것이라 믿어서 “국립국어원에 돌려준다.”라는 말씀을 덧붙이셨다.



## 6. 정부 · 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 제99차 정부 · 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심의 결정안

(2011. 10. 21.)

#### [인 명] -실무소위 부결

- 돌비, 앤드루 Andrew Dalby 1947~ 영국 언어학자 · 역사가 · 번역가.  
음식의 역사, 언어, 고대 문헌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해 집필. 최신작 《치즈의 역사(Cheese: a global history)》(2009). 2008년 국내 출간한 한글판 번역서 《언어의 종말(Language in Danger)》(2002)에서는 '앤드류 돌비'를 저자명으로 사용.
- 밀러, 자크 Jacques Miller 본명 자크 프랑시스 알베르 피에르 피니에 Jacques Francis Albert Pierre Meunier 1931~ 오스트레일리아 의학자 · 생물학자. 프랑스 니스 태생. 프랑스, 스위스, 중국 상하이에서 성장. 1941년 시드니로 이주.
- 버칸티, 조지프 (필립) Joseph P(hilip) Vacanti ?~ 미국 외과 의사 · 의학자. 하버드(Harvard)대 의학대학원 외과 교수.
- 블레델, (김벌리) \*알렉시스 (Kimberly) Alexis Bledel 1981~ 미국 여배우 · 패션모델. 휴스턴(Houston) 태생. 부친은 덴마크계 아르헨티나인.
- 서먼, 우마 (카루나) Uma (Karuna) Thurman 1970~ 미국 배우 · 모델. 불교학자 로버트 서먼(Robert Thurman)의 딸.
- 심프슨, 웨브 Webb Simpson 본명 제임스 프레더릭 심프슨 James Frederick Simpson 1985~ 미국 골프 선수.
- 아슈미드, 니켈 Nickel Ashmeade 1990~ 자메이카 육상 선수. 단거리 달리기 종목 선수.
- \*워즈니악, 스티브 Steve Wozniak 본명 스티븐 게리 워즈니악 Stephen Gary Wozniak 별칭 워즈 Woz 1950~ 미국 컴퓨터 기술자 · 프로그램

개발자. 애플 컴퓨터(Apple Computer: 현 애플 Apple) 공동 설립자 (1976. 4.).

- \*카다시안, 로버트 (조지) Robert (George) Kardashian Sr. 1944~2003 미국 법조인·실업가·변호사.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절친한 친구인 미식 축구 선수·영화배우 심프슨(O. J. Simpson)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잘 알려짐. 로스앤젤레스 태생. 아르메니아계 이민 3세. 패션모델·탤런트인 아들 카다시안(Robert George Kardashian, Jr.)과 동명임.
- \*카다시안 (험프리스), 김벌리 Kimberly Kardashian (Humphries) 본명 김벌리 노엘 카다시안 Kimberly Noel Kardashian 애칭 김 Kim 1980~ 미국 모델·배우. 사교계의 명사. 법조인·실업가 카다시안(Robert Kardashian)의 딸, 농구 선수 험프리스(Kris Humphries)의 부인.
- 칼레츠키, 아나톨 Anatole Kaletsky 러시아어명 Анато́ль Кале́цкий 1952~ 영국 언론인·경제 전문가. 모스크바 태생으로 1966년 영국으로 이주.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기자(1976~1979), 경제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 뉴욕 지국장을 거친 경제 전문 기고가. 저서 《디폴트의 대가(Cost of Default)》(1985), 《자본주의 4.0(Capitalism 4.0)》(2010).
- 코베리에르, 토마스 Tomas Kåberger 1961~ 스웨덴 물리학자. 일본 자연에너지재단(自然エネルギー財團) 이사장(2011. 8. ~). 스웨덴 에너지청 청장(2008. 3.~2011. 8.). 에너지 및 환경 분야의 전문가로 탈원전론자.
- 크루거, 앨런 (\*베넷) Alan B(ennett) Krueger 1960~ 미국 경제학자. 프린스턴(Princeton)대 교수. 재무부 경제 정책 자문보(2009. 5.~2010. 10.).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 지명자(2011. 8. 29.).
- 키넝, 글레니스 (\*엘리자베스) Glenys (Elizabeth) Kinnock 본명 글레니스 엘리자베스 패리 Glenys Elizabeth Parry 1944~ 영국 정치가. 외무부(FCO) 아프리카·국제 연합 담당 부장관(2009. 10.~2010. 5.), 유럽 담당 부장관(2009. 6.~2009. 10.). 웨일스(Wales) 대표 유럽의회 의

- 원(1994. 7.~2009. 6.). 전 노동당 당수 닐 키넉(Neil Kinnock)의 부인.
- 키넉, 스티븐 Stephen Kinnock 1970~ 영국 경영인. 스위스 비영리 재단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유럽 및 중앙아시아 담당 책임자(2009. 1.~ ).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 원장 역임. 전 노동당 당수 닐 키넉(Neil Kinnock)의 아들.
- 토르닝슈미트, 헬레 Helle Thorning-Schmidt 1966~ 덴마크 정치가. 총리(2011. 10.~ ). 사회민주당 당수(2005. 4.~ ). 유럽 의회 의원(1999. 6.~2004. 7.). 전 영국 노동당 당수 닐 키넉(Neil Kinnock)의 며느리.

#### [인 명] -새로 심의

- 리버, 제리 Jerry Leiber 본명 제롬 리버 Jerome Leiber 1933~2011 미국 작사가. 작곡가 마이크 스톨러(Mike Stoller)와의 공동 작업에서 엘비스 프레슬리(Elvis Presley)가 부른 '하운드 도그(Hound Dog)'(1956), '교도소 로큰롤(Jailhouse Rock)'(1957) 외에 '스탠드 바이 미(Stand By Me)' 등을 작사.
- 매퀸, 스티브 Steve McQueen 본명 테런스 스티븐 매퀸 Terrence Steven McQueen 1930~1980 미국 영화배우.
- \*먼데일(폴링), 엘리너(제인) Eleanor(Jane) Mondale(Poling) 1960~2011 미국 여성 방송인. 예능 기자, 배우, 라디오·텔레비전 사회자로 활동. 전 부통령 월터 먼데일(Walter Mondale)의 딸.
- 사전트, 토머스(존) Thomas J(ohn) Sargent 1943~ 미국 경제학자. 뉴욕대 경제학 교수. 전미경제학회 회장(2007). 1970년대 이후 경제학계를 지배해 온 합리적 기대 가설을 발전시킨 거시 경제학자. 거시 경제의 원인과 결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중앙은행과 정부의 경제 정책의 변경이 국내 총생산(GDP)이나 인플레이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 공로로 2011년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상.
- 스톨러, 마이크 Mike Stoller 1933~ 미국 작곡가. 작사가 제리 리버

(Jerry Leiber)와의 공동 작업에서 엘비스 프레슬리(Elvis Presley)가 부른 ‘하운드 도그(Hound Dog)’(1956), ‘교도소 로큰롤(Jailhouse Rock)’(1957) 외에 ‘스탠드 바이 미(Stand By Me)’ 등을 작곡.

- 심스, \*크리스토퍼 (앨버트) Christopher (Albert) Sims 1942~ 미국 경제학자. 프린스턴대 경제학 교수. 세계 계량경제학회 회장(1994). 벡터 자기회귀모형(Vector Autoregression) 등 통계 분석 방법을 개발. 거시 경제의 원인과 결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중앙은행과 정부의 경제 정책의 변경이 국내 총생산(GDP)이나 인플레이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 공로로 2011년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상.
- 예이츠, 피터 (제임스) Peter (James) Yates 1929~2011 영국 영화감독. 대표작 자동차 추격 장면으로 유명한 스티브 매킨(Steve McQueen) 주연의 영화 ‘불릿(Bullitt)’(1968) 등으로 잘 알려짐.

#### [인 명] -재심의

- 스미스, 프레더릭 Smith, Frederick 미국의 정치가(1942~ ). -회의 38차
- 제롬 칼 Jerome Karle 역대 노벨 화학상 수상자 -1985, (미국 1918~ ) 물리학자 -회의 29차
- 존 프레스콧 John Prescott 영국(노동당) 내각(1997. 5. 3.) -회의 16차
- 키넝, 닐 Kinnock, Neil 영국의 정치가. -회의 29차

#### [지 명] -실무소위 부결

- 가셔브룸 산 Gasherbrum 산 카라코람 산맥에 속하는, 중국과 파키스탄 접경의 봉우리군. 히말라야 14좌 중 3개의 봉우리를 포함.

### Ⅲ. 국립국어원 교육과 홍보

#### 1. 2011년 국어문화학교 운영

##### 1.1. 2011년 10월 국어문화학교 운영

2011년 10월(제251기, 제252기) 국어문화학교 국어전문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였습니다.

가. 수강자 명단: 제251기, 제252기

나. 교육 기간

· 제251기: 2011년 10월 10일(월)~10월 14일(금)(5일간 35시간, 비합숙)

· 제252기: 2011년 10월 17일(월)~10월 21일(금)(5일간 35시간, 비합숙)

다. 이수 강좌: '국어 어문 규정' 등 국어 관련 약 20개 강좌

라. 교육 내용: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 우리말 다듬기,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협력적 의사소통, 한글의 창제 원리와 한글의 우수성, 공문서 바로 쓰기, 생활 글쓰기 등

마. 교육 장소: 국립국어원(1층 강당, 중1층 세미나실, 3층 강의실)

바. 수강료 관련

· 교육비: 120,000원(수강료+교재비: 100,000원, 점심값(5일): 20,000원)

##### 1.2. 2011년 11월 국어문화학교 운영

2011년 11월(제253기, 제254기) 국어문화학교 국어전문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였습니다.

가. 수강자 명단: 제253기, 제254기

나. 교육 기간

· 제253기: 2011년 11월 7일(월)~11월 11일(금)(5일간 35시간, 비합숙)

- 제254기: 2011년 11월 14일(월)~11월 18일(금)(5일간 35시간, 비합숙)
- 다. 이수 강좌: '국어 어문 규정' 등 국어 관련 약 20개 강좌
- 라. 교육 내용:
  -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 우리말 다듬기,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협력적 의사소통, 한글의 창제 원리와 한글의 우수성, 공문서 바로 쓰기, 생활 글쓰기 등
- 마. 교육 장소: 국립국어원(1층 강당, 중1층 세미나실, 3층 강의실)
- 바. 수강료 관련
  - 교육비: 120,000원(수강료+교재비: 100,000원, 점심 값(5일): 20,000원)

1.3. 2011학년도 국어문화학교 국어전문교육과정 동계 교사 직무 연수 운영 계획  
 2011학년도 국어문화학교 국어전문교육과정 동계 교사 직무 연수를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1. 목적: 교사들에게 바른 어문 규범을 익히게 하여, 교사로서의 자질을 높이고, 주변의 언어 환경을 살펴 올바른 언어 의식을 기르도록 함.
2. 연수 중별: 직무 연수(5일 과정 30시간)
3. 연수 과정명: 국어전문교육과정(2011학년도 동계)
4. 연수 과정 구분: 전문성 향상 과정(교과 지도)
5. 연수 기간
  - 3기: 2012년 1월 9일(월)~1월 13일(금)(5일간 30시간, 80명(40명×2반))
  - 4기: 2012년 1월 16일(월)~1월 20일(금)(5일간 30시간, 80명(40명×2반))
  - \* 기수별 초·중등 교사 구분 없이 모집함.(인원수에 따라 적절히 분반할 예정)
6. 연수 장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국립국어원(지하철 5호선 방화역 근처)
  - 전화: 02-2669-9729, 9662, 전송: 2669-9787, 9747

7. 연수 대상: 전국 초·중등 교원 및 교육 전문직 160명  
 (\* 이 과정을 수료한 후 2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이 가능함.)
8. 연수 경비: 5만 원  
 입금하실 곳: 신한은행 140-005-709040 (예금주: 국립국어원)  
 ※ 수강자 이름으로 연수 시작 3일 전까지 입금 요.
9. 평가 여부: 평가 안 함.
10. 신청 기간: 2011년 11월 7일(월) 09:00부터  
 12월 2일(금) 18:00까지
11. 교육생 선정 결과 공지: 2011년 12월 9일(금)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공지
12. 교육생 선정 기준
  - 신청자의 지역별(광역 자치 단체별) 비율을 고려하여 선정
  - 지역별 인원 내에서는 선착순으로 선정
13. 신청 방법: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 후  
 수강 신청  
 \* 수강 신청 시 연수지명번호를 반드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14. 과정 내용

교 과 목	교 수 요 목	시 수
한글 맞춤법 이론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함.	1강좌 (100분)
특강 (우리말 가르치는 일의 무게)	쉬운 우리말 사용이 민주주의 사회 건설의 바탕임에 대한 이해 심화, 우리말 애호 태도 함양	1강좌 (100분)
특강 (시어와 민족어 완성의 길)	현대시 주요 작품 감상을 통해 민족어 자산의 풍부화, 섬세화에 이바지해 온 시어에 대한 이해를 심화함.	1강좌 (100분)
띄어쓰기	조사, 의존명사, 관형사, 보조 용언 등 띄어쓰기의 원리를 익힘.	1강좌 (100분)
표준 발음법	표준 발음의 원리 이해하기, 모음이나 받침의 발음, 소리의 길이 소리의 변화에 따른 표준 발음의 원리	1강좌 (100분)
표준어 규정	표준어의 기능, 표준어 사정 원칙, 표준어 규정의 실제, 자주 틀리는 사례 알기	1강좌 (100분)
청소년언어사용실태와 개선방안	청소년의 욕설, 비속어 등 언어 사용 실태를 알아보고 이의 바람직한 개선 방안에 대해 함께 알아봄	1강좌 (100분)
우리말 다듬기	국어 순화에 대한 바른 이해(필요성, 대상, 범위, 효과, 방법, 접근 태도), 국어 순화의 전개 과정, 일본어식 한자어, 어려운 한자어, 서구 외래어-외국어, 변형된 국어, 전문 용어와 학술 용어, 복합의 국어 순화	1강좌 (100분)
한글 맞춤법의 실제	맞춤법에서 틀리기 쉬운 말을 중심으로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적용하고 익힘.	1강좌 (100분)
학교 생활문의 표현	학교 현장에서 주로 쓰이는 가정 통신문, 생활기록부 등의 작성 시에 필요한 언어 표현을 익힘.	1강좌 (100분)
외래어 표기법	외래어의 정의, 외래어의 특징, 외래어 표기법의 필요성, 외래어 표기법의 원리, 외래어 표기법의 기본 원칙, 외래어 표기법의 실제	1강좌 (100분)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의 역사, 전사법(轉寫法)과 전자법(轉字法)의 구별, 현행 로마자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의 쟁점과 앞으로의 방향	1강좌 (80분)
구별해야 할 말	발음, 형태, 의미가 비슷한 말 구별하기(한글 맞춤법 제57조의 예들과 일부 한자어들)	1강좌 (50분)
문장 바로 쓰기	문법적인 문장, 의미 전달에 충실한 문장, 주어와 목적어의 누락, 주어와 서술어 관계의 불일치, 조사의 오용, 논리적으로 이상하거나 어색한 문장 등 바른 문장의 요건	1강좌 (100분)
협력적 의사 소통	의사소통을 위한 전제, 효과적으로 듣기(공감적 경청), 효과적으로 말하기(대화의 원리, 정중화법 등)	1강좌 (80분)
시청각 학습	한글 창제의 배경을 당시 정세와 국정 운영에서 찾은 MBC 2005년 한글날 특집 프로그램 'CEO 세종'이라는 시청각 자료 학습	1강좌 (70분)
족자 시험	교육 전 1회, 교육 후 1회 족자 시험을 통해 학업 성취도를 평가함	1강좌 (50분)

## 15. 참고 사항

- 교육 시작일(월)에는 9시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 교육 장소에 오실 때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차량 5부제 시행)
- 구내식당은 국어원 7층에 있습니다.

## 2. 2011년도 제3차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 계획 공고

국어기본법 제19조,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제3차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국립국어원장

- 다 음 -

### 1. 자격 심사 대상(요건) 및 제출 서류

#### 가. 1급 심사 신청

대상	신청 등급 -유형	제출 서류 자격 심사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출력
한국어 교원 2급을 취득한 후에 제13조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2천 시간 이상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이 있는 사람	1급-12번 (경력에 따른 승급)	① 자격 심사 신청서(직접 출력) ② 한국어 교육 경력 증명서 (시행 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1급-12번」: 한국어 교육 경력 인정 기관의 범위(제13조 제2항)

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 부설 기관, 국내 대학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 및 부설 기관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 지방 자치 단체 또는 외국 정부 기관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외국인 정책에 관한 사업

을 위탁받은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5.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7조에 따른 문화원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한국교육원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등

♣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고시된 기관

- 재단 법인 한국어세계화재단이 지정한 세종학당 및 세종교실(인중 세종학당)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지방 자치 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나. 2급 심사 신청

대상	신청 등급 -유형	제출 서류 자격 심사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출력
2005. 7. 28. 후에 대학(원) 입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 학위 취득자 (영 제13조 제1항 제1호 가목)	2급-9번	① 자격 심사 신청서(직접 출력) ② 졸업(학위) 증명서 ③ 성적 증명서 ④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합격증 *외국 국적자에 한함.

대상	신청 등급 -유형	제출 서류 자격 심사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출력
<b>2005. 7. 28. 전에 대학(원) 입학 또는 졸업한 자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 학위 취득자</b> (영 제13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2급-1번	① 자격 심사 신청서(직접 출력) ② 졸업(학위) 증명서 ③ 성적 증명서 ④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합격증 *외국 국적자에 한함.
<b>한국어 교원 3급인 자(부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한국어 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총 1천 200시간 이상의 한국어 교육 경력이 있는 자</b> (영 제13조 제1항 제2호 라목)	2급-13번 (경력에 따른 승급)	① 자격 심사 신청서(직접 출력) ② 한국어 교육 경력 증명서 (시행 규칙 별지 제3호 서식)
<b>한국어 교원 3급인 자(양성 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자,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에 합격한 자, 한국어 교육 경력이 800시간 이상인 자)로서 한국어 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총 2천 시간 이상의 한국어 교육 경력이 있는 자</b> (영 제13조 제1항 제2호 마목)	2급-14번 (경력에 따른 승급)	① 자격 심사 신청서(직접 출력) ② 한국어 교육 경력 증명서 (시행 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2급-13번」, 「2급-14번」: 한국어 교육 경력 인정 기관의 범위(영 제13조 제2항)

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 부설 기관, 국내 대학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 및 부설 기관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 지방 자치 단체 또는 외국 정부 기관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외국인 정책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5.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7조에 따른 문화원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한국교육원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등

- ♣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고시된 기관
- 재단 법인 한국어세계화재단이 지정한 세종학당 및 세종교실(인중 세종학당)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지방 자치 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 3급 심사 신청

-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05. 7. 28.) 이후에 대학 입학(부전공), 양성 과정 등록

대상	신청 등급 - 유형	제출 서류 자격 심사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출력
'05. 7. 28. 후에 대학에 입학하여 졸업한 자료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 <b>부전공자</b> (영 제13조 제1항 제3호 가목)	3급-10번	① 자격 심사 신청서(직접 출력) ② 졸업(학위) 증명서 ③ 성적 증명서 ④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합격증 <b>*외국 국적자에 한함.</b>

대상	신청 등급 -유형	제출 서류 자격 심사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출력
'05. 7. 28. 후에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에 등록하여 이수한 후, '한국어 교육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 (영 제13조 제1항 제3호 나목)	3급-11번	① 자격 심사 신청서(직접 출력) ②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이수 증명서(시행 규칙 별지 제2호 서식) ③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 확인서

- ※ 양성 과정 이수 증명서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 확인서는 <http://www.q-net.or.kr/site/koreanedu>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합격 확인서(필기, 면접)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1.1. 필수 이수 학점 미취득자의 자격 부여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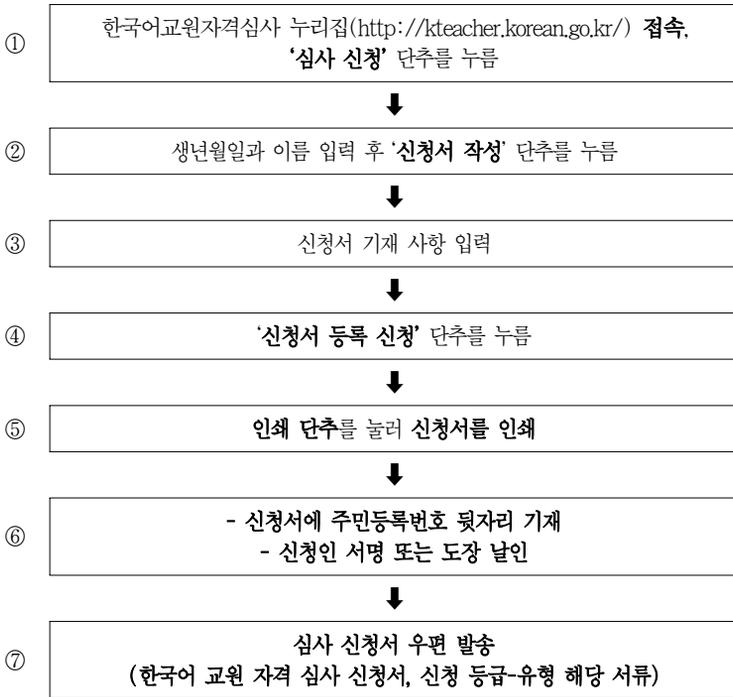
- ① 대상: 시행령(제정) 시행 이후(2005. 7. 28.)부터 2010년 12월 14일까지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어 교육 분야를 전공, 복수 전공, 부전공으로 대학(원)을 졸업한 자
  - ② 내용: 졸업 후에 부족한 필수 이수 학점을 취득한 경우 심의하여 자격 부여
  - ③ 기준: 교과목의 영역 착오, 필수 이수 학점 계산 착오 등의 실수가 명백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최소 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대학 6학점, 대학원 3학점 이내)
-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05. 7. 28.) 이전에 대학(원) 입학 등 (경과 조치 적용 대상)
-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전공(학과)의 개설 시점이 시행령 시행('05. 7. 28.) 이전인 경우에 한함.

대상	신청 등급 -유형	제출 서류 자격 심사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출력
'05. 7. 28. 전에 대학 입학 또는 졸업한 자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 <b>부전공자</b> (영 제13조 제1항 제3호 바목)	3급-2번	① 자격 심사 신청서(직접 출력) ② 졸업(학위) 증명서 ③ 성적 증명서 ④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합격증 *외국 국적자에 한함.
'05. 7. 28. 전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경력이 800시간 이상인 자 (국내외의 대학·부설 기관, 초·중·고교 및 정부 기관) (영 제13조 제1항 제3호 바목)	3급-5번	① 자격 심사 신청서(직접 출력) ② 강의 기간 및 시수를 명시한 경력 증명서(시행 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국외 경력의 경우, 소정의 양식에 따라 반드시 해당 언어로 경력 증명서를 발급 받고, 이를 번역하여 공증 받은 것만 인정함.
'05. 7. 28. 전에 한국어세계화재단이 실시한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02~'04)'에 합격한 자 (영 제13조 제1항 제3호 바목)	3급-6번	① 자격 심사 신청서(직접 출력) ②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 합격 증명서
'05. 7. 28. 전에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에 등록 또는 이수한 자로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06년 이후)'에 합격한 자 (영 제13조 제1항 제3호 사목)	3급-7번	① 자격 심사 신청서(직접 출력) ②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이수 증명서(시행 규칙 별지 제2호 서식) ③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 확인서

※ 「3급-5번」: 한국어 교육 경력 인정 기관의 범위(영 제13조 제2항)

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 부설 기관, 국내 대학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 및 부설 기관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 지방 자치 단체 또는 외국 정부 기관

## 2. 심사 신청 절차



3. 신청 접수 기간: 2011. 12. 19.(월)~2012. 1. 6.(금)

4. 신청 접수 방법: 우편 접수

- 반드시 등기 우편으로 발송 바람.(2012. 1. 6.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 주소: (우)157-857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방화3동 827)  
국립국어원 2층 한국어교육진흥과  
한국어 교원자격심사 담당자 앞

※ 문의 전화: 02-2669-9671, 9672(전자 우편: [kteacher@korea.kr](mailto:kteacher@korea.kr))

5. 서류 작성 및 신청 시 유의 사항: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기 바랍니다.(‘심사 대상

및 제출 서류' 참조)

- 가. 심사 신청서 서류 미비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사진 누락 시
    - ※ 신청서 작성 시 사진 첨부이 어려울 경우 인쇄된 신청서에 사진 부착
  - 신청자 서명이나 도장 날인 누락 시
- 나. '1급-12번', '2급-13번', '3급-5번': 경력 증명서 제출 시 유의 사항
-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 증명서는 '시행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첨부 문서 참조)에 맞게 작성된 것만 유효합니다.
  - 국외 경력의 경우, 반드시 해당 국가의 언어로 발급받고,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국외에서 발급한 경력 증명서는 발급자 및 담당 부서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단, 연락처는 기관의 담당 부서 전화 번호 및 E-mail 주소를 기입 요망. 담당자의 개인 연락처(개인 휴대폰, 개인 메일 계정)는 불가함.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사실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연락처 기재 요망.)
- 다. '3급-11번':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이수 증명서 제출 시 유의 사항
- 양성 과정 개설 기관에서 발급한 모든 이수 증명서는 '시행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첨부 문서 참조)에 맞춰 영역별 이수 과목, 이수 시간, 총 이수 시간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6. 심사 절차 및 결과 발표
- 심사 절차: 국립국어원에서 신청자별 자격 요건 및 서류 등을 검토하고, 국립국어원 및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자격 심사 후 확정

- 심사 결과 발표: 2012. 1. 27.(금) / 국립국어원 한국어 교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 사정에 의해 발표가 연기될 수 있음.
- 자격증 교부 시기: 2012년 2월 중
  -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주 후에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발송 예정

#### 7. 기타 사항

- 제출하신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자격증 교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심사 기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격 심사 누리집 (<http://kteacher.korean.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IV. 국립국어원 인사 발령

### 승진

백진숙: 기능 8급 사무실무원 → 기능 7급 사무실무장(2012년 1월 1일)

### 전보 발령

조원미(5급 대우): 국립국어원 언어정보팀 → 서울대학교(12월 19일)

최익규(행정주사): 서울대학교 → 국립국어원 기획관리과(12월 21일)

정현승(행정주사보): 국립국어원 기획관리과 → 서울대학교(12월 27일)